

9

September 2023
Vol.381

예술의 초대
The Monthly Magazine of the Busan Cultural Center

COLUMN
인형 이블름 등 우아하게!

COVER STORY
극립발레단 '돈키호테'

클라우드에서 만나다. 생활 속 문화공간
웨딩아트베이



Don Quixote

돈키호테
© 극립발레단_Photo by 손자일

오충근 & 창단30주년 기념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54회
Oh Choong Keun & Busan Symphony Orchestra

30
주년
SINCE 1993
Busan
Symphony
Orchestra

PROGRAM

작곡 하순봉

해설 황지원 (전 BSO악장)

하순봉(편곡)
Soon-Bong Ha

라흐마니노프 주제에 의한 교향적 엘레지
Symphonic Elegy from theme of Rachmaninov

라흐마니노프
S. Rachmaninov

교향곡 2번 e단조 작품27
Symphony No.2 in e minor, Op.27



2023.9.26 Tue. 7:30pm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주최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 (사)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

후원 부산광역시 부산문화재단

특별후원 SHINSEGAE BNK 부산은행 경북대학교 11월 송월티움·송월우산 B대선주조 Dongsung 4C KWANG 조광제인트 hyungji 패션그룹형지 동성모터스

원스틸 SAMML Gmax (주)와인테크놀로지 눈시원안과 남산정 요양병원 B&C PVD COAT(주) 영산치과 Chongmae 마에스트로 오충근 후원회

입장권 VIP석 5만원 / R석 3만원 / S석 2만원 / A석 1만원(전석 학생 50% 할인)

예매처 인터파크 YES24.COM

문의 051-621-4577 www.bso21.com

* 본 공연은 2023년 부산광역시, 부산문화재단 <부산문화예술지원사업>으로 지원을 받았습니다.

창단 50주년 기념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제161회 정기연주회

함께 또 같이

수석지휘자
천경필
취임연주



수석지휘자 천경필



소프라노 강혜정



테너 김성배

2023. 9. 9^{SAT} 5:00^{PM}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부산시립극단 제75회 정기공연

장 소 부산시민회관 소극장

시 간 평일 19:30 토요일 17:00

예 매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051-607-6000)
전석 20,000원

패키지 3작품 예매시 50%

스타프로젝트 극작가 김문홍

1

2

3 4

5

6

7

8

9

2023.9.7(목)~9(토)



안개주의보

연출 강성우

출연 이혁우 | 오희경 | 채민수 | 우성주 | 서예은 | 양희진
강원재 | 이재찬 | 우지현 | 최영준

10 11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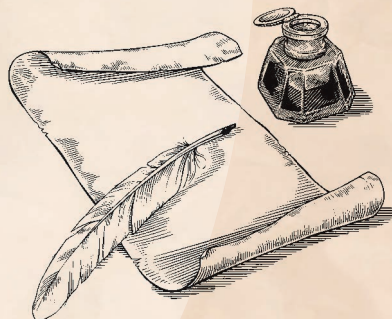
13

14

15

16

2023.9.14(목)~16(토)



사자의 편지

연출 윤준기

출연 이현주 | 엄지선 | 김은옥 | 서보기 | 이태성 | 강승환
이소희 | 박규한 | 김경민 | 장성현

17 18

19

20

21

22

23

2023.9.21(목)~23(토)



목련꽃 그늘 아래서

연출 권상우

출연 황창기 | 김은희 | 박미서

24 25

26

27

28

29

30

을숙도문화회관 재개관 기념공연

Singer
정동하

2023. 9. 22. | 금
오후 7시 30분
을숙도문화회관 대공연장



보컬
김민영



보컬
이주호



샌드어티스트
윤여경



피아노
최성근



Busan Choral Festival & Competition

제19회 부산국제합창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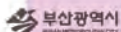
OCTOBER 17-21, 2023
BUSAN CINEMA CENTER, SOHYANG THEATRE



World EXPO 2030
BUSAN, KOREA

부산국제합창제는 2030부산 세계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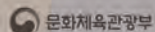
주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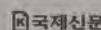
주관



후원



부산일보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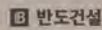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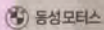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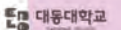


KBS 부산방송총국

부산MB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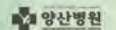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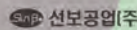
협찬



BNK 부산은행



5E삼정기업



티켓예매 인터파크 www.interpark.com

공연문의 070-4172-0682 busanchoral@gmail.com

Choral ^{Busan} Festival & Competition


2023 부산국제합창제 초청연주회

2023년 10월 19일~20일 소향씨어터 신한카드홀



INVATIONAL CONCERT II 초청연주 II

EASTERN CHAMBER SINGERS

이스턴 챔버 싱어즈 

2006, 2007년 부산국제합창제 대상 UE CHORALE과 지휘자 ANNA


2023년 10월 20일(금) 20:00

티켓: R석 2만원/S석 1만원



INVATIONAL CONCERT I 초청연주 I

THE REAL GROUP

더리얼 그룹 

'I SING, YOU SING' 현존하는 최고의 아카펠라 그룹

2023년 10월 19일(목) 20:00

티켓: R석 5만원/S석 3만원/A석 2만원

SUN	MON	TUE	W
<p>예매</p> <p>공연관람 전 반드시 공연 주최 측에 문의하시거나 (재)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www.bscc.or.kr)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p>		<p>사랑채극장</p> <p>(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음악동화 그림자극 '피터와 늑대' • 관람시간 : 8월 18일(금)-9월 24일(일) 주말 오전 11:00, 오후 2:00 ※ 평일 단체관람 시간상이 • 입 장 료 : 전석 2만원(36개월 이상 관람,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50% 할인) • 문 의 :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p>	<p>전시실</p> <p>(재)부산문화회관 에릭 요한슨展 6월 27일(화)-10월 1일(일) • 관람시간 : 오전 10:00-오후 6:00 (입장 무료) • 입 장 료 : 일반 청소 어린이 1만원 • 문 의 : Hte</p>
<p>3</p> <p>2023 제39회 전국공모 KBS부산 무용콩쿠르 본선 13:00 대 KBS부산방송총국(620-7327) 해금-아쟁연주단 해아연 10주년 2023 정기연주회 'Remind' 17:00 중 해아연(010-8991-4148) BCMS양상블 '높하늬바람의 자취를 쫓아' 17:00 캠 BCMS양상블(010-3156-3156)</p>	<p>4</p>	<p>5</p> <p>부산작곡가협회 제52회 작품발표회 '오케스트라와 함께하는 새로운 시작' 19:30 중 초대/부산작곡가협회(010-7600-4514)</p>	<p>2023 제14회 부산마루국제음악제 15:00 대 초대/부산마루국제음악제 알렉세이 레베데프 피아노 앙망을 만나다' 19:30 중 5만원-3만원/아트뱅크</p>
<p>10</p> <p>2023 제14회 부산마루국제음악제 '차세대 오케스트라 육성을 위한 드림프로젝트' 13:00, 17:00 대 초대/부산마루국제음악제(516-8293~4)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_뮤지컬 '이상한 엄마' 11:00, 14:00, 16:00 중 6만원-4만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p>	<p>11</p>	<p>12</p> <p>뉴프라이밍 오케스트라 제35회 정기연주회 19:30 중 아트락(010-5468-4658) 바리톤 시영민 독창회 '사랑과 죽음' 19:30 캠 초대/시영민(010-4182-0176)</p>	<p>1</p> <p>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가을 랩소디' 19:30 대 2만원-1만원/(재)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센텀합창단 '합창! 오페라 앙망을 만나다' 19:30 중 무료/센텀합창단(010-7600-4514) 2023 제14회 부산마루국제음악제 19:30 캠 전석 1만원/부산마루국제음악제</p>
<p>17</p> <p>2023 제14회 부산마루국제음악제 '차세대 오케스트라 육성을 위한 드림프로젝트' 13:00, 17:00 대 초대/부산마루국제음악제(516-8293~4) 부산신포니에타 제103회 정기연주회 '부산신포니에타 & 호르티스트 김홍박' 18:00 중 전석 3만원/부산신포니에타(010-8519-0448)</p>	<p>18</p>	<p>19</p> <p>제56회 인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19:30 대 R석 2만원-S석 1만5천원 (사)인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626-8081)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꿈꾸는 예술학교 10:30 (단체공연) 중 부산시립예술단 공연사업팀 (607-3113, 3136) 2023 제14회 부산마루국제음악제 앙상블 콘서트Ⅶ '한·중·일 프랜들리 콘서트' 19:30 캠 전석 1만원/부산마루국제음악제(516-8293)</p>	<p>2</p> <p>2023 제14회 부산마루국제음악제 '베트벤 황제와 운명' 19:30 중 3만원-2만원-1만원/부산마루국제음악제 이명진 첼로 리사이틀 19:30 캠 전석2만원/아트뱅크</p>
<p>24</p> <p>(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_뮤지컬 '파리벨라' 14:00, 18:00 대 8만8천원 7만7천원 6만6천원 (주)윌드쇼마켓(1566-5490) 부산발레시어터 '신데렐라' 14:00 중 6만원-4만원/부산발레시어터(513-7779)</p>	<p>25</p>	<p>26</p> <p>창단 30주년 기념 오송근&부산신포니오케스트라 제54회 정기연주회 19:30 대 5만원-3만원-2만원-1만원 부산신포니오케스트라(621-4577) 김지연 오르간 독주회 19:30 중 전석 1만원/김지연(010-2041-2568) 이주은 바이올린 리사이틀 19:30 캠 무료/아트뱅크코리아(442-1941)</p>	<p>2</p>

ED	THU	FRI	SAT
<p>기획전</p> <p>월 8일(일) 10:00~오후 7:00 당 마감 오후 6:00) (만 19세 이상) 1만8천원 년(중·고등학생) 1만5천원 이(36개월~초등학생) 천원 am 070-7008-8905</p>		<p>1</p> <p>2023 제14회 부산마루국제음악제 메인콘서트Ⅱ '2023 콘체르토 컴피티션 갈라콘서트' 19:30 대 전석 1만원/부산마루국제음악제(516-8293~4)</p>	<p>2</p> <p>2023 제14회 부산마루국제음악제 메인콘서트Ⅲ 17:00 대 전석 1만원/부산마루국제음악제(516-8293~4) 부산CBS소년·소녀합창단 정기연주회 17:00 중 부산CBS소년·소녀합창단(636-0050) 제3회 부산의·치대OB관현악단 정기연주회 17:00 챔 부산의치대관현악단(246-2877)</p>
<p>6</p> <p>국제음악제 스쿨클래식콘서트 국제음악제(516-8293~4) 노 리사이틀 '발트슈타인, 크코레아(442-1941)</p>	<p>7</p> <p>2023 제14회 부산마루국제음악제 메인콘서트Ⅳ 부산시립교향악단 제602회 정기연주회 '네 개의 프랑스 관현악' 19:30 대 2만원·1만5천원·1만원·5천원 (재)부산문화회관(607-6000) 소프라노 윤장미 독창회 19:30 챔 전석 3만원/무대공감(0507-1330-3001)</p>	<p>8</p> <p>(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_뮤지컬 '이상한 엄마' 14:00, 16:00 중 6만원·4만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 부산반주연구회 '오페라 이야기_롯데시니' 19:30 챔 부산반주연구회(010-6689-6096)</p>	<p>9</p> <p>창단 50주년 기념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수석지휘자 천경필 취임연주 '함께 또 같이' 17:00 대 3천원·2천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_뮤지컬 '이상한 엄마' 11:00, 14:00, 16:00 중 6만원·4만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 하정희 독주회 17:00 챔 하정희(010-3591-0861)</p>
<p>3</p> <p>제221회 정기연주회 부산문화회관(607-6000) 악를 품다' 19:30 0-6346-6058) 국제음악제 앙상블 콘서트Ⅲ 국제음악제(516-8293~4)</p>	<p>14</p> <p>2023 제14회 부산마루국제음악제 '퀸 엘리자베스 국제콩쿠르 위너스콘서트 in 부산' 19:30 대 5만원·4만원·3만원 부산마루국제음악제(516-8293~4) 제1239회 MBC목요일음악회 19:30 챔 (사)문화도시부산네트워크(760-1494)</p>	<p>15</p> <p>2023 제14회 부산마루국제음악제 프롬나드콘서트Ⅳ '지브리 With 샌드아트 in 부산' 19:30 대 전석 5만원/부산마루국제음악제(516-8293~4) 작곡그룹 An-ti Stimmung 제23회 작품발표회 19:30 중 초대/작곡그룹 An-ti Stimmung(010-8212-0222) 2023 제14회 부산마루국제음악제 앙상블 콘서트Ⅵ '부산국제실내악컴피티션 위너 콘서트' 19:30 챔 전석 1만원/부산마루국제음악제(516-8293~4)</p>	<p>16</p> <p>2023 제14회 부산마루국제음악제 '차세대 오케스트라 육성을 위한 드림프로젝트' 13:00, 17:00 대 초대/부산마루국제음악제(516-8293~4) 창단 30주년 기념 부산체임버오케스트라 제26회 정기연주회 17:00 중 무료/예술기획(010-4909-7444) 윤주연 귀국 첼로 독주회 17:00 챔 전석 1만원/윤주연(010-3570-7436)</p>
<p>0</p> <p>국제음악제 메인콘서트Ⅴ :30 (516-8293~4) 30 코레아(442-1941)</p>	<p>21</p> <p>부산시립합창단 유명지휘자 초청연주회 '그리움 그 기억속에서' 19:30 중 전석 1만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 무지카비바 챔버앙상블 제34회 정기연주회 'Song of Strings with 김효근의 K-Art Pop' 19:30 챔 전석 1만원/무지카비바 앙상블(010-2529-3970)</p>	<p>22</p> <p>독일가곡연구회 '독일가곡으로 듣는 로맨틱동화' 19:00 챔 독일가곡연구회(010-4313-7113)</p>	<p>23</p> <p>(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_뮤지컬 '파리베리' 14:00, 18:00 대 8만8천원·7만7천원·6만6천원 (주)월드쇼마켓 (1566-5490) 부산발레시어터 '신데렐라' 15:00, 19:00 중 6만원·4만원/부산발레시어터(513-7779) 부산클라리넷과르렛과 함께하는 오페라 갈라쇼 18:00 챔 전석1만원/Kongnamul(010-3146-8434)</p>
<p>7</p>	<p>28</p>	<p>29</p>	<p>30</p>

• (재)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에서 예매하십시오.
• 위 공연 전시일정은 주최 측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자세한 공연정보는 www.bscc.or.kr 에 접속하세요.
• 초대(무료)공연은 반드시 주최 측에 문의 바랍니다.

SUN	MON	TUE	WED
<p>예매</p> <p>공연관람 전 반드시 공연 주최 측에 문의하시거나 (재)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www.bscc.or.kr)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p>	<p>전시실</p> <p>부산시민회관 개관 50주년 기념 최민식과 다크멘터리 사진전 8월 4일(금)-9월 8일(금) 전시실 1, 2 • 운영시간: 오전 10:00~오후 6:00 (입장마감 오후 5:00) ※ 매주 월요일, 8월 15일 휴관 • 관람료: 무료 • 문의: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p>	<p>제2회 부산 G-art 정기전 9월 12일(화)-9월 24일(일) 전시실 1·2 • 문의: 부산시민회관 630-5212</p>	
<p>3</p> <p>김창옥 세번째 토크콘서트 13:00, 17:00 대 8만8천원-6만6천원/라이브 아트(1544-9857)</p>	<p>4</p>	<p>5</p>	
<p>10</p> <p>부산국악축제 18:00 대 (사)한국국악협회 부산지회(644-5211)</p>	<p>11</p>	<p>12</p>	
<p>17</p> <p>부산시민회관 개관 50주년 기념 국립발레단 '톤키호테' 14:00 대 9만원-7만원-4만원-2만원 (재)부산문화회관(607-6000)</p>	<p>18</p>	<p>부산시민회관 개관 50주년 기념 '도이치방송오케스트라 with 손열음' 19:30 대 16만원-14만원-11만원-8만원 (재)부산문화회관(607-6000)</p>	<p>2023 대양 가을 음악회 대 대양고등학교(640-6000)</p>
<p>24</p> <p>히사이시 조 OST 콘서트 : 디 오케스트라 14:00 대 8만5천원-7만5천원-6만5천원-4만5천원 두남재엔터테인먼트(02-6292-9368)</p>	<p>25</p>	<p>26</p> <p>제20회 한마음경로대잔치 10:00 대 부산시노인복지시설협회(502-6661)</p>	<p>27</p>

ED	THU	FRI	SAT
1 14:00 0580		1	2
		<p>◆ 부산시민회관 개관 50주년 기념 '2023 부산 인터내셔널 뮤직 페스타' 19:00 대 8만원·5만원·3만원 (재)부산문화회관(607-6000)</p>	<p>◆ 부산시민회관 개관 50주년 기념 '2023 부산 인터내셔널 뮤직 페스타' 15:00 대 8만원·5만원·3만원 (재)부산문화회관(607-6000)</p>
6	7	8	9
	<p>제70회 한얼노인교육축제 13:00 대 한국평생교육총연합회(010-8826-1192) ◆ 부산시립극단 제75회 정기공연 스타프로젝트-극작가 김문홍 '안개주의보' 19:30 소 전석2만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p>	<p>◆ 부산시립극단 제75회 정기공연 스타프로젝트-극작가 김문홍 '안개주의보' 19:30 소 전석2만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p>	<p>◆ 부산시립극단 제75회 정기공연 스타프로젝트-극작가 김문홍 '안개주의보' 17:00 소 전석2만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p>
3	14	15	16
	<p>◆ 부산시립극단 제75회 정기공연 스타프로젝트-극작가 김문홍 '사자의 편지' 19:30 소 전석2만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p>	<p>◆ 부산시립극단 제75회 정기공연 스타프로젝트-극작가 김문홍 '사자의 편지' 19:30 소 전석2만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p>	<p>◆ 부산시민회관 개관 50주년 기념 국립발레단 '돈키호테' 17:00 대 9만원·7만원·4만원·2만원 (재)부산문화회관(607-6000) ◆ 부산시립극단 제75회 정기공연 스타프로젝트-극작가 김문홍 '사자의 편지' 17:00 소 전석2만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p>
0	21	22	23
	<p>◆ 부산시립극단 제75회 정기공연 스타프로젝트-극작가 김문홍 '목련꽃 그늘 아래서' 19:30 소 전석2만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p>	<p>◆ 부산시립교향악단 제603회 정기연주회 '부산시향의 차이콥스키' 19:30 대 2만원·1만5천원·1만원·5천원 (재)부산문화회관(607-6000) ◆ 부산시립극단 제75회 정기공연 스타프로젝트-극작가 김문홍 '목련꽃 그늘 아래서' 19:30 소 전석2만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p>	<p>부자콘서트 18:00 대 찾아가는 소리울(010-6401-7544) ◆ 부산시립극단 제75회 정기공연 스타프로젝트-극작가 김문홍 '목련꽃 그늘 아래서' 17:00 소 전석2만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p>
7	28	29	30
		<p>제18회 부산국제매직페스티벌 '한가위 매직판타지아' 15:00 소 전석 3만원 (사)부산국제매직페스티벌조직위원회(626-7002)</p>	<p>어린이뮤지컬 '티티체리-용의 생일파티를 도와라' 11:00, 14:00, 16:00 대 5만5천원·4만4천원 (주)엔투게더 (070-4108-9999) 제18회 부산국제매직페스티벌 '한가위 매직판타지아' 14:00, 17:00 소 전석 3만원 (사)부산국제매직페스티벌조직위원회(626-7002)</p>

- (재)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에서 예매하십시오.
- 위 공연 전일정은 주최 측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자세한 공연정보는 www.bscc.or.kr 에 접속하세요.
- 초대(무료)공연은 반드시 주최 측에 문의 바랍니다



부산문화회관 & 부산시민회관

2024년도 상반기

정기대관 안내

대상

- 부산문화회관 : 극장(대/중), 전시실
※ 챔버홀은 시설 보수 공사로 인해 2024년 상반기 대관 불가
※ 사랑채극장은 연간 기획공연 진행에 따라 대관 불가
- 부산시민회관 : 극장(대/소), 전시실
※ 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중복 접수 불가
- 휴관일 안내 : 매주 월요일은 휴관일로, 극장과 전시실 대관 불가
※ 셋업, 철수, 운영 등 작업 불가(장기 대관 시 휴관일은 대관료에 미포함)

대관내용

- 대관기간 : 2024년 1월 1일 ~ 6월 30일(6개월)
- 대관가능일 : (재)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 대관공지사항 참조
※ 부산문화회관(www.bscc.or.kr), 부산시민회관(www.bscc.or.kr/citizen)
- 접수기간 : 2023년 9월 1일(금) 09:00 ~ 9월 15일(금) 18:00
- 접수방법 : 온라인 접수 (www.bscc.or.kr/rental)
※ (재)부산문화회관 대관시스템에서 로그인 후 대관신청
※ 이메일 신청 불가
- 결과회신 : 2023년 9월 중(예정)

대관심의 우선기준

- 순수문화예술 공연 및 전시 우선 대관
- 국내·외 저명 예술단체 또는 지역문화 창달을 위한 공연 및 전시
- 오페라, 뮤지컬, 연극 등 종합예술공연 진흥
- 특정 종교의 포교 또는 정치적, 상업적 목적의 공연(행사) 및 전시는 대관 제외

대관신청 및 승인절차

- 신청 및 접수 → 대관심의 → 결과 회신

사용료 납부

- 계약금(대관료의 20%) : 시설사용 승인 후 30일 이내 납부
- 잔금(대관료의 80%) : 대관 예정일 30일전까지(대극장의 경우, 공연일 60일전)
※ 사용예정일이 대관승인일로부터 30일 이내인 경우 계약금과 잔금 동시에 납부
※ 납부기한 내 대관료 미입금 시 사용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대관 승인이 자동 취소되며, 향후 대관신청 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문의

- (재)부산문화회관 문화예술팀
(극장·전시실) 051-607-6055
- 부산시민회관 시민예술팀
(극장) 051-630-5214, (전시실) 051-630-5211



부산문화회관의 정보를 담은
QR코드입니다.

CONTENTS

9

월간문화예술정보지



12 **Column**
잊힌 이름들을 위하여!



14 **Cover Story 1**
국립발레단 ‘돈키호테’



16 **Cover Story 2**
2023 월드 피아니스트 시리즈

20 **거꾸로 보는 미술사 ②⑥**
아이들의 그림으로 기원하는 행복한 한가위

24 **세계의 콘서트홀 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카탈로니아 음악당

28 **서울통신원**
인간 예술가 위협하는 인공지능

30 **골목에서 만나다_생활 속 문화공간**
해성아트베이

33 **Preview**

42 **Review**

44 **Program Guide**

59 **New Book**

60 **BSCC News**

예술의 조대 September 2023 Vol.381

발행처 (재)부산문화회관 48534 부산광역시 남구 유엔평화로76번길 1 Tel. 051 607 6000

발행일 2023년 8월 25일

발행인 이정필 홍보팀장 김명숙 편집장 정복엽 디자인·제작 효민디앤피

잊힌 이름들을 위하여!

이상현 춤 비평가



기억으로 소환하기

지나간 시간을 두고 그냥 흘러간 것이라고 말할 때, 우리는 그 시간에 녹아 있는 수많은 사람과 사건, 감정을 놓치는 우를 범할 수 있다.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의미가 있다는 노랫말에는 지난 시간에 너무 얽매이지 말라는 의미가 녹아 있어 위로되지만, 한편으로 지난 시간이 나름대로 의미 있다고 여기면서 그냥 두는 것이 최선일까 하는 의문도 생긴다. 우리가 최근 겪었던 사회적 참사나 지금에 이르는데 결정적인 바탕을 제공한 사건이나 인물, 너무나 사랑했던 사람을 지난 시간의 일로만 재워둘 수는 없다. '기억하기'는 그냥 둘 수 없는 지난 시간을 소환해 가치를 부여하는 최선의 방법이 아닐까 생각한다. 안타까운 죽음을 애도하고, 기쁜 일을 축하하며 기억해야 할 인물을 기억으로 소환하기에 예술은 매우 효과적인 도구다. 그런데 지나간 예술, 예술가, 작품은 어떻게 기억하고 소환해야 할까?

'예술은 길고 인생은 짧다'의 의미

예술과 시간에 관한 가장 유명한 말은 '예술은 길고 인생은 짧다'라는 히포크라테스의 아포리즘에 가장 처음 나오는 문장이다. 여기서 말하는 '예술'은 지금 우리가 말하는 '예술(Kunste)'이 아니라 라틴어 아르스(ars)로 번역된 '테크네(technē)'이다. 의사인 히포크라테스는 '의술을 제대로 배우고 익히기엔 인생은 짧다'는 의미로 이 문장을 썼다. 그렇다고 의술을 '예술(art)'로 오해한 것이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니다. 테크네에는 조각하고 그림을 그리는 기술(예술)의 의미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술은 길고 인생은 짧다'라는 문장을 두고 '불멸의 예술작품'이나 '예술의 영원한 가치'를 떠올릴 수 있는 것이다. 우리는 보통 예술에 영원한, 불멸의 본질이 있다고 생각한다. 이에 관한 하이데거의 해석은 다르다. 테크네가 예술이나 수공업 혹은 기술 같은 실천적 행위 자체가 아니라 '앎(Wissen)의 한 방식'이며, 앎이란 현존하는 것을 고유의 모습으로 드러내는 행위라고 말한다. 예술가가 예술작품을 창작



할 때, 하이데거가 말한 삶의 행위가 일어난다. 하이데거는 예술의 본질이 불멸의 작품이나 영원한 가치로서의 예술에 있는 것이 아니며, 특히 '인간에게서 떠나가 버린' 본질은 더욱 아니라고 한다. 오히려 예술의 본질은 인간의 도움 없이는 도달하기 어렵다고 말한다. 예술의 본질에 관해 이야기할 때 예술과 인간의 관계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 예술의 본질은 현실 너머 추상적이고 이상적인 상태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술가가 작품을 창작하는 현실의 땅에 존재한다.

부산시립무용단 50년

2023년은 부산시립무용단(이후 '무용단')이 전국 최초의 시립무용단으로 창단한 지 50주년이 되는 해이다. 1973년 10월 11일, 12일 부산시민회관 무대에 올린 창단 공연 <아! 동래성>을 시작으로 2023년 5월 12일, 13일 부산시민회관 대극장에 올린 제87회 정기공연 <1002 Nights_천 두 번째의 밤>까지, 다양한 작품으로 시민들을 만났다. 무용단 정기공연이 지

금처럼 연 2회가 된 것은 1981년부터이다. 안무자는 초대 황무봉을 시작으로 12대 이정윤(2023년 8월부터 임기)까지 11명이(10대부터는 예술감독 겸 안무자 체제) 거쳐 갔다. 창단 당시 안무자를 포함한 무용단 구성원 모두 무보수였다가 1975년에 안무자에게 소정의 급여가 지급되었고, 단원들은 1979년부터 월급을 받게 된다. 보수도 없는 무용단에서 어떤 이유로 몇 년씩 버텼는지 속 깊은 이유는 알 수 없다. 아마 시립무용단이라는 자부심과 춤을 배우고 추면서 얻는 예술적 만족감 때문이 아니었을까 추측할 뿐이다. 창단 당시 단원은 준단원 23명, 연구단원 11명 등 모두 34명이었다가 1977년 무용단이 상임 단체로 승격하면서 인원이 40명으로 늘었다. 이처럼 무용단이 지금의 모습으로 안정되기까지 수많은 사람의 노력이 있었다. 다시 말해 무용단 50년은 그냥 흘러온 것이 아니라 구성원들이 이렇게 될 수 있도록 '행(行)' 했기 때문이다. 무용단 50주년을 맞아 기념 공연을 올리고, 50년사를 발간하고, 세미나를 하는 것은 지금의 무용단이 있기까지 많은 '사람이 행(行)한' 일들을 기억하기 위해서다.

잊힌 이름들을 위하여!

예술의 본질은 인간의 도움 없이는 도달하기 어렵고, 예술의 본질에 관해 이야기할 때 예술과 인간의 관계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하이데거의 주장을 수용한다면, 무용단 50년 역사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부분은 역사 속에 촘촘히 자리 잡은 사람들이다. 그들은 11명의 안무자뿐만 아니라 그동안 거쳐간 단원과 조명, 음향, 무대, 의상, 음악을 맡았던 스텝과 진행, 홍보, 기획을 함께한 예술단과 문화회관 직원들이다. 작품 하나가 주목받아 빛날 때, 한편에서 사라지는 부분이 있다. 주목받은 작품은 안무가나 연출가의 이름과 함께 기억되는데, 동시에 그 밖의 수많은 이름이 작품에 묻힌다. 무용수는 무대 위에서 개인의 소멸을 경험한다. 스텝과 제작진도 마찬가지다. 우리는 그들을 소환하는 일을 중요히 여겨야 한다. 예술과 인간의 관계에서 소홀히 다룬 이름은 없다. 공연예술은 더욱 그러하다. 거창한 기억의 장은 아니라도 무용단 역사를 정리한 책에 그동안 무용단을 거쳐 간 모든 이의 이름이 빠곡하게 들어있는 페이지를 만나는 정도는 어떨까 싶다. 잊힌 이름을 위해서 말이다.

돈키호테의 꿈과 사랑을 그린 명작 발레 국립발레단 '돈키호테'

일시 9월 16일 토요일 오후 5:00, 17일 일요일 오후 2:00
*17일 공연은 단체관람으로 매진입니다.

장소 부산시민회관 대극장

입장료 V석 9만원, R석 7만원, S석 4만원, A석 2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10% 할인)

문의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2023년 국립발레단이 야심차게 선보이는 신작 발레 ‘돈 키호테’가 부산을 찾는다.

발레 ‘돈키호테’는 스페인 극작가 세르반테스의 소설을 모티브로 한 작품으로, 1869년 안무가 마리우스 프티파의 오리지널 초연 이후 지금까지 시대를 초월하여 전 세계 관객들의 사랑을 받아온 명작 발레이다.

이번 작품은 국립발레단의 떠오르는 신예 안무가 송정빈의 재안무 버전으로, 젊은 남녀 키트리와 바질의 사랑 이야기가 주를 이루는 원작에 비해 기사 돈키호테의 사랑과 모험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펼친다. 송정빈은 국립발레단 솔리스트이자 안무가로, ‘KNB 무브먼트 시리즈’를 통해 실력을 입증받았고, 2020년 ‘해적’으로 전막 발레 안무가로 데뷔했다.

**원작의 감동은 살리되
1인 2역 돈키호테로 차별화**

원작 속의 돈키호테는 꿈을 좇는 늙은 기사로, 무대 위에서 춤을 거의 추지 않고 대부분 마임으로만 작품에 등장한다. 반면 이번 국립발레단의 돈키호테에서는 1명의 무용수가 ‘늙은 돈키호테’와 ‘젊은 돈키호테’를 함께 연기하며 역동적인 안무를 선보인다. 특히 돈키호테가 현실 속 아름다운 여인 키트리와 자신의 환상 속 여인 돌시네아를 착각하는 꿈 속 장면인 드림씬에서는, 원작에서 보통 키트리와 돌시네아를 한 무용수가 맡아 1인 2역으로 공연하지만, 이번 재안무 버전에서는 관객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그 둘을 완전하게 분리하면서, 원작에는 없는 돌시네아와 젊은 돈키호테의 파드되(2인무)가 추가됐다. 또한, ‘돈키호테’하면 떠오르는 집시춤 장

면에도 변화를 주면서 집시들이 연극을 한다는 기존 설정에서 집시들을 ‘유랑극단’으로 바꿔 극의 개연성을 한층 높였다. 더불어 유랑극단이 진행하는 연극 이야기를 하나의 또 다른 장면으로 추가하며 극의 재미를 더했다. 반면 ‘돈키호테’의 하이라이트 장면인 키트리와 바질의 ‘결혼식 그랑 파드되’ 등은 원작 그대로 가져와 관객들이 기대하는 명장면의 감동은 그대로 살리면서도 캐릭터와 스토리에 크고 작은 변화를 주어 현실과 환상의 세계를 넘나드는 풍부한 볼거리와 즐거움을 선사한다.

키트리와 바질 역할은 물론 이번 작품에서 과감한 캐릭터 변화를 시도하는 또 다른 주인공인 돈키호테와 돌시네아, 그리고 투우사인 에스파다까지 국립발레단의 간판 무용수들이 총 출동하여 어느 때보다 화려하면서도 안정감 넘치는 무대를 펼친다. 첫날인 16일에는 수석무용수 박슬기와 이재우가, 17일에는 솔리스트 심현희, 하지석이 키트리와 바질 역을 맡아 환상적인 호흡을 선보이며, 새로운 캐릭터인 젊은 돈키호테 역에는 솔리스트 이유홍과 수석무용수 이재우가 맡아 변화된 돈키호테의 묘미를 선사한다.

한국 발레의 역사, 국립발레단

국립발레단은 1962년 창단된 대한민국 최초의 직업발레단으로, 한국 발레 역사의 상징과도 같다. 지난 60여년 동안 수많은 무용수와 안무가를 배출하며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그 위상을 인정받고 있으며, 현재는 국내 최정상 무용수 60여 명과 함께 클래식 발레에서 모던 발레, 네오클래식 발레, 드라마 발레 등 폭넓은 장르로 영역을 확장해 나가고 있다.

피아노의 전설을 만나다

2023 월드 피아니스트 시리즈



거장이 선사하는
음악의 황홀경

피아니스트들의
피아니스트
안드라스 쉬프

현존하는 세계 최고의 피아니스트들이 올 하반기 부산을 찾는다.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으로 마련되는 ‘2023 월드 피아니스트 시리즈’에서는 10월 4일, ‘피아니스트들의 피아니스트’ 안드라스 쉬프를 시작으로 ‘21세기 건반의 여제’ 유자 왕(11월 28일), ‘건반 위의 완벽주의자’ 크리스티안 지머만(12월 27일)까지 세 거장이 부산의 음악팬들과 만난다. 부산에서는 좀처럼 만날 수 없는 거장들의 특별한 무대에 벌써부터 음악팬들의 많은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바흐 해석의 권위자’, ‘피아니스트들의 교과서’ 등 수많은 수식어를 가진 안드라스 쉬프는 방대한 레퍼토리를 자랑하며, 정확하고 세밀한 분석과 타건, 투명한 빛깔의 음색으로 전세계 관중들에게 무한한 감동을 선사하고 있다. 특히 음악에 대한 애정으로 충만한 그의 공연은 관객들의 마음을 매번 사로잡아왔다.

1953년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태어난 안드라스 쉬프 경은 리스트 음악원에서 팔 카도사, 죄르지 쿠르탁, 페렌츠 라도스에게, 런던에서 조지 말콤에게 피아노를 배웠다. 1974년 차이콥스키 국제 콩쿠르에 참가해 4위를 차지하면서 국제무대에 처음으로 이름을 알렸으며,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는 데카 레이블과 계약을 맺고 음반을 발매하기 시작



사진제공 : 마스트미디어

일시

10월 4일 수요일 오후 7:30

장소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입장료

R석 14만원 | S석 11만원

A석 8만원 | B석 6만원

할인안내

(재)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5%(최대 2매),
초·중·고·대학생(본인만) 10% 할인

했다. 슈프가 가장 주력한 음악은 바흐의 작품으로, ‘무반주 파르티타’와 ‘인벤션’, ‘평균율’, ‘골드베르크 변주곡’ 등 바흐의 건반음악을 잇달아 선보이면서 바흐 스페셜리스트로 명성을 알렸다. 1990년 ‘영국 모음곡’을 녹음한 음반으로 그래미상(Grammy Award) 기악독주 부문을 수상했고, 2007년에는 영국 왕립음악원으로부터 바흐 작품 해석의 최고 권위자에게 수여하는 ‘바흐상(Royal Academy of Music Bach Prize)’을 받았다. 최근 몇 년간 그의 바흐 공연은 BBC 프롬스의 연간 하이라이트를 장식했으며, 정기적으로 베르비에, 잘츠부르크, 바덴-바덴 페스티벌에서 연주하고 위그모어 홀, 무지크페라인, 필하모니 드 파리 무대에 오르고 있다.

바흐에서 벨라 바르토크까지 방대한 레퍼토리를 지닌 슈프는 특히 베토벤 소나타 해석에 있어서도 최고의 권위를 자랑한다. 2006년 독일 본의 베토벤 하우스 멤버가 된 슈프는 2007년에는 베토벤 소나타 전곡 음반으로 ‘프랑코 아비아티 최고 음악 평론가상(Premio della critica musicale Franco Abbiati)’을 수상했으며, 2004년부터 약 6년에 걸쳐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 전곡을 연주하는 투어 연주를 미국과 유럽 여러 도시에서 가진 바 있다.

세계 최고의 오케스트라, 지휘자들과 협업하고 있는 안드라스 슈프는 현재 솔로 리사이틀, 연주 디렉팅, 지휘에 주로 집중하고 있다. 그는 국제 모차르테움 재단에서 수여하는 금메달(2012), 독일연방공화국이 수여하는 대십자 공로훈장(2012), 로열 필하모닉 협회 금메달(2013) 등 저명한 상을 다수 수상했으며 2014년에는 영국에서 기사 작위를, 2018년에는 왕립음악원으로부터 명예박사 학위를 받았다. 가장 최근인 2022년에는 라이프치히 시 바흐 훈장을 수상하기도 했다.

베일링 프로그램에 대한 관객들의 기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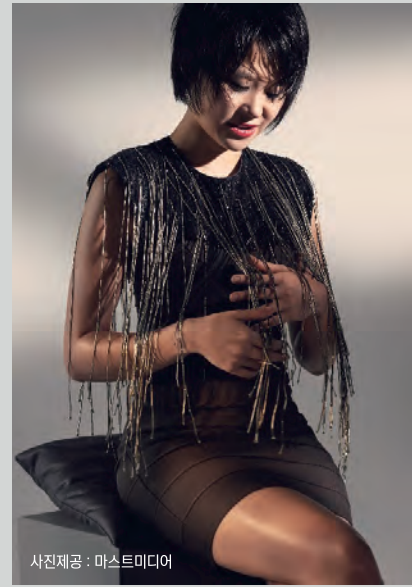
지난해 내한 공연에서 연주 곡목을 사전에 공개하지 않는 ‘베일링 프로그램(Veiling Program)’으로 큰 호응을 얻었던 안드라스 슈프는 올해 공연에서도 같은 형식의 공연으로 또 하나의 소중한 음악적 경험을 관객들에게 선물할 예정이다. 슈프는 당시 ‘청중들에게 더 나은 음악을 들려줄 수 있는 방식’이라며 당일 공연장의 음향, 피아노의 상황, 관중을 고려하여 연주 전 현장에서 선택된 레퍼토리를 구두로 소개하며 공연을 진행한 바 있다. 이번 내한 공연에서도 ‘바흐, 하이든, 모차르트, 베토벤 곡 중에서’라고만 밝히고 자세한 연주곡목을 공개하지 않아 음악애호가들의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다. 음악의 정수를 담백하고 따뜻하게, 그러나 그 누구보다 완벽한 연주로 구현해내는 데 집중하며 듣는 이를 한 순간에 매혹시키는 안드라스 슈프. 그는 이번 무대에서 지금까지 살아온 세월이 깃든 음악과 삶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다른 차원의 연주로 긴 시간 쌓아 온 그의 음악적 유산을 관객들에게 아낌없이 선사할 예정이다.

파격적인 무대로
클래식의 틀을 깨다

21세기 건반의 여제 유자 왕

우아하면서도 카리스마 넘치는 연주로 정평이 나있는 중국 출신 스타 피아니스트 유자 왕도 이번 무대에서 ‘베일링 프로그램’으로 관객과 만난다. 유자 왕은 지난해 가진 첫 내한 리사이틀에서도 같은 형식의 즉흥적인 무대와 10곡 이상 앙코르 곡을 연주하는 파격으로 한국 관객들을 매료시킨 바 있다.

중국 베이징의 음악가 집안에서 태어난 유자 왕은 어린 시절 중국에서 피아노를 공부했고, 이후 캐나다와 미국에서 학업을 이어가 커티스 음악원에서 게리 그래프먼을 사사했다. 2007년 마르타 아르헤리치를 대신하여 샤를 뤼트와가 이끄는 보스턴 심포니 오케스트라와 협연한 후 국제적인 명성을 얻었으며, 2년 후에는 도이치 그라모폰과 전속 계약을 맺었다. 유자 왕은 이후 비평가들로부터 호평을 받은 일련의 공연과 녹음으로 세계 최고의 아티스트들 사이에서 입지를 굳혔다. 2017년 뮤지컬 아메리카로부터 올해의 아티스트로 선정되었고, 2021년에는 구스타보 두다멜이 지휘하는 LA필하모닉과 존 애덤스의 ‘Must the Devil Have all the Good Tunes?’를 세계 최초로 녹음, 이 음반으로 오푸스 클래식 상을 수상했다.



사진제공 : 마스트미디어

트렌드를 주도하는 독보적인 영향력으로 21세기 문화적 아이콘으로 꼽히는 유자 왕은 카리스마 넘치는 예술성, 감정적인 진실함과 무대에서의 매혹적인 존재감으로 유명하다. 세계적으로 명망 있는 지휘자, 음악가, 앙상블과 함께 공연하고 있는 그녀는 기교뿐 아니라 자연스럽고 활기찬 연주로 유명하다. 최근 카네기홀에서 지휘자 야니크 네제-세갱과 필라델피아 오케스트라와 함께 선보인, 라흐마니노프 탄생 150주년을 기념하는 라흐마니노프 마라톤 공연에서 유자 왕은 라흐마니노프 ‘피아노 협주곡’ 4개의 전곡 연주에 더불어 ‘파가니니의 주제에 의한 랩소디’까지 연달아 연주하는 기록적인 무대를 선보였다. 특히 이날 공연장 주변에는 티켓을 구하기 위해 줄지어 선 관객들로 그야말로 진풍경을 자아내기도 했다.

지난 시즌, 북미, 유럽, 아시아 지역의 세계적인 공연장에서 대망의 국제 리사이틀 투어를 성황리에 끝마친 유자 왕은 베토벤, 리게티, 쇤베르크를 포함한 광범위한 프로그램으로 그녀의 재능, 기술적 능력, 뛰어난 예술성을 다시금 청중들에게 전하며, 클래식 음악계에 위치한 그녀의 존재감을 확실하게 각인시켰다.

일시

11월 28일 화요일 오후 7:30

장소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입장료

R석 13만원 | S석 10만원

A석 8만원 | B석 6만원

할인안내

(재)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5%(최대 2매),
초·중·고·대학생(본인만) 10% 할인

완벽함으로

최고의 무대를 선사하다

건반 위의 완벽주의자 크리스티안 짐머만

열여덟 살의 나이로 쇼팽 국제 콩쿠르에서 1등상을 수상하며 세계적인 명성을 얻은 크리스티안 짐머만은 이후 명망 높은 오케스트라들과 함께 작업하고 국제적인 콘서트홀에서 리사이틀을 개최하며 지금까지 월드 클래스의 커리어를 이어오고 있다.

폴란드의 음악가 집안에서 태어난 짐머만은 유년시절을 매일같이 그의 집에 모여 음악 활동에 전념하는 예술가들로 둘러 쌓인 주변 환경 속에서 보냈으며, 이러한 경험은 결국 짐머만 스스로를 자연스레 음악의 길로 접어드는 계기가 되었다. 짐머만은 솔리스트 이외에도 기돈 크레머, 정경화, 예후디 메뉴인과 같은 뛰어난 음악인들과 함께 실내악 파트너십을 이루며 다양한 활동을 이어왔으며 레너드 번스타인, 헤르베르트 폰 카라얀, 세이지 오자와, 리카르도 무티, 로렌 마젤, 앙드레 프레빈, 피에르 볼레즈, 주빈 메타, 스타니스와프 스크로바체프스키, 사이먼 래틀 경과 같은 명 지휘자들과 함께 무대에 올랐다.

도이치 그라모폰과의 오랜 작업 기간 끝에 수많은 음반들이 최고의 상들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룬 짐머만은 1999년에는 그의 음반 작업을 위해 특별 구성된 오케스트라와 함께 쇼팽의 콘체르토 작품들을 발매했으며, 쇼팽 서거 150주년을 위해 다시 한 번 특별 구성된 오케스트라와 함께 유럽과 미국 전역을 순회하며 연주하기도 했다. 2020년 가장 최근에 발매된 음반은 베토벤 탄생 25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제작된 런



© Felix Boede / DG

던 심포니 오케스트라(지휘/사이먼 래틀 경)와의 베토벤 피아노 협주곡 전곡으로, 발매와 동시에 전세계적으로 끊임없는 호평을 받았다.

음악에 있어서만큼은 엄청난 완벽주의자인 짐머만은 그의 모든 리사이틀 공연에 본인이 소유한 피아노로 연주한다. 공연을 하기에 앞서 자그마한 문제의 여지가 있는 모든 방해 요소를 최소화시키고자 하는 완벽주의에 가까운 그의 기질에서 비롯된 관행으로, 피아노 제작에 있어서도 물론 여타 전문가 못지않은 해박한 전문 지식을 갖고 있다. 이미 거장의 반열에 선 연주자이지만 완벽한 무대를 위해 철저한 준비성으로 무장한 짐머만의 연주는 관객들에게 따스한 위로를 전한다.

일시

12월 27일 수요일 오후 7:30

장소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입장료

R석 17만원 | S석 13만원

A석 10만원 | B석 7만원

할인안내

(재)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최대 2매),
초·중·고·대학생(본인만) 5% 할인

아이들의 그림으로 기원하는 행복한 한가위

허나영 한국연구재단 연구교수

폭염과 폭우, 태풍, 홍기 사건까지, 올 여름은 힘든 시간이었다. 더위는 또 한번 기록을 갱신했다. 그래도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가을이 올 거라는 생각에 견뎌지는 거 같다. 예상치 못한 재해에도 '이 또한 지나갈 것이라'는 말처럼, 나는 내일을 기대하면서 한고비 한고비를 넘어갔다. 곧 다가올 한가위처럼 말이다. 한가위는 최대 명절로 한 해동안 노력한 수확을 결과물을 함께 나누는 날이다. 지금은 농업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는 아니지만, 옛 기억이 문화로 남아 그동안 안부를 전하지 못한 가족과 지인들에게 연락하면서 한 해를 잘 지내왔음을 다독여주고, 앞으로 한 해의 마무리를 건강하게 하길 기원한다. 그리고 이러한 바람은



1 <백동자도 10폭 병풍>, 조선, 종이에 채색, 101.5×330cm, 국립민속박물관 소장



2 <백동자도 8폭 병풍>, 조선, 종이에 채색, 85×330cm, 국립민속박물관 소장

‘한가위만 같아라’라는 말처럼, 우리 문화에서 한가위는 풍요로움의 상징이기도 하다. 그러한 행복을 기원하는 전통 회화 중 ‘백동자도(百童子圖)’^[도판 1, 2]가 있다.

백명의 아이들이 노는 그림

모란, 복숭아, 소나무, 학, 거북 등 전통 채색화에는 복을 기원하는 상징적인 이미지들이 가득차 있다. 모란의 화려함이나, 소나무의 푸르름과 같이 본 사물의 특성을 바탕으로 한 의미도 있지만, 동양의 이상세계인 무릉도원(武陵桃源)을 상징하는 복숭아도 있듯이, 고사성어나 신화에서 연유한 의미들도 있다. 그 중 장수와 복을 누린다는

의미로 조선에서 많이 그려졌던 그림 중 ‘백동자도’가 있다. 백명의 아이들이 뛰어오는 그림으로, 실제로 백명을 채우기 보다는 그만큼 많은 아이들이 평화롭고 천진난만하게 노는 그림이다.

중국 주나라 문화의 어머니 태임이 백명의 아들을 낳았다는 이야기를 토대로 많은 아이들이 즐겁게 놀고 있는 모습을 그려, 다산을 기원했다고 한다. 또는 당나라 괘자의자 백명의 아들과 천명의 손자를 봤다는 점에서 건강하게 장수하며 다복에 대한 기원으로 해석되기도 한다. 어찌되었든 조선 시대에 많이 그려진 ‘백동자도’에는 쌍쌍투를 튼 아이들이 삼삼오오 모여서 즐겁게 놀고 있다.

그림마다 놀이는 다른데, 닭이나 강아지와 놀기도 하고 연날리기를 하거나 자치기를 하는 모습도 보인다. 나무를

타고 놀기도 하고 삼삼오오 모여서 놀이에 집중하는 모습이 아이답다. 요즘 아이들이 전쟁놀이를 하거나 의사놀이처럼 역할놀이를 하듯이, 장군놀이나 정승놀이를 하기도 한다. 정승역할을 하는 아이가 작은 조랑말을 타고 그 주위를 호위하는 아이들이 깃발을 들고 행차하고 있다. 아마도 길에서 봤을 법한 정승의 행차처럼 거드름을 피워보고 싶었는지 모른다. 그리고 장군이나 사또처럼 마루에 앉아 계단 밑의 범죄자를 취조하는 듯한 모습도 보인다. 요즘 아이들이 도둑과 경찰을 역할을 나누어 노는 것처럼, 장래희망을 역할로 간접경험해보는 것이다. 그리고 아이들이 모두 비슷한 나이대만 있는 것이 아니라 큰 아이들이 동생을 업거나 데리고 와서 함께 놀기도 하는 모습에서 현실적이기도 하다.

이 모습을 통해 당시 아이들의 놀이를 같이 상상해보면, 의복이나 놀이방법은 다르지만 요즘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생각이 든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무런 근심없이 놀이에 집중하고 있는 아이들의 모습에 배시시 웃음이 나기도 한다. 건강한 자손도 많이 낳고 걱정없이 아이들을 키울 수 있다면, 더없이 좋을 것이다. ‘백동자도’는 비단 아이가 많길 바라는 것을 넘어 그림 속 아이들처럼, 걱정없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세상을 기원하고 있다. 그리고 이 그림처럼 어떠한 질병도 폭력도 없기에, 아이들이 걱정하지도 두려워하지도 않고 행복할 수 있는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중섭의 군동화

‘백동자도’가 전통회화에서 아이들의 천진함을 그림에 담았다면, 한국현대미술 대표작가 이중섭도 아이들의 모습을 많이 그렸다. 특히 발가벗고 즐겁게 놀고 있는 아이들의 모습은 보는 이들도 미소짓게 한다. 이중섭은 일본 유학을 마치고 고향에 돌아왔을 때 잠시 미술선생님을 한 적이 있다. 그 때 수업을 하기 보다는 들관에서

뛰놀며 아이들을 관찰하곤 했다고 한다. 아이와 같은 순진함을 가지고 있기도 했지만, 그리고자 하는 대상을 오랫동안 바라보고 관찰하곤 하던 이중섭의 습관이기도 했다. 그리고 아들이 태어나면서 이중섭은 남자 아이들을 더 자주 그렸다. 동그란 얼굴로 신나게 나무를 타고 솜바꼭질을 하며 노는 아이들의 모습은 마치 동화같이 보인다.

큰 아들을 병으로 잃고 전쟁을 피해 두 아들을 데리고 피난을 가는 고단한 상황을 겪을 때도 이중섭은 그림에서만 큰 행복한 모습을 가득담았다. 힘든 현실을 피해 행복한 이상세계에 가고 싶은 듯이 말이다. 제주도 피난 시절, 이중섭과 가족들이 처한 현실은 너무나 가혹했다. 그림에도 이중섭은 그 시절을 추억하며 훗날 커다란 복숭아가 달린 무릉도원과 같이 그렸다.^[도판 3] 바다 멀리 두 개의 섬이 있는 서귀포 앞바다를 배경으로 하면서도 마치 전통 회화처럼 줄무늬 산과 파도, 아이만한 복숭아가 매달려있는 나무는 전통회화의 형태와 상징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아이들이 신나게 놀고 있다.

이 외에도 이중섭은 그만의 독특한 은지화에서도 아이들의 모습을 많이 그렸다. 그중 두 아이가 서로 안고 있는 이 그림^[도판 4]은 일본에 가있는 두 아들을 그리워하며 그린 것



3 이중섭, <도원>, 1953년경, 종이에 유채, 65×76cm



4
이중섭, <아이들>, 연도미상, 은지,
8.5×15cm

이다. 이중섭은 두 아들에게 그림 많이 팔아서 돈을 벌어서 자전거와 과자를 사서 일본으로 가겠다고 편지를 쓴곤 했다. 그리고 그 바람과 꿈을 담아 아이들을 모습을 그리고 또 그렸다. 이중섭 그림 속 아이들은 보고 싶은 아들이기도 하고 그리운 자신의 어린시절이기도 하다. 그리고 힘겨운 현실과 다른 백동자도 속 세상과 같은 행복세계이기도 하다. 춥고 굶주리고 몸과 마음이 병들어가던 시기, 그리고 식민지와 전쟁으로 인한 비운의 시대에서 이중섭이 삶을 견딜 수 있는 유일한 끈은 한없이 낙천적인 아이들의 모습을 그리는 것 뿐이었을지 모른다.

천진한 아이들의 마음으로 시름을 내려놓기를 바라며...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불고 언제 흐렸냐는 듯 높고 파란 가을 하늘을 보면서, 무더운 여름을 무사히 보냈음을 감사하게 된다. 그리고 곧 매서운 추위가 오겠지만 그 사이에 울긋불긋 물드는 단풍과 오곡백과가 익어가는 풍족하고 아름다운 가을을 잠시나마 즐겨볼 수 있기를

기대한다. 세상의 시름과 걱정 근심을 안고 있는 어른들에게 명절은 사실 그리 즐겁지 않은 많은 시간일 수 있지만, 어린 시절을 생각해 보면 걱정없이 행복하고 재밌는 시간이기도 했다. 오랜만에 사촌들을 만나고 친척어른들에게 용돈도 받으며, 그날 만큼은 공부나 숙제 걱정없이 놀 수 있는 시간이기도 했다. 아이들에게는 교통체증이나 갑자기 늘어난 지출은 그다지 걱정되지 않는다. 그저 나를 좋아하는 어른들과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을 만나서 놀 수 있는 시간일 뿐이다.

그렇게 잠시나마 세상의 근심을 내려놓고 천진한 마음으로 백동자들처럼 즐겨보면 어떨까. 비단 명절이 아니더라도, 덤지도 춥지도 않은 가을의 어느 날 온전히 나만의 즐거움을 위한 소소한 시간을 가져볼 수 있기를 바란다. 그동안 수고했노라고 스스로를 다독이며, 후회되는 일들에 아쉬워하고 잘한 일에 칭찬을 아끼지 않았으면 좋겠다. 우리에게도 그림 속 아이들처럼 천진했을 때가 있었고, 그저 지금 이순간의 즐거움이 전부였을 때도 있었다. 그 순간을 즐길 수 있는 때가 바로 진정 행복한 한가위가 될 것이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카탈로니아 음악당

PALAU DE LA MÚSICA CATALANA

글, 사진, 이상훈 아트컨시어지 대표

카탈로니아 음악당(Palau de la Música Catalana)은 스페인 카탈로니아주 바르셀로나에 있는 콘서트홀이다. 건축가 루이스 도메네크 이 몬타네르 (Lluís Domènech i Montaner)가 스페인 모더니즘 스타일로 디자인한 이 건물은 1891년에 설립된 합창단인 오르페오 카탈라(Orfeó Català)를 위해 1905년에서 1908년 사이에 지어졌다. 주로 오르페오 카탈라(Orfeó Català)의 재정 지원을 받았지만 바르셀로나의 부유한 사업가와 당시 부르주아 층으로부터도 재정적 기부가 다수 이루어졌다.

카탈로니아 음악당은 1909년 바르셀로나 시 의회로부터 전년도에 건축된 최고의 건물에 수여되는 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이후 1982년부터 1989년 사이에 이 건물은 건축가 오스카 투스케츠(Oscar Tusquets)와 칼 디아즈(Carles Díaz)에 의해 광범위한 복원, 리모델링 및 확장 작업을 거쳤고 1997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다. 현재는 교향악과 실내악같은 클래식 연주부터 재즈, 대중가수의 공연까지 다양한 음악 공연을 관람하기 위해 연간 50만 명이 찾고 있다.



2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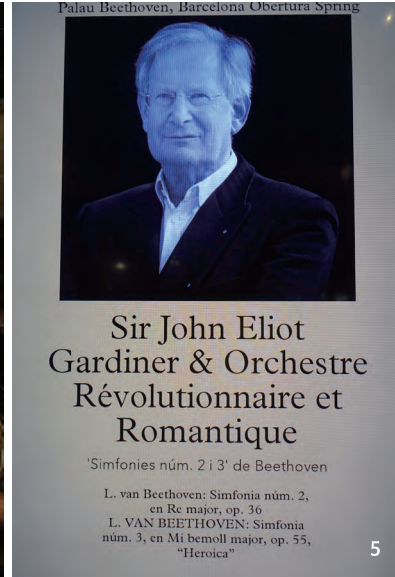
- 1 카탈로니아 음악당
- 2 음악당 내부 장식물 중 베토벤 흉상
- 3 '발퀴레의 비행'을 실감나게 묘사한 부조

카탈로니아 음악당은 카탈로니아 광장과 개선문, 그리고 바르셀로나 시내 한 가운데 위치한 피카소 미술관 사이 '상 페르 지구'로 알려진 오래된 구역의 비좁은 모퉁이에 위치하고 있다. 람블라스 거리에 위치한 리세우 극장과 다르게 관광객이나 보행자에게 쉽게 발견되는 위치는 아니지만 외관부터 화려한 공연장을 일단 찾게 되면 바르셀로나의 그 어떤 화려한 건축물보다도 매력적이다.

건물의 디자인은 직선보다 곡선이 우세하고, 정적인 형태보다 역동적인 형태가 인상적이다. 꽃과 기타 유기적 모티프를 강조하는 풍부한 장식이 광범위하게 사용된다는 점에서 카탈로니아 모더니즘의 전형이나 모더니즘 양식으로 지어진 다른 많은 건물들과 달리 디자인은 매우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다. 기능에 엄격한 주의를 기울이고 20세기 초에 사용 가능한 최신 재료와 기술(예: 강철 프레임)을 최대한 활용했다.

공연장이 건설될 당시 바르셀로나의 부유한 시민들은 건축가에게 카탈로니아 인의 성격을 상징하는 건축 자재와 기





4, 5 존 엘리엇 가디너 경과 혁명과 낭만 오케스트라의 베토벤 사이클

술을 요청했고 이에 대응하여 루이스 도메네크는 다양한 지역 장인과 공예가들에게 멋진 장식, 조각 및 장식 구조 요소를 제작하도록 의뢰하여 이들에게 창작의 자유를 부여했다. 결과적으로는 마치 하나의 예술작품과도 같은 공연장이 탄생하게 되었다.

약 2,2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카탈로니아 음악당은 유럽에서 낮 시간 동안 자연광으로만 조명을 받는 유일한 공연장이다. 양측의 벽은 주로 웅장한 아치에 설치된 스테인드 글라스 판유리로 구성되어 있으며, 머리 위에는 안토니 리갈트(Antoni Rigalt)가 디자인한 거대한 스테인드 글라스 채광창이 있다. 그래서 공연장 내부에 들어가게 되면 그 화려함에 대부분의 관객들은 탄성을 자아낸다. 하지만 때로는 이 유리 천장 때문에 홀의 음향에는 부정적이라는 평가도 있다.

건축 장식은 창의성과 상상력의 걸작이지만, 음악 표현에 있어서도 유용성을 고려하여 모든 것이 신중하게 고려되었다. 무대 옆에 있는 거대한 조각품 때문에 때로는 하나

의 거대한 조형 작품으로 인식되기도 하는데 음악당 내부의 호화로운 조각과 장식의 모티프는 최초 이 공연장이 합창단에 의해 의뢰되었다는 점과 연관되어 있다. 합창단원들은 공연 시 스테인드글라스 채광창을 둘러싸는 위치에 배열된다. 무대 왼쪽은 카탈로니아 민요를 부활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유명한 합창단 지휘자 안젤름 클라베의 흉상이 있다. 그리고 이 조각상 아래에는 카탈루냐의 노래 '5월의 꽃(Les Flors de Maig)'을 부르는 조각된 소녀들이 앉아 있다. 무대 전면의 아치는 조각가 파블로 가르갈로(Pablo Gargallo)가 디자인 했는데 무대 오른쪽에는 바그너의 오페라 '니벨룽겐의 반지' 4부작 중 발퀴레(Die Walküre)에 등장하는 '발퀴레의 비행(Ride of the Valkyries)'을 실감나게 묘사한 부조가 자리하고 있다. 또 그 아래와 두 개의 도리안식 기둥 사이에는 베토벤의 흉상이 있다. 아치는 왼쪽의 민속 음악과 오른쪽의 클래식 음악을 표현하고 있는데 이는 다시 아치 상단에서 만나게 된다.

무대 뒤편의 반원 안에는 '뮤즈로 널리 알려진 18명의 젊은 여성의 모습'이 있다. 벽에는 여성의 단조로운 상반신이 돌

출되어 있고, 하반신은 벽의 일부를 이루는 화려한 모자이크로 표현되어 있다. 여성들은 각각 다른 악기를 연주하고 있으며, 각각 다른 스커트, 블라우스, 정교한 디자인의 머리장식을 하고 있다. 두 그룹 사이의 중앙에는 카탈로니아 문장의 모자이크가 있고 상부 발코니에서 위세를 떨치고 있는 날개 달린 말 조각은 그리스 신화의 말이자 비상하는 상상력의 상징인 페가수스를 기리기 위한 것이다. 기둥과 유리 벽 사이의 각 아치형 천장에는 유명한 음악가의 이름이 적힌, 월계수 녹색 잎으로 둘러싸인 흰색 타일 메달이 있다. 무대 왼쪽부터 팔레스트리나, 바흐, 베토벤, 쇼팽 그리고 오른쪽에는 헨델, 모차르트, 글루크, 바그너가 적혀 있다.

1908년 궁전 개관 당시에는 지역 작곡가와 예술가가 무대에 섰지만 세계 1차 대전 이후부터는 세계적인 연주자들과 관현악단이 이 아름다운 콘서트홀을 찾고 있다. 아더 루빈스타인(Arthur Rubinstein), 클라우디오 아라우(Claudio Arrau), 예후디 메뉴힌(Yehudi Menuhin), 므스티슬라브 로스트로포비치(Mstislav Rostropovich), 알프레드 브렌델(Alfred Brendel), 빌헬름 켐프(Wilhelm Kempff), 스바토슬라프 리히테르(Sviatoslav Richter), 블라디미르 아쉬케나지(Vladimir Ashkenazy), 마우리치오 폴리니(Maurizio Pollini), 그리고 다니엘 바렌보임(Daniel Barenboim)과 같은 연주자들과 몽세라 카바예(Montserrat Caballé), 호세 카레라스(José Carreras), 바바라 헨드릭스(Barbara Hendricks) 등의 성악가도 무대에 올랐다.

이 밖에 세계 최정상급의 오케스트라와 지휘자들 역시 카탈로니아 음악당을 찾았다. 헤르베르트 폰 카라얀(Herbert von Karajan)과 클라우디오 아바도(Claudio Abbado)가 지휘하는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Berliner Philharmoniker), 칼 뵘(Karl Böhm), 주빈 메타(Zubin Mehta) 그리고 레너드 번스타인(Leonard Bernstein)이 지휘하는 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Wiener Philharmoniker) 등이 그러하다.

필자는 팬데믹이 막 시작하는 2020년 2월 카탈로니아 음악당에서 공연되는 이 연주 때문에 바르셀로나를 찾았다. 바로 존 엘리엇 가디너 경(Sir Jhon Eliot Gardiner)이 지휘하는 혁명과 낭만 오케스트라(Orchestre Révolutionnaire et Romantique)의 베토벤 9개 심포니 전곡 연주였다.

2020년은 베토벤 탄생 250주년이 되던 해여서 많은 교향악단이 베토벤 사이클을 메인 프로그램으로 전면내세웠던 해였고, 이들 중 나의 선택은 바로크 원전 악기로 고음악의 대가인 가디너 경이 연주하는 베토벤 전곡 연주였다. 그리고 합창 음악을 위해 만들어진 카탈로니아 음악당에서 베토벤의 합창을 듣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았다. 다행히 연주는 성황리에 끝났지만, 그 직후 코로나가 전세계를 뒤덮었고, 이후의 많은 음악회들은 취소되면서 팬데믹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6 음악당의 스테인드 글라스 천장 7 음악당 전면 파사드

인간 예술가 위협하는 인공지능

장지영 국민일보 기자, 공연 칼럼니스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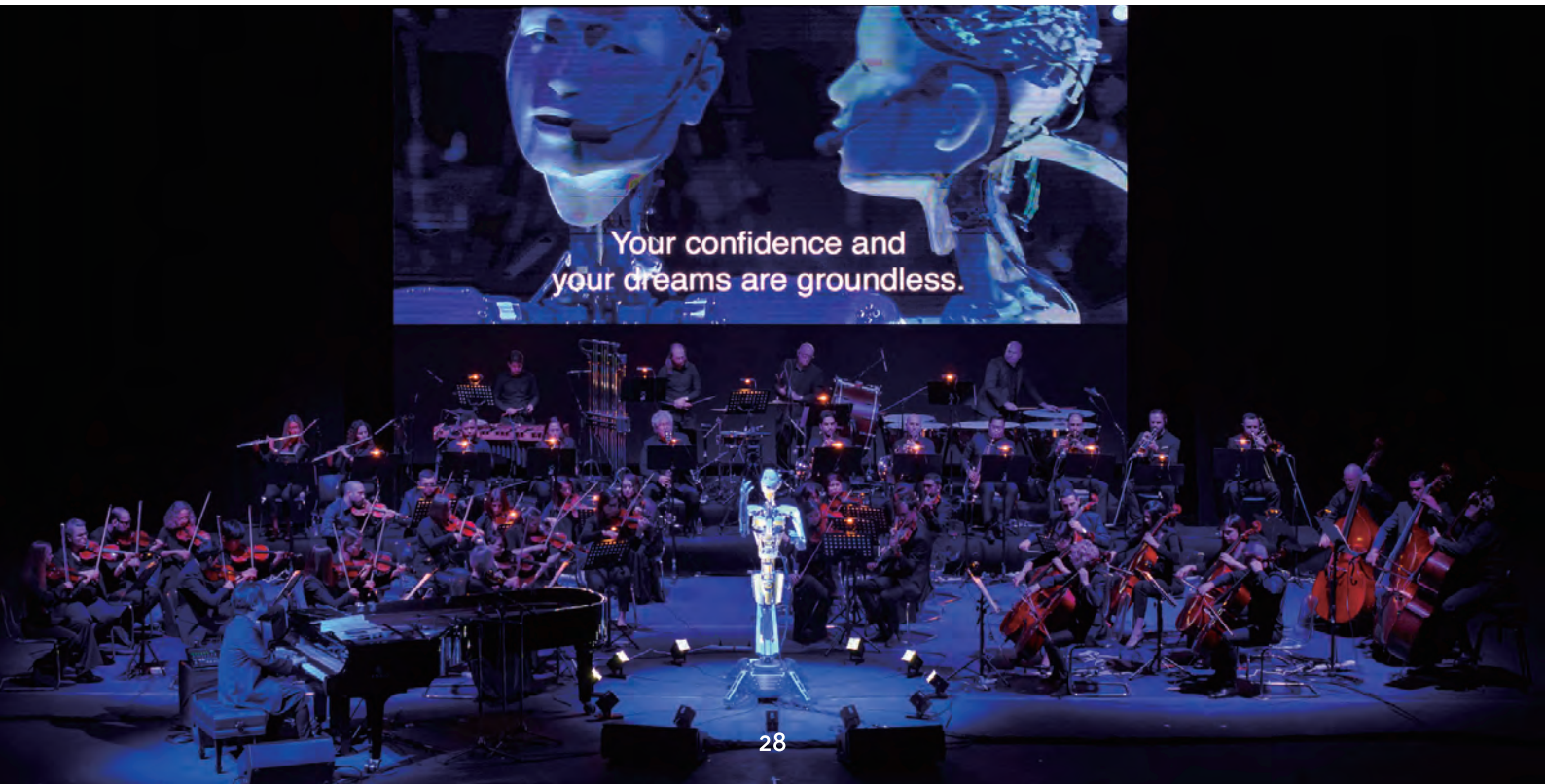
최근 국내에서 화제성을 놓고 볼 때 최고의 공연은 단연 6월 30일 국립극장 해오름극장에서 열린 국립국악관현악단 관현악시리즈Ⅳ <부재(不在)>였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로봇이 지휘에 도전한다는 점에서 공연을 앞두고 언론의 취재경쟁이 펼쳐졌을 정도다. <부재>의 지휘는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서 개발한 안드로이드(인간형) 로봇 ‘에버6’과 최수열 부산시립교향악단 예술감독이 나누어 맡았다.

최초의 여성인 ‘이브(Eve)’와 로봇의 첫 글자 ‘R’을 합해 이름을 지은 인간형 로봇 ‘에버(EveR)’는 2006년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서 처음 제작됐다. 이후 기술의 발전에 따라 사람의 움직임을 자연스럽게 보여주는 방향으로 계속 버전업 됐다. 이번에 지휘에 나선 ‘에버6’은 에버 시리즈의 여섯 번째 버전으로 상반신만 인간처럼 구현됐다. 이동은 불가능하지만 팔과 목, 어깨에 달린 20여개의 모터 덕분에 상체의 움직임은 유연했다. 시작은 오퍼레이터의 원격조

종이 필요하지만 ‘에버6’은 연주에 들어가면 프로그래밍된 대로 정확한 박자를 보여줬다. 실제로 ‘에버6’은 이날 국립국악관현악단의 인기 레퍼토리인 ‘깨어난 초원’과 ‘말발굽 소리’를 박자대로 정확하게 지휘했다. 몽골 작곡가의 작품을 국악관현악으로 편곡한 두 곡은 조바꿈 없이 빠른 박자라는 공통점을 가졌다. 이에 비해 최수열 지휘자가 지휘한 ‘침향무’와 ‘영원한 왕국’은 협연자가 출연하거나 악상의 변화가 큰 곡이었는데, 로봇의 완벽한 박자만으로는 표현할 수 없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호흡을 보여줬다.

결과적으로 이번 공연은 로봇이 아직은 인간 지휘자를 대체할 수 없음을 보여줬다. 지휘자의 역할이 정확한 박자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음악의 해석자로서 연주자 간 음악적 합의를 끌어내야 하기 때문이다. 연주자와 감정을 교감하면서 그 신호를 주는 사람이 지휘자라는 점에서 ‘에버6’은 ‘지휘 퍼포머’에 불과했다. 하지만 로봇이 예술 분야에서 인간의 창의성을

알터(Alter)2의 오페라 <Scary Beauty>(2018년) © Kenshu Shintsubo



흥내낼 수 없다고 안심하기엔 기술의 발전 속도가 만만치 않다.

공연 장르의 경우 로봇이 신체적 움직임을 동반하며 인간(배우 혹은 관객)과 상호작용을 해야하는 어려움 때문에 20세기 말이 되어야 무대에 등장했다. 1960년대부터 로봇을 활용한 설치 작업과 퍼포먼스를 시작한 미술 장르와 비교할 때 늦지만 최근 생성형 인공지능(AI)의 등장으로 인간만의 영역을 넘보게 됐다. 기존 AI가 데이터와 패턴을 학습해 대상을 이해했다면 생성형 AI는 기존 데이터와 비교 학습을 통해 새로운 창작물을 탄생시킨다. 이에 따라 생성형 AI가 인간의 고유 영역이었던 예술 분야에도 빠르게 활용되기 시작했다.

지난해 미국 콜로라도주박람회 미술전에서 생성형 AI '미드저니'로 제작된 <스페이스 오페라극장>이 디지털 아트 부문 1위를 차지한 것이 본격적인 논란을 일으켰다. '미드저니'는 수십억개에 달하는 인터넷 이미지를 학습해 사용자가 입력한 명령어에 맞춰 그림을 그려주는 프로그램이다. 당시 "우리는 지금 예술의 죽음을 보고 있다"는 대중의 반응이 나왔을 정도다. 반면 일각에서는 "AI 작품을 만드는 것이 포토샵 같은 프로그램을 쓰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작품을 만들어내기 위해 입력하는 문구에는 여전히 인간의 창의성이 필요하다"며 수상자를 옹호하기도 했다.

생성형 AI를 이용한 창작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올해 미국에서는 작가와 배우들의 파업까지 등장하게 됐다. 미국작가조합과 미국배우조합의 파업의 양대 쟁점은 OTT의 재상영분배금과 기본급 인상, AI 확산에 따른 예술가의 권리 보장이다. 특히 생성형 AI로 인한 저작권 침해가 핵심이다. 실제로 방송사와 영화사, OTT 등 고용주 입장에서 기존 작품을 학습한 생성형 AI를 이용해 기본적인 구조나 초안을 만든 후 작가들을 참여시켜 완성도를 높이



인간형 로봇 에버6

사진제공 : 국립극장

는 게 경비 절감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배우들 역시 자신의 얼굴과 목소리가 딥페이크 기술로 얼마든지 재창조되는 것을 우려해 디지털 초상권을 요구하고 있다. 아직까진 노사가 합의를 찾지 못한 상황이다.

생성형 AI를 장착한 로봇 역시 위협적이다. 로봇 지휘와 관련해 그 시초는 2008년 일본 혼다의 로봇 '아시모(Asimo)'가 디트로이트 심포니를 지휘한 것이다. 다만 한 손으로만 위아래를 오가는 제한적인 움직임으로 뮤지컬 넘버 1곡만 지휘했다는 점에서 이벤트에 불과했다. 그래서 실질적인 로봇 지휘는 2017년 스위스 ABB의 로봇 '유미(Yumi)'가 이탈리아 루카 필하모닉 오케스트라를 지휘하고 테너 안드레아 보첼리와 협연한 것이 처음이다. 당시 '유미'는 루카 필하모닉의 상임 지휘자 안드레아 콜롬비니의 지휘 동작을 모방해 프로그램된 대로 음악을 이끌어갔고, 이날 연주한 18곡 가운데 3곡의 지휘를 책임졌다. 이번 국립국악관현악단의 <부재>와 비슷한 콘셉트였다.

그런데, 최근 일본에서 흥미로운 시도가 등장했다. 바로 생성형 AI 탑재 인간형 로봇이 오케스트라를 지휘하면서 노래까지 한 '알터(Alter)2'의 오페라 <Scary Beauty>(2018년)와 '알터3'의 오페라 <Super Angels>(2021년)다. '알터2'와 '알터3'은 인간 뇌의 신경회로를 모방한 신경망을 통해 스스로 사람의 움직임을 모방하는 과정을 거쳐 결국은 스스로 움직임을 만들어낸다. 이에 따라 오케스트라 지휘에서도 음악 전체의 템포나 강약을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유미'나 '에버6'과 비교할 때 '알터2'와 '알터3'은 낮은 수준이지만 인간만의 것으로 여겨지는 창의성과 자율성을 보여줬다. 이것은 AI 탑재 로봇 지휘자가 언젠가는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음악의 표현법을 개발하거나 형식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앞으로도 로봇의 진화는 계속될 것이고, AI와의 결합을 통해 그 속도가 더 빨라질 것이기 때문이다.

소유한 것을 공유하니
이것이 아름다운 일이다



박나무 자유기고가

김환기, 박수근, 이중섭, 유영국, 이우환, 천경자, 박서보, 나혜석, 최영림, 도상봉... 한국을 대표하는 근현대미술의 대가들이다. 이 분들의 작품 중에 한 점이라도 갖고 있다면, 몹시 영광이겠고 엄청난 보화일테지만 나에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 같다. 그러나 이 분들의 작품들을 모두 소장한 대단한 사람, 김종신 회장을 만났다. 용호동 유람선터미널에 자리잡고 있는 해성아트베이에서는 <10대 거장전>이라는 간단한 타이틀을 걸고 대가들의 작품을 전시하고 있는데, 놀랍게도 입장료를 받지 않고 있다. 귀한 작품들을 소장하고 보여주는데는 많은 품이 든다. 어떻게든 구해야 하고, 곱게 보관해야 하고, 잘 전시해야 한다. 이 모든 것에 드는 것은 금전일텐데 “좋은 작품을 부산시민에게 더 많이 잘 보여주고 싶을 뿐”이라 한다. 미술관 운영에 드는 모든 재원을 김 회장의 사재에서 출연한다고 하니 이 또한 놀라운 일이다.

해성아트베이는 1층에서부터 예사롭지 않다. 각종 진귀한 조선시대 작품들이 가득이다. 일월오봉도, 궁중향락도, 화조영모도에 추사의 작품들까지 예사로운 작품들이 벽면에 붙어있다. 홀의 가운데에는 백자청화목동문호, 백자청화초충문편병, 분청자기면상감편병, 청자음각인물산수문매병 등이 어울려 자리잡고 있다. 김대중 대통령의 친필회호 <새천년 새희망>도 틈새에 끼어있는 느낌이다. 100년 넘은 뒤주나 좌탁들에 불교미술





품들이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하나 둘씩 올라왔다. 육군본부에 가면 별들이 워낙 많아서 대령이 커피를 타고 있다던데, 마치 그 모습을 보는 것 같다. 소장품이 너무 많아서 이 지면에 다 소개하지 못함이 안타깝다. 직접 가보는 수밖에 없다. W, L, G 등 인근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이 몹시 부러워졌다.

굵직한 미술품들만 1만 여점에 이르고, 우표나 화폐 등 소품을 다 합치면 4만점이 넘는 소장품들을 언제 다 보여줄 수 있을지가 김중신 회장의 고민이다. “일단 미술품만 해도, 1년에 1천점씩 전시한다 한들 다 보여드리려면, 10년이 걸린다. 지금 전시되는 작품을 보지 못하시면 10년을 기다려야 할 수도 있으니 서둘러 와서 보셔야 한다” 그 와중에 미술품을 구매하기도 하고 떠나보내기도 하니, 운이 좋으면 새로운 작품을 만날 수도 있겠지만, 반면에 지금 여기 걸려있다고 해서 나중에 또 볼 수 있다는 보장도 없다. 김 회장의 가슴을 뛰게 하는 작품이 있으면, 소장품을 교환해서라도 가지고 온다하니, 어떤 작품이 맞트레이드 될 지 알 수 없는 일이다. 해성아트베이의 소식에 알람을 걸어놓고, 수시로 가 볼 일이다.

워낙 진귀한 작품들이라 구매 요구가 끝없이 이어지는데, 돈이 있다고 해서 구입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한다. 그저 자주 와서 보시라고 권하는 게 김 회장의 첫 일이다. 그래도 자꾸 조르면 “그 작품을 왜 갖고 싶은지” 적절한 이유를 대야 한다. 김 회장처럼 미술관을 운영하고 싶다는 이유면 좀 흔들리는 편이고,

재테크로 차익을 남기고 싶다는 느낌이 오면 말도 못 붙이게 한다고... 둘째는 작품을 구입했다 하더라도 당장에 가져가지 못하고 길게는 10년, 짧게는 5년까지 해성아트베이에 두었다가 가져가야 한다는 것이다. 가능하면 이 곳을 찾는 분들에게 더 잘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고, 또 구입하는 이의 진심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진정 사랑한다면 기다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일까. 그래서 실제로 일어나는 거래는 많지 않은 편.

마치 꿈결에 있는 것 같다. 국립중앙박물관에 기증된 L회장의 소장품은 여러 번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만나지도 못했는데, 해성아트베이는 시내버스를 타고 와서는 부딪히는 사람도 없이 1층부터 3층까지 편안하게 오르내리며 감상할 수 있다. 김환기를, 이중섭을, 박수근을... 온전히 독점하고 언제까지고 그 앞을 지킬 수 있다. 이제 소문이 나면 L컬렉션처럼 예매를 성공해야 관람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작품들이 내 거실에 없지만 시내에 무료로 개방되어 있는 것은 부산에게 큰 축복이 아닐 수 없다. 그런데 아직 수도권이나 다른 지역에서 보러오는 사람이 더 많다는 것도 아이러니다. 1949년생 김중신 회장이 오래도록 건강하여 시민들과 작품들을 아름답게 공유하며 함께 행복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문의 해성아트베이 1533-2680, www.hsartbay.com



INVITATION TO THE

G

가람아트홀	621-6669
가온아트홀	1600-1602
경성대학교 콘서트홀	663-5361
공간소극장	611-8518
국립부산국악원	811-0114
글로벌아트홀	505-5995
금정문화회관	519-5661-2

D

동래문화회관	550-6611
대동대학교 D'ART홀	510-4838, 010-9429-7014
드림씨어터	1833-3755

M

무지크바움	070-7692-0747
-------	---------------

B

부산메트로홀	1600-0316
부산광역시 학생교육문화회관	605-5114
부산광역시 학생예술문화회관	366-8114
부산문화회관	607-6000
부산북구문화예술회관	309-4081
부산민주공원	790-7400
부산시민회관	630-5200
부산예술회관	612-1372

S

성원아트홀	1899-5435
소극장 6번출구	010-5232-1350
소민아트센터	991-2200
소향씨어터 신한카드홀	1644-2963

수아트홀	744-1415
시네바움	010-2774-3455
신명천지소극장	515-7314
스페이스 뭉	557-3369

E

엑터스소극장	611-6616
에저포소극장	852-9161
얼린아트홀	527-0123
영도문화예술회관	419-5561
영화의전당	780-6000
용천지랄소극장	625-0767
울속도문화회관	220-5812
일터소극장	635-5370

C

차성아트홀	728-0993
청춘나비아트홀	070-8241-2560
초콜릿팩토리	621-4005

H

해운대문화회관	749-7651
효로민락소극장	623-6232

B

BEXCO 오디토리움	740-7369
BNK부산은행조은극장	1588-2757
BOF아트홀	0507-1330-3001

K

KBS부산홀	620-7181
--------	----------

S

SM아트홀	1600-1602
-------	-----------

ARTS

부산시립극단 제75회 정기공연 스타프로젝트-극작가 김문홍



극작가 김문홍



연출가 강성우



연출가 윤준기



연출가 권상우

◆ 부산시립극단이 소극장 연극을 지향하여 기획한 스타프로젝트 2023년 무대가 9월 7일부터 부산시민회관 소극장에서 펼쳐진다.

스타프로젝트는 외형적 규모가 큰 공연을 주로 제작해온 부산시립극단이 극단의 레퍼토리를 다각화하기 위한 시도로, 단원이 주도하는 배우와 연기 중심의 작품으로 관객과 만나왔다.

특히 올해는 부산지역의 대표적인 극작가이자 원로 연극인으로 현재도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김문홍 선생의 작품을 무대에 올린다. 1976년 소설가로 등단한 후 1980년부터 희곡을 쓰기 시작하여 지금까지 여섯 권의 희곡집을 발표한 김문홍 선생은 (사)한국연극협회 부산지부장(1989~1991), 부산시립극단 창단 준비위원 및 운영위원 역임, 창작극연구회(1995~현재) 대표, 부산공연사연구소(2013년~현재) 소장, 한국연극협회 회원, 부산연극협회·부산국제연극제 자문위원으로 있으며 40여 년 넘게 부산의 연극현장을 지켜오고 있다. 2014년 '김문홍 희곡상'을 제정하여 현재까지 9회 시상했으며, 2008년 한국연극협회 제정 '자랑스런 연극인상', 2018년 부산시문화상(공연예술 부문)을 수상했다. 김문홍 선생이 그동안 출간한 여섯 권의 희곡집에는 총

39편의 희곡이 수록되어 있으며 이 중 4개 작품을 제외한 35편의 작품은 부산의 여러 극단에 의해 이미 공연된 바 있다.

이번 무대에서는 선생의 초창기 작품인 '안개주의보'(9월 7일~9일)를 시작으로, 미공연작 중 하나인 '사자의 편지'(9월 14일~16일), 그리고 배우와 연기에 집중할 수 있는 '목련꽃 그늘 아래서'(9월 21일~23일) 등 김지용 예술감독이 직접 선정한 세 편의 작품을 무대에 올린다. 작품의 연출은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된 강성우(극단 누리예), 윤준기(극단 트렁크 타이거), 권상우(극단 B급 로터리) 연출가가 '안개주의보', '사자의 편지', '목련꽃 그늘 아래서'의 연출을 차례대로 맡아 자신만의 색깔있는 무대를 선사한다.

"여섯 권의 희곡집을 모두 읽는 동안 극작가 김문홍의 작품세계, 과정을 느낄 수 있었다"는 김지용 예술감독은 "젊은 시절 초창기의 희곡은 전복적이고 도전적이며, 숙련기와 완숙기에 이르는 동안 보다 규모가 큰 사극이 주를 이루면서 오늘날과 과거를 관통하는 보편성과 부조리에 대한 성찰, 역사 인식의 확장을 엿볼 수 있었다"며 특히 "길게는 30년, 짧게는 10년 전의 세상을 반영하는 희곡 속 텍스트가 오늘날의 연출과 배우를 만나 어떻게 달라질지, 또 어떻게 여전할지 기대해달라"고 한다.

일 시 9월 7일(목)-23일(토) 목-금요일 오후 7:30, 토요일 오후 5:00 장 소 부산시민회관 소극장

입장료 전석 2만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30%, 3작품 예매시 50% 할인)

문의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뮤지컬 **이상한 엄마**



◆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따뜻한 판타지 뮤지컬 '이상한 엄마'가 부산을 찾는다.**

아동문학계의 노벨상 '아스트리드 린드그렌(ALMA)'상을 수상한 세계적인 작가 백희나의 따뜻한 위로를 담은 동명의 그림책을 뮤지컬로 제작한 '이상한 엄마'는 뮤지컬 '알사탕'과 '장수탕 선녀님'에 이은 백희나 작가의 세 번째 뮤지컬로, 원작이 주는 섬세한 감동과 위트를 무대 위에 생생하게 구현하여 부모와 아이 모두의 마음을 사로잡는다.

작가 백희나는 2005년 '구름빵'으로 볼로냐 국제아동도서전 '픽션 부분 올해의 작가'로 선정되면서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으며, '장수탕 선녀님'으로 '제53회 한국출판문화상'과 '제3회 창원아동문학상'을 수상했다. '알사탕' 일본판으로 '제11회 MOE 그림책서점대상'과 '제24회 일본그림책대상' 번역 그림책 부문·독자상 부문을 동시에 수상하며 해외에서도 이름을 알리기 시작한 백희나는 2020년 어린이책의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아스트리드 린드그렌 추모상'을 수상하면서 한국 그림책의 위상을 높였다. 지난해에는 창작동화 '달 사베트'로 미국 최고 권위의 어린이·청소년문학상인 '보스턴 글로브 훈복 어워드'를 수상하는 등 해외의 다양한

도서전 및 출판 관련 수상을 통해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이상한 엄마'는 비가 오는 서울, 직장에서 근무 중인 '호호'의 엄마에게 걸려 온 전화 한 통으로 시작된다. 열이 심해 아이가 조퇴했다는 연락을 받은 엄마는 주위에 도움을 요청해보지만, 누구에게도 쉽사리 연락이 닿지 않는다. 아이를 키우는 부모라면 한 번쯤은 겪어봤을 상황에 지켜보는 이들의 마음도 함께 초조해진다. 바로 여기에서 '백희나표' 착한 마법이 시작된다. 도움이 간절한 순간 나타난 '이상한 엄마'의 손길은 모든 이의 염원을 담은 따뜻한 판타지가 된다.

특히 이번 뮤지컬 '이상한 엄마'는 원작의 이야기에 섬세한 스토리 구성을 추가해 관객들의 몰입도를 높이고, 중독성 있는 음악과 다양한 무대효과로 관객들의 시선을 사로잡는다. 평범한 일상의 공간인 '집'에서 펼쳐지는 이야기는 영똥하지만 귀여운 '이상한 엄마'의 등장으로 관객들을 전혀 다른 공간으로 안내한다. '호호'와 '이상한 엄마'가 보내는 유쾌한 하루는 반복되는 일상에 지친 모든 이들에게 힐링의 시간을 선사한다.

일 시 9월 8일 **금요일** 오후 2:00, 4:00, 9일-10일 **토·일요일** 오전 11:00, 오후 2:00, 4:00

장 소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입장료** R석 6만원, S석 4만원(만 24개월 이상 관람,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50% 할인)

문의 (주)씽크브릿지 1533-7857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창단 50주년 및 제161회 정기연주회

수석지휘자 천경필 취임연주 함께 또 같이



◆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천경필 신임 수석지휘자의 취임을 축하하는 특별한 무대 ‘함께 또 같이’가 9월 9일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에서 펼쳐진다.

특히 올해는 1973년 창단한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이 창단 5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로, 천경필 수석지휘자와 새로운 50주년을 준비하며 긴 역사와 전통에 어울리는 최고의 합창단으로 성장하기 위한 각오를 다진다.

끊임없는 열정과 경이로운 몰입으로 합창의 매력을 선사하는 천경필 수석지휘자는 충남대학교 음악과를 졸업하고 이탈리아로 유학, 조르조 페데리코 게디니 국립음악원, 로마 인터내셔널 아트 국제 아카데미, 밀라노 가에타노 도니체티 아카데미를 최우수 졸업했다. 2003년 이탈리아 바레세 시에서 주최하는 최고 합창지휘자 코스에서 최우수 지휘자로 선발되어 한국인 최초로 바레세 시립합창단을 지휘하면서, 당시 많은 저널리스트들로부터 ‘바로크 음악의 탁월한 해석’이라는 찬사와 함께 많은 주목을 받은 천경필은 2016년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대전시립청소년합창단 예술감독 겸 상임지휘자로 있으며 한국 청소년 합창음악을 선도해왔다.

이번 무대에서는 합창예술의 근본적 아름다움을 표현할 수 있는 다채로운 무대를 선사한다. 첫 번째 무대에서는 ‘Ave Maria’, ‘Ubi Caritas’, ‘Cantate Domino’ 등 아름다운 고전합창음악이 펼쳐지며, 이어서 한국가곡 합창무대에서는 박지훈이 작곡한 애절하고 고풍스러운 ‘진달래 꽃’과 이견용 작곡의 익살스럽고 경쾌한 리듬이 돋보이는 ‘투쿠투쿠타카티키’로 관객들의 흥을 돋운다. 세 번째 무대에서는 ‘Bring Me Little Water’(미국), ‘Hoj, Hura Hoj’(체코) 등 세계의 현대 아카펠라 합창음악이, 마지막 무대에서는 ‘우리 서로 안아 주세요’, ‘다 잘될 거야’, ‘함께 걷는 길’ 등 따뜻한 사랑과 희망의 가사, 선율이 돋보이는 합창무대를 펼친다.

특히 이번 무대에서는 제3회 대한민국 오페라대상 신인상과 2014년 서울 석세스 어워드 문화부문 대상을 수상하고 현재 계명대학교 교수로 있는 소프라노 강혜정과 한국예술종합학교 음악원과 이탈리아 로마 산타체칠리아 국립음악원, 노르마 아카데미, 아레나 아카데미를 졸업하고 부산칼빈신학교 조교수로 있는 테너 박성배가 출연,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한다. 또한 지역예술인(부산대 성악과,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과 함께 다채롭고 풍성한 무대를 선사한다.

일 시 9월 9일 토요일 오후 5:00 장 소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입장료 R석 3천원, S석 2천원(만6세 이상 관람)

문 의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제221회 정기연주회 가을 랩소디



◆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이 마련하는 가을밤 국악의 향연 '가을 랩소디'가 9월 13일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에서 펼쳐진다.

최근 취임연주회를 통해 많은 박수를 받았던 예술감독 이동훈이 지휘하는 이번 무대에서는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해금 수석 윤해승, 상송가수 조엘, 김해시립가야금연주단이 출연, 가을의 서정을 느낄 수 있는 우리 음악으로 가을밤의 정취를 선사한다.

첫 곡은 '문묘제례악'의 음악적 소재에 영감을 받아 작곡된 국악관현악 '만추(조다운 곡)'로, 3악장 구성을 통해 광활한 대자연의 생성과 여정을 아름다우면서도 웅장하게 그려낸다. 이어지는 곡은 해금 협주곡 '가을을 위한 도드리'(이건용 곡)로, 해금주자 윤해승의 협연으로 들려준다. 보들레르의 시 '가을의 노래'에서 받은 느낌을 바탕으로 작곡된 곡으로, 힘찬 여름에서 가을, 겨울의 차디찬 어둠으로 접어드는 과정을 음악으로 그린 작품이다. 협연자 윤해승은 중요무형문화재 제1호 종묘제례악 이수자, 국악실내악팀 미토리 동인, 크로스오버 밴드 토다(TODA) 멤버, 해금아쟁연주단 해아연 단원으로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부산대학교 한국음악학과, 부산예술고등학교에 출강하며 후진양성에도 힘쓰

고 있다.

가을 하면 떠오르는 상송을 국악 연주로 만날 수 있는 상송과 국악관현악에서는 우리 귀에도 친숙한 '사랑의 기쁨', '사랑의 찬가', '빠담빠담'을 상송가수 조엘의 노래로 들려준다. 조엘은 한국예술종합학교 음악원 성악과와 오스트리아 빈 프라이너 음악원을 졸업하고 그동안 오페라 가수 및 솔리스트로 다양한 무대에 서왔으며, 현재는 상송가수로 활동하며 1집 앨범 'plaisir d'amour'을 발매한 바 있다.

김해시립가야금연주단은 이번 무대에서 25현 가야금 협주곡 '밤하늘에 기대어'(이정호 곡)를 들려준다. 찬란했던 가야의 역사를 배경으로 지난 1998년 창단된 전국 유일의 시립 가야금 연주단인 김해시립가야금연주단은 전통음악에서 현대음악, 기악곡에서 성악곡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고 정제된 한국음악의 세계를 펼치고 있다. 이번 무대에서는 단원 이은아, 박정미, 조설리, 이현주, 김주현, 나정빈의 연주로 들려준다.

마지막 무대에서는 겨우내 움츠리고 있던 나무가 봄과 함께 깨어나 푸른 잎을 피워내는 장엄하고 아름다운 봄의 정경을 노래한 국악관현악 '꿈꾸는 나무'(황호준 곡)로 계절의 변화를 들려준다.

일 시 9월 13일 수요일 오후 7:30 장 소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입장료 R석(1층) 2만원, S석(2층) 1만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문 의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부산시민회관 개관 50주년 기념
도이치방송오케스트라 WITH 손열음



피아노 손열음



지휘 피에타리 잉키넨
 © WernerRichner



도이치방송오케스트라
 Foto: Jean M. Laffittau

◆ 독일 서남부 지방을 대표하는 도이치방송오케스트라가 부산을 찾는다.

특히 이번 무대에서는 뛰어난 통찰력과 한계없는 테크닉, 광범위한 레퍼토리를 바탕으로 국제적인 명성을 쌓아가고 있는 피아니스트 손열음이 함께 한다.

도이치방송오케스트라는 지난 2007년 자르브뤼겐방송교향악단(RSO)과 SWR방송교향악단이 합병되어 창단된 오케스트라로, 독일 남서부 지역은 물론 프랑스, 이탈리아, 영국, 스위스 등 매년 80회 넘게 세계 무대에 오르는 명문 악단으로, 고전과 낭만주의, 20세기와 동시대 음악까지 레퍼토리 폭이 매우 넓다. 특히 2009년부터 아시아 투어를 진행하면서 2012년과 2014년, 2016년, 2018년 등 네 차례 내한공연 모두 호평받으며 국내에서도 많은 음악팬들을 거느리고 있다. 도이치방송오케스트라를 이끄는 핀란드 출신의 지휘자 피에타리 잉키넨은 2017년부터 도이치방송오케스트라의 수석지휘자 겸 예술감독이자 현재 KBS교향악단 음악감독, 재팬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수석지휘자를 겸임하고 있다.

이번 무대에서는 독일이 배출한 작곡가 바그너, 베토벤의 작품을

통해 '정통 독일 사운드'를 들려줄 예정이다. 우선 첫 곡인 바그너의 '탄호이저 서곡'은 오페라의 분위기를 그대로 전해주는 정교한 구성과 낭만적이면서도 송고한 힘이 느껴지는 멜로디로, 서곡만 따로 연주되는 경우가 많으며, 바그너의 관현악곡 중에서도 가장 유명하다. 이어지는 곡은 피아니스트 손열음이 협연하는 라흐마니노프 '피아노 협주곡 제3번'으로, 특히 이 곡은 '악마의 협주곡' 또는 '피아니스트의 무덤'이라 불릴 만큼 극한의 고난도 테크닉을 요구하는 작품이다.

피아니스트 손열음은 지난 2011년 제14회 차이콥스키 국제피아노콩쿠르에서 준우승 및 모차르트 협주곡 최고연주장, 콩쿠르 위촉 작품 최고연주상을 차지하며 전 세계의 뜨거운 주목을 받았다. 대관령음악제 제3대 예술감독을 역임하며 전 세대를 아우르는 독보적인 감각과 기획력을 선보였으며, '하노버에서 온 음악편지'의 저자로 진솔한 글솜씨를 호평받는 등 이 시대 새로운 예술가의 모형을 보여주며 다방면에서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마지막 곡인 베토벤 '교향곡 제7번'은 독일 특유의 묵직한 사운드를 지닌 도이치방송오케스트라의 핵심 레퍼토리로 꼽히는 작품으로, 압도적인 리듬의 반복이 드라마틱한 긴장감을 만들어내는 이 작품을 통해 '정통 독일 사운드'를 들려줄 예정이다.

일 시 9월 19일 화요일 오후 7:30 **장 소** 부산시민회관 대극장
입장료 VIP 16만원, R석 14만원, S석 11만원, A석 8만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10% 할인)
문의 STUDIO DUZON 02-514-0280~1

부산시립합창단 특별연주회 및 유명지휘자 초청연주회

그리움 그 기억속에서



지휘 손동현



◆ 가을의 시작을 알리는 9월, 부산시립합창단이 가을을 노래하는 서정적인 합창음악으로 관객들과 만난다.

이번 무대는 부산시립합창단이 국내외 합창음악계를 이끌고 있는 지휘자를 부산 관객들에게 소개하는 ‘유명지휘자 초청연주회’로, 성남시립합창단 예술감독 겸 상임지휘자를 역임한 손동현 지휘자가 무대에 선다. ‘유명지휘자 초청연주회’는 지난 2021년 이기선 예술감독이 취임한 후 다양한 프로그램과 신선한 구성으로 가깝게 다가가기 위해 기획된 무대로, 그동안 합창음악의 거장 이상길 지휘자를 시작으로 이수은, 임창은 지휘자가 부산시립합창단과 호흡을 맞춘 바 있다.

특유의 열정과 창의적인 해석으로 호평받고 있는 지휘자 손동현은 부산대학교 음악학과를 졸업하고 도미, Youngstown State University 합창지휘 석사, University of Kansas 합창지휘 박사과정을 졸업했다. 미국 Ottawa University에서 합창지휘 교수로 재직하다 2017년 귀국, 국립합창단 객원부지휘자로 한국무대에 데뷔한 손동현은 현재 (사)대한노인회 해인합창단 상임지휘자, 부산장로성가단 상임지휘자, 부산YWCA여성합창단 지휘자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고신대학교 교회음악대

학원 합창지휘과 겸임교수, 서울대학교, 추계예술대학교 강사로 후진양성에도 힘쓰고 있다.

이번 무대에서는 인천시립합창단 상임 작곡가로 있는 조혜영의 창작곡 ‘애가’를 시작으로 ‘향수(鄉愁, Nostalgia)’를 테마로 한 다양한 창작곡으로 관객을 만난다. ‘애가’는 지난 2016년 작곡한 박영근 교수의 ‘6인의 연주자를 위한 애가’의 가사를 바탕으로 새롭게 창작된 합창곡으로, 남북 분단 후 바다를 통해 월남하던 북한 사람들이 해안 경비대의 표적이 되지 않기 위해 우는 아기를 바다에 수장시켜야 했던 비극적 이야기를 담고 있다. 특히 이번 무대에서는 현악기 2대를 위한 곡으로 재편하여 부산시립청소년 교향악단 단원의 바이올린과 첼로 연주로 첫 선을 보인다.

이밖에 원주시립합창단 지휘자 정남규가 작곡한 세련되면서도 현대적인 한국 합창곡인 ‘그리움’, ‘등대’를 비롯해 Ola Gjeilo, Michael G. Martin, Joseph M. Martin, Eric Whitacre, Marcus Leite, Jake Runestad 등 현대 작곡가들의 다양한 곡을 통해 가을의 쓸쓸함과 낭만을 관객들에게 전한다.

일 시 9월 21일 목요일 오후 7:30 **장 소**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입장료 전석 1만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문의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부산시립교향악단 제603회 정기연주회 부산시향의 차이콥스키



지휘 백승현



피아노 세르게이 타라소프

◆ **깊어가는 가을, 부산시립교향악단이 러시아 낭만주의 음악을 감상할 수 있는 특별한 무대를 마련한다.**

부산시립교향악단 부지휘자이자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수석 지휘자로 있는 백승현이 지휘하고 전 세계 청중들을 매료시킨 피아니스트 세르게이 타라소프가 협연하는 이번 무대에서는 러시아의 위대한 작곡가이자 러시아 클래식 음악의 거장으로 평가받는 차이콥스키의 작품세계로 음악여행을 떠난다.

첫 무대에서는 러시아 음악의 특징을 응축해 놓은 듯한 낭만주의 음악의 대표적인 작품인 차이콥스키 '피아노 협주곡 제1번'을 들려준다. 피아노 협주곡 중에서도 가장 인상적인 서주를 가진 이 곡은 곡의 서주에 카덴차를 배치시켜 청중을 압도하는데, 이에 반하여 연주자로서는 누구나 도전할 수 있지만 완성하기에 까다로운 협주곡이다. 보통 이러한 이유로 국제콩쿠르 결선에서 이 곡이 자주 연주되는데, 특히 4년에 한 번씩 모스크바에서 열리는 차이콥스키 국제콩쿠르에서 그의 피아노 협주곡 제1번이 지정곡으로 나오는 이유는 그만큼 대범함과 파워풀한 연주를 보여줄 피아니스트를 가려내는 데 최적의 협주곡이기 때문이다.

이번 무대에서는 뛰어난 기교와 함께 피아노와 깊은 교감을 나누

는 피아니스트 세르게이 타라소프의 협연으로 들려준다. 세르게이 타라소프는 시드니 피아노 국제콩쿠르(1위), 프라하의 봄 국제콩쿠르(1위), 몬테카를로 국제콩쿠르(1위), 스페인 국제콩쿠르(1위), 부조니 국제콩쿠르(2위), 아르투르 루빈스타인 국제콩쿠르(2위), 차이콥스키 국제콩쿠르(4위) 등 세계 유수의 국제콩쿠르를 석권하며 세계가 인정하는 연주자로서의 성공적인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매년 러시아를 비롯하여 독일, 프랑스, 스위스, 크로아티아, 러시아, 이탈리아, 일본 등 전 세계의 음악축제에 초청받아 연주하고 있으며 러시아 국립 교향악단, 모스크바 필하모닉 소사이어티, 상트페테르부르크 심포니, 도쿄 메트로폴리탄, 시드니 심포니, 이스라엘 필하모닉 관현악단 등 수많은 세계적 오케스트라들과 협연 무대를 가져오고 있다. 타라소프는 현재 계명대학교 교수로 있으며 후학 양성에도 힘쓰고 있다.

이어지는 곡은 차이콥스키의 후기 교향곡 중에서도 러시아적 색채가 가장 짙은 작품인 '교향곡 제4번'을 들려준다. 이 작품은 불행한 결혼생활로 혼란스럽고 고통스러운 시기에 작곡되어 그의 복잡한 감정과 철학, 자전적인 모습이 강하게 드러나면서 '차이콥스키의 운명교향곡'이라고도 불린다.

일 시 9월 22일 금요일 오후 7:30 **장 소** 부산시민회관 대극장

입장료 R석 2만원, S석 1만5천원, A석 1만원, B석 5천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의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ARS 1번)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뮤지컬 파리넬리



◆ 7년 만에 돌아온 국내 최초 오페레타 뮤지컬 '파리넬리'가 부산을 처음 찾는다.

우리에게 영화로도 잘 알려진 '파리넬리'는 18세기 유럽을 뒤흔 들었던 최고의 오페라 가수 '카를로 브로스키'의 예명으로, 가혹한 운명 앞에서 자신의 이름을 버려야 했던 한 남자의 슬프고도 아름다운 이야기를 담은 작품이다. 중세 유럽 합창단에서는 여성이 합창 단원이 되는 것을 부정하게 여겼기에 교회음악이나 오페라에서 여성의 역할을 소화하기 위한 카스트라토(남성 소프라노)의 활약이 두드러졌다. 12세가 되던 해 거세당한 뒤 카스트라토가 된 파리넬리는 수만 명의 카스트라토 가운데에서도 훌륭한 외모와 아름답고 힘 있는 목소리, 풍부한 기교와 완벽한 감성 표현으로 당시 유럽인들의 많은 사랑을 받았다. 이번 작품은 전설적인 카스트라토 파리넬리의 화려한 삶과 그 이면에 감춰진 슬픈 운명을 그린 작품으로, 천부적인 재능과 노력으로 전 유럽을 흔들었던 그가 냉정한 오페라 무대와 누구도 사랑할 수 없는 현실 속에서 갈등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다.

뮤지컬 '파리넬리'는 2014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창작뮤지컬 우수작품 제작지원 선정 이후 오페레타 형식을 차용한 신선하고 웅

장한 뮤지컬 무대로, 2015년 제9회 더 뮤지컬 어워즈에서 '올해의 창작뮤지컬상', '신인남우상', '음악감독상' 등 3관왕을 달성하며 작품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울게 하소서(Lascia Ch'io Piagna)', '사라방드(Sarabande)' 등 영혼을 울리는 헨델의 아리아를 주옥같은 멜로디로 재편곡한 뮤지컬 넘버와 20여 명의 배우, 16인조 오케스트라가 펼치는 환상적인 무대는 관객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을 예정이다. 더불어 바로크 시대의 대표 명곡들이 무대 위에서 어떻게 관객들에게 감동을 선사할지, 평소 헨델의 음악을 사랑하는 오페라 마니아라면 새로운 재미를 느낄 수 있다.

오랜만에 다시 돌아온 뮤지컬 '파리넬리'는 보다 탄탄해진 스토리와 풍성한 음악, 완벽한 무대로 관객과 만난다. 여기에 이번 시즌부터 새롭게 합류한 배우들과 초연부터 함께한 기존배우들이 함께 어우러져 관객의 재미를 더해준다. 천상의 목소리를 가진 '파리넬리'는 국내 최초 독일에서 카운터테너 최고 연주자 과정을 수료한 최고의 카운터테너 루이스 초미와 첫 대극장 주연 데뷔의 신예 석재승이 맡아 감동의 무대를 선보인다. 파리넬리의 형 '리카르도'는 뮤지컬 '라흐헤스트'에서 연기력을 인정받은 이준혁, 파리넬리의 친구이자 연인인 남장여자 카스트라토 '안젤로' 역에는 배우 박소연과 여은이 함께 한다.

일 시 9월 23일-24일 토-일요일 오후 2:00, 6:00 **장 소**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입장료 R석 8만8천원, S석 7만7천원, A석 6만6천원(중학생 이상 관람,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10% 할인)

문의 (주)월드쇼마켓 1566-5490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월드 콩쿠르 우승자 시리즈 IV 선우예권 피아노 리사이틀



◆ 2017년 북미 최고 권위의 반 클라이번 국제 콩쿠르에서 한국인 최초로 우승을 차지한 피아니스트 선우예권이 '월드 콩쿠르 우승자 시리즈' 마지막 주인공으로 무대에 선다.

(재)부산문화회관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 다시 마련한 '월드 콩쿠르 우승자 시리즈'는 월드 콩쿠르를 석권한 국내외 아티스트들을 초청, 그들의 수준 높은 연주와 더불어 세계 클래식 최선 흐름을 만날 수 있는 무대로, 특히 세계가 인정한 차세대 연주자들의 완벽한 테크닉과 화려한 연주를 감상할 수 있어 음악애호가들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뛰어난 연주실력은 물론, 한결같은 겸손한 태도로 다양한 연령층의 팬들을 사로잡고 있는 선우예권은 반 클라이번 국제 콩쿠르 우승에 앞서 2015년 인터내셔널 저먼 피아노 어워드, 2014년 방동 프 라이즈(베르비에 콩쿠르)에서 한국인 최초로 1위 수상하여 우리 음악계를 놀라게 한 바 있으며, 2013년 샌다이 음악 콩쿠르 1위, 2012년 윌리엄 카펠 국제 피아노 콩쿠르 1위, 플로리다 국제 피아노 콩쿠르 1위 등 무려 8회에 달하는 국제 콩쿠르 입상 경력으로 한국인 피아니스트 최다 국제 콩쿠르 우승 기록을 가지고 있다.

2017년 반 클라이번 우승 2주만에 데카 골드에서 앨범 '클라이

번 골드 2017'을 출시하여 빌보드 클래식앨범차트 1위에 올랐으며, 2020년 11월에는 데카 레이블에서 첫 스튜디오 앨범 '모차르트'를 발매했다.

이제는 콩쿠르를 넘어 시대를 대표하는 아티스트로 자리매김한 선우예권은 이번 무대가 3년만에 데카 레이블에서 제작한 두 번째 스튜디오 앨범 '라흐마니노프, 리플렉션'의 발매 기념무대이다. 이번 무대에서는 선우예권 스스로가 그와 인생을 동행하는 작곡가라 말한 라흐마니노프가 남긴 단 두 개의 변주곡인 '코렐리 주제에 의한 변주곡'과 '쇼팽 주제에 의한 변주곡'을 들려준다. 또한, 라흐마니노프의 곡으로 채워진 2부 무대에 앞서 1부에서는 비슷한 연관성과 무게감을 지닌 바흐의 작품을 들려준다. 바흐의 '바이올린 파르티타 2번'의 유명한 샤콘느 주제를 차용한 브람스 편곡 버전의 '왼손을 위한 샤콘느 라단조'는 화려한 부조니 편곡 버전보다 바흐의 오리지널리티를 더 나타내고 있으며, '건반을 위한 파르티타 2번 다단조'는 바흐의 이론적 완벽함뿐 아니라 멜로디한 부분까지 드러낸다.

리사이틀로 2년 만에 선보이는 선우예권의 이번 무대는 현 시대를 대표하는 피아니스트이자 아티스트로 향해가는 선우예권의 음악을 가장 가까이에서 만나볼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이 될 것이다.

일 시 10월 6일 금요일 오후 7:30 장 소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입장료 R석 6만원, S석 4만원, A석 2만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문 의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넉넉한 잔치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예술감독 이동훈 취임연주회

◆ 이정호 부산대학교 한국음악학과 교수

지난 7월 27일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에서는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제220회 정기연주회 및 이동훈 신임 예술감독의 취임연주회가 열렸다. 특히 이번 공연은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기원하는 의미도 담아 공연 타이틀을 ‘新, 念願(신, 염원)’으로 정하여, 새롭게 시작하는 이동훈 예술감독의 힘찬 의지와 소망을 엿볼 수 있었다.

공연 프로그램은 총 5순서로 그 면면을 살펴보면 다채로움 그 자체이다. 먼저, 국악관현악을 위한 ‘벚노래’로 이동훈 호의 힘찬 향해가 시작되고, 그다음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부수석 오상훈의 단원 협연 무대, 멋진 쇼맨십을 갖춘 자타공인 재즈색

소폰의 거장 이정식, 그리고 우아함과 고결함의 상징 김일륜 중앙대 교수의 가야금을 위한 노래, 마지막으로 말이 필요 없는 장사익의 애절하고도 시원시원한 노래가 국악관현악과 함께 하며 저마다의 에너지를 발산하였다.

첫 곡, 박범훈 작곡의 국악관현악을 위한 ‘벚노래’는 국악을 어느 정도 아는 이라면 누구나 다 아는 박범훈의 국악관현악 명곡 중의 명곡이다. 국악계에서 큰 영향력을 가진 박범훈의 작품들은 긴 시간 동안 국악관현악의 발전을 이끌었다. 피리연주가, 작곡가, 지휘자로 활동해온 그는 많은 후배국악인들에게 예술가로서 가야 할 여러 방향들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이 작품을 취임연주회 첫 곡으로 선택한 이동훈 신임 예술감독이 앞으로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과 함께 나아갈 방향성을 제시하고 이끌며 큰 바다로 나아감을 의미하는 듯하다. 70여 명 단원의 선장이 되어 함께 벚노래를 부르며 힘찬 미래를 향해 향해할 것이다.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의 연주는 이곡에서 보다 세련되고 정교한 국악관현악의 사운드를 만들어내었다.

두 번째 무대는 이정호 작곡의 거문고협주곡 ‘숨’이다. ‘숨’은 곧 생명력을 뜻한다. 숨을 쉰다는 것, 매 순간 느끼진 못하지만 없어서 안될 절대적인 것이다. 살아있음을 의미하고, 살아있기에 이 삶 속에서 무엇이든 할 수 있다. 이 곡에서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은 생명력이 넘치는 표현을 하였고, 협연자로 나선 오상훈 단원도 묵직함 속에 순백함을 보이며 많은 관객들에게 자





신의 연주를 보여주었다. 음악이란 공감인 것인데, 이곡의 작곡가인 필자를 포함한 모든 관객들의 공감과 응원을 받으며 아름답게 곡을 마무리하였다. 그가 보여준 순수는 태초의 생명력과 닮지 않았을까? 앞으로의 삶 속에서도 무언가를 할 그에게 아낌없는 응원과 박수를 보낸다.

세 번째는 이동훈 예술감독이 편곡한 재즈 색소폰과 국악관현악을 위한 협주곡 '메나리토리'와 'Autumn Leaves' 두 곡이 연주되었다. 메나리토리는 간단히 말해 경상도와 강원도 지방에서 주로 불리던 전통 음계를 뜻하는데, 국악기가 아닌 색소폰의 음색으로 듣는 메나리토리는 새로웠다. 이어서 연주한 'Autumn Leaves'는 재즈계에선 너무나도 유명하고 익숙한 음악이지만, 이번엔 반대로 국악관현악의 반주 음색이 새로웠다. 또한 그 위에 얹어진 이정식의 색소폰은 그야말로 날아다녔다. 색소폰의 넓은 음역을 넘나들며 자유롭고도 화려한 연주로 멋진 음악을 만들어내었고 관객들은 연주가 끝난 뒤 큰 박수로 화답하였다.

이어서 네 번째 무대는 김일륜의 가야금과 노래로 박범훈 작곡의 25현 가야금협주곡 '가야송'이 연주되었다. '가야금의 노래(song)'를 의미하는 '가야송'은 앞서 언급한 박범훈의 명곡 중 한 곡이며, 김일륜은 이 작품과 오랜 시간 함께 해오며 '가야송' 그 자체가 되었다. 이번에도 가히 명불허전으로 그 명성에 걸맞은 고품격의 무대를 보여주었다. 김일륜은 연주와 노래 뿐만 아니라 그녀의 모습과 말까지도 우아한 이미지가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그 속에서의 정(靜)과 동(動), 고요하면서 폭풍

이 있고, 깊은 울림 속에 정교함이 있다. 이번 협연에서도 어김없이 그 모습들을 보여주었기에 이 곡이 연주되는 내내 모든 관객들의 눈과 귀는 그녀에게 사로잡혔다. 공간은 큰 울림으로 가득 채워졌고 무대는 고상(高尚)함으로 눈부시게 빛났다. 말 그대로 예술적이었다.

마지막 순서는 장사익의 소리로 '짚레꽃', '꽃구경', '나 그대에게 모두 드리리'를 들려주었다. 장사익의 목소리는 인간의 내면까지 깊게 박히는 영혼의 목소리라 할만하다. 들을 때마다 매번 짜릿한 느낌이 드는 건 그러한 이유이지 않을까? 그래서인지 그의 노래가 끝나자마자 앙코르 요청이 쏟아졌고, 이에 그는 화답하듯 '아리랑'을 재즈색소폰 이정식과 국악관현악단과 함께 꾸미며 한여름밤의 열기보다 더 뜨거운 무대로 공연이 마무리되었다.

이렇듯 여름의 한가운데서도 객석을 가득 채운 관객들에게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과 이동훈 신임 예술감독은 다채로운 레퍼토리 구성으로 멋지게 보답하였다. 그리고 첫 시작의 의미를 밝고 희망차게 그리고 풍성하게 보여준 이동훈 신임 예술감독은 그동안 여러 악단들을 거치며 쌓아온 뛰어난 능력과 폭넓은 경험을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에서 여과 없이 그대로 보여줄 것이다. 단원들도 그에게 거는 기대가 아주 크다. 또한 믿고 있다. 저 넓은 바다를 누비며 자유롭고 다양한 음악들을 많은 이에게 들려줄 것을, 그리고 그것을 보여줄 준비가 된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을 늘 응원한다.

부산문화회관

(재)부산문화회관 기획전
상상을 찍는 작가 에릭 요한슨 사진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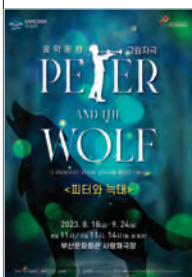
일 시 | 6월 27일(화)-10월 8일(일) **전시실**
 입장료 | 일반(만 19세 이상) 1만8천원
 청소년(중·고등학생) 1만5천원
 어린이(36개월~초등학생) 1만2천원
 문 의 | Hteam 070-7008-8905



스웨덴을 대표하는 초현실주의 사진작가, 에릭 요한슨(Erik Johansson) 사진전.
 여타 초현실주의 작가의 작품처럼 단순한 디지털 기반의 합성 사진이 아닌, 작품의 모든 요소를 직접 촬영함으로써 현실에서는 불가능한 세계를 사진 속에 가능한 세계로 담아내고 있는 요한슨은 특히 상충된 개념의 이미지를 통해 현실 세계를 풍자하고 해학적으로 표현함으로써 관객들에게 신선한 문화적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특히 이번 부산 전시에서는 한국에서 최초로 신작 3점이 전시되며, 유명 도슨트의 해설프로그램도 진행된다.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음악동화 그림자극 피터와 늑대

일 시 | 8월 18일(금)-9월 24일(일)
 주말 오전 11:00, 오후 2:00(평일 단체 관람 시 시간 상이) **사랑채극장**
 입장료 | 전석 2만원(36개월 이상 관람,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50% 할인)
 문 의 |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ARS 1번)



어린이들이 클래식과 친해질 수 있도록 기획된 음악동화 그림자극 '피터와 늑대'.
 한국 최초 그림자극단인 극단 영의 '피터와 늑대'는 어린이들을 위한 대표적인 입문용 클래식 작품인 프로코피예프의 '피터와 늑대'를 그림자극으로 풀어낸 작품이다. 러시아 작곡가 프로코피예프가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기 위해 작곡한 피터와 늑대는 여러 등장인물을 각기 다른 악기로 표현함으로써 어린이들이 클래식 악기의 음색과 특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2023 제14회 부산마루국제음악제
메인콘서트

일 시 | 8월 31일(목) 오후 7:30, 9월 1일(금) 오후 7:30, 2일(토) 오후 5:00, 7일(목) 오후 7:30 **대극장**, 20일(수) 오후 7:30 **중극장**
 문 의 | (사)부산마루국제음악제 조직위원회 516-8293~4, www.bmimf.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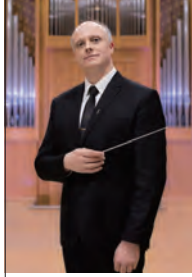
문화도시 부산을 위한 최정상의 클래식 음악축제 '2023 제14회 부산마루국제음악제'.
 부산마루국제음악제를 대표하는 메인콘서트는 8월 31일 개막콘서트를 시작으로 모두 5차례 펼쳐진다.
메인콘서트 I 개막콘서트
8월 31일(목) 오후 7:30 대극장
 지휘자 그리고르 팔리카로프가 지휘하는 BMIMF 페스티벌 오케스트라와 러시아 출신의 피아니스트 소피아 바체록 협연으로 열리는 개막콘서트.
 ·입장료/VIP 3만원, R석 2만원, S석 1만원

메인콘서트 II 콘체르토 컴피티션 갈라콘서트
9월 1일(금) 오후 7:30 대극장



예선을 걸쳐 선발된 본선 진출자들이 경연을 펼치는 콘체르토 컴피티션 본선무대로, 황예빈(바이올린), 임효린(오보에), 정윤제(바이올린), 박지수(트럼본), 안려홍(피아노), 박지영(피리), 크레시다 샤프(소프라노), 윤유리(비올라), 윤기훈(피아노)이 지휘자 최영선이 이끄는 밀레니엄심포니오케스트라와 협연무대를 갖는다.
 ·입장료/전석 1만원

메인콘서트 III
9월 2일(토) 오후 5:00 대극장



지휘자 그리고르 팔리카로프가 지휘하는 중국 난징 장쑤 심포니오케스트라의 연주로 펼쳐지는 메인콘서트 세 번째 무대.
 지휘자 그리고르 팔리카로프는 2000년 불가리아 소피아 국립 오페라 발레단의 지휘자로 임명된 후 약 20년간 수석지휘자로 활동했으며, 현재 판초 블라디게로프 음악원 전임교수이자 2005

년부터 파자르지크 심포니 오케스트라 예술 총감독을 맡고 있다.
 이날 무대에서는 독일, 스위스, 네덜란드, 벨기에, 폴란드 등 세계 각지에서 괄목할 연주 활동을 펼치고 있는 피아노 듀오 신왕&플로리안 골톤의 협연이 펼쳐진다.

프로그램

엘가/현을 위한 세레나데 마단조 작품 20
 모차르트/두 대의 피아노를 위한 협주곡 KV. 365
 차이콥스키/현을 위한 세레나데 다장조 작품 48
 ·입장료/전석 1만원

메인콘서트 IV 부산시립교향악단 제602회 정기 연주회 '네 개의 작은 관현악단'
9월 7일(목) 오후 7:30 대극장



예술감독 최수열이 지휘하고 바이올리니스트 올리비에 샤를리에의 협연으로 프랑스를 대표하는 네 명의 작곡가, 메시앙의 '미소와 소송', 라벨 '치간', 비제 '카르멘 모음곡'을 들려준다.

특히 이번 무대에서는 자크 티보, 지네트 느비, 크리스티앙 페라스로 이어지는 프랑스 바이올린의 계보를 잇는 바이올리니스트 올리비에 샤를리에가 협연자로 호흡을 맞춘다.
 ·입장료/R석 2만원, S석 1만5천원, A석 1만원 B석 5천원

메인콘서트 V 베토벤 황제와 운명
9월 20일(수) 오후 7:30 중극장



예술감독 서희태가 지휘하고 피아니스트 지에 위안이 협연하는 KNN방송교향악단의 연주로 열리는 메인콘서트 마지막 무대.
 2016년 창단한 KNN방송교향악단은 부산, 경남 지역 클래식 음악의 대중화와 인재 육성에 힘써 왔으며, 다양한 무대를 통해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교향악단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프로그램

베토벤/피아노협주곡 제5번 '황제' 작품 73
 베토벤/교향곡 제5번 '운명' 다단조 작품 67
 ·입장료/R석 3만원, S석 2만원, A석 1만원

부산CBS 소년·소녀합창단 정기 연주회

일 시 | 9월 2일 토요일 오후 5:00 **중극장**
 문 의 | 부산CBS소년·소녀합창단 636-0050



찬양을 통해 복음의 기쁜 소식과 사랑과 희망의 메시지를 온 누리에 전하고 있는 부산CBS소년·소녀합창단 정기연주회.

1999년 창단 후 지난해 재창단한 부산CBS소년·소녀합창단은 올해 3월, 부산CBS와 함께하는

'JOY4U 찬양콘서트'를 통해 새롭게 첫 발을 내딛었다.

음악감독 조은옥이 지휘하는 이번 무대에서는 부산CBS소년·소녀합창단과 부산CBS 소년·소녀실내악단, 부산CBS 콘서트 코러스, 부산CBS 소년·소녀합창단 OB, 그리고 우정출연으로 키즈마하나임 선교합창단들이 출연, 다양한 장르의 음악과 합창단이 함께하는 축제의 장을 펼친다.

제3회 부산의·치대 OB 관현악단 정기연주회

일 시 | 9월 2일 토요일 오후 5:00 **챔버홀**
 문 의 | 부산의·치대관현악단 (246-2877, 010-3873-0167)



부산치·의대 관현악단 출신으로, 바쁜 일상 속에서도 꾸준한 음악활동을 펼치고 있는 부산의·치대 OB 관현악단 정기연주회.

부산치·의대 관현악단은 지난 1973년 부산 의대 실내악 합주단으로 설립

된 후 매년 정기연주회를 통해 꾸준한 활동을 펼쳐왔다.

이번 무대에서는 부산의·치대관현악단 지휘자이자 KNN방송교향악단 부지휘자로 있는 지휘자 박진, 11기 단원 조희영이 지휘하고 15기 단원 이혁진과 13기 단원 이혜진이 바이올린 협연을 맡아 다채로운 무대를 선사한다.

해금·아쟁 연주단 해아연 2023 정기연주회 REMIND...

일 시 | 9월 3일 일요일 오후 5:00 **중극장**
 문 의 | 해금·아쟁 연주단 해아연 010-8991-4148



부산, 경남 유일의 해금·아쟁 연주단인 해아연의 2023년 정기연주회.

올해로 창단 10주년을 맞은 해아연은 그동안 해금과 아쟁의 만남을 인연으로 새로운 시도와 성찰을 거듭하면서 시민들에게 해금과 아쟁을 알리기 위

해 다양한 무대에서 서왔다.

2023년 부산광역시, 부산문화재단의 '부산문화예술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열리는 이번 무대에서는 다양한 창작곡으로 해금과 아쟁의 매력을 전한다.

- 고문/송권준 • 회장/방병원
- 지휘/김경수 • 편곡/공혜영
- 연출/김영준
- 객원연주/조은경, 김경모, 김인균, 강메라, 최정옥

부산작곡가협회 제52회 작품발표회 오케스트라와 함께하는 새로운 시작

일 시 | 9월 5일 화요일 오후 7:30 **중극장**
 입장료 | 초대
 문 의 | 사무국장 권태우 010-7600-4514



1983년 창립 이후 부산 지역의 창작음악 발전을 위해 왕성한 활동을 펼쳐 온 부산작곡가협회 작품발표회.

부산작곡가협회는 현재 부산, 경남지역 작곡가 80여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매년 정기 작품발표회

를 통해 다양한 창작곡을 관객들에게 들려주고 있다.

이번 무대에서는 배성운, 차성은, 권유미, 이주애, 김성덕, 육수근, 전세용, 홍수정, 김수진, 김에진, 조희주, 김성희, 진소양, 김성광, 변희재 등 작곡가 15인이 오케스트라, 실내악, 가곡 등 다양한 장르의 창작곡을 초연한다.

- 지휘/박성운 • 연주/미라펠오케스트라
- 오보에/권성은 • 피아노/배연희, 최민경
- 바리톤/김우주, 유용준 • 소프라노 김유진

알렉세이 레베데프 피아노 리사이틀 발트슈타인, 낭만을 만나다

일 시 | 9월 6일 수요일 오후 7:30 **중극장**
 입장료 | A석 5만원, B석 3만원
 문 의 | 아트뱅크코리아 442-1941



'카리스마 넘치는 건반 위의 대가로 알려진 피아니스트 알렉세이 레베데프 부산 연주회.

세계적 권위의 부조니 국제피아노콩쿠르 2위 및 현대곡 특별상, 비오티 국제음악콩쿠르 1위, 마리 아 카날스 국제음악콩쿠르

2위 및 2개의 특별상, 호세 이투르비 국제피아노콩쿠르 3위 등 다수 콩쿠르에서 상위 입상하며 그의 세대에서 가장 각광받는 예술가로 자리매김한 레베데프는 현재 경성대학교 음악학부 교수로 후진양성에도 힘쓰고 있다.

프로그램

쇼팽/4개의 마주르카 작품 68
 베토벤/피아노 소나타 제21번 작품 53 '발트슈타인'
 리스트/피아노 소나타 나단조 S. 178

소프라노 윤장미 독창회

일 시 | 9월 7일 목요일 오후 7:30 **챔버홀**
 입장료 | 전석 3만원
 문 의 | 무대공감(0507-1330-3001)



소프라노 윤장미가 들려주는 100년의 동요, 그리고 가곡 이야기.

세계 최초 어린이인권선언 100주년을 맞아 그동안 어린이들에게 불리었던 동요와 가곡들로 100년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펼치는 이번 무대에서는

지금까지의 독창회와 다른 컨셉과 무대효과로 한때 어린이였던 관객들과 지금 현재 어린이라는 이름의 관객들과 함께 '엄마앞에서 처음 노래 불렀던 그 기억'으로 음악여행을 떠난다.

- 연출/장병혁
- 편곡 및 멜로디카/강유
- 연주/도담양상블(피아노 손안나, 플루트 조다은, 클라리넷 강철주, 첼로 정혜주)
- 보컬/최호린, 박민주, 이소담, 김효민, 박민경, 정아정, 장소현, 정소이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뮤지컬 이상한 엄마

일 시 | 9월 8일 금요일 오후 2:00, 4:00,
9일-10일 토-일요일 오전 11:00,
오후 2:00, 4:00 **중극장**
입장료 | R석 6만원, S석 4만원(만 24개월 이상
관람,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50% 할인)
문 의 | ㈜스프링브릿지 1533-7857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따뜻한 판타지 뮤지컬 '이상한 엄마'. 아동문학계의 노벨상 '아스트리드 린드그렌(ALMA)'상을 수상한 세계적인 작가 백희나의 따뜻한 위로로 담은 동명의 그림책을 뮤지컬로 제작한 '이상한 엄마'는 원작이 주는 섬세한 감동과 위트를 무대 위에 생생하게 구현하여 부모와 아이 모두의 마음을 사로잡을 예정이다. 특히 원작의 이야기에 섬세한 스토리 구성을 추가해 관객들의 몰입도를 높이고, 중독성 있는 음악과 다양한 무대효과로 관객들의 시선을 사로잡는다.

창단 50주년 기념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체 161회 정기연주회 수석지휘자천경필 취임주 함께 또 같이

일 시 | 9월 9일 토요일 오후 5:00 **대극장**
입장료 | R석 3천원, S석 2천원(만6세 이상 관람)
문 의 |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천경필 신임 수석지휘자의 취임 축하하는 특별한 무대. 특히 올해는 1973년 창단한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이 창단 5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로, 천경필 수석지휘자와 새로운 50주년을 준비하며 긴 역사와 전통을 어울리는 최고의 합창단으로 성장하기 위한 각오를 다진다. 이번 무대에서는 창단 50주년과 수석지휘자 취임 축하하며 합창예술의 근본적 아름다움을 표현할 수 있는 다채로운 무대를 선보인다.

- 출연/강혜정(소프라노), 김성배(테너), 부산대학교 성악 전공자,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단원(타악기 파트)

바리톤 시영민 독창회 사랑과 죽음

일 시 | 9월 12일 화요일 오후 7:30 **챔버홀**
입장료 | 초대
문 의 | 시영민 010-4182-0176



강하고 호소력 있는 목소리를 가진 바리톤 시영민 독창회. 연세대학교 성악과를 실기 수석 졸업하고 독일로 유학, 한스 아이슬러 베를린 국립음대 석사과정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시영민은 귀국 후 창작오페라 '해운대'를 시작으로 그동안 오페라 및 음악극 주역으로, 오라토리오, 레퀴엠, 미사곡 독창자로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다. 시영민은 현재 연세대학교, 동서대학교에 출강하며 후학 양성에도 열정을 쏟고 있다. 이번 무대에서는 베토벤, 라벨, 슈트라우스, 슈베르트, 말러, 베르디 등 '사랑과 죽음'을 테마로 한 다채로운 곡을 들려준다.

- 피아노/황유진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제22회 정기연주회 가을 랩소디

일 시 | 9월 13일 수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 R석(1층) 2만원, S석(2층) 1만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문 의 |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최근 취임연주회를 통해 많은 박수를 받았던 예술감독 이동훈이 지휘하는 이번 무대에서는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해금 수석 윤해승, 상송가수 조엘, 김해시립가야금연주단이 출연, 가을의 서정을 느낄 수 있는 우리 음악으로 가을밤의 정취를 선사한다.

프로그램

조다운/국악관현악 '만추(Late Autumn)'
이건용/해금 협주곡 '가을을 위한 도드리'
박위철(편곡)/상송과 국악관현악 '사랑의 기쁨-사랑의 찬가-빠담빠담'
이정호/25현가야금 협주곡 '밤하늘에 기대어'
황호준/국악관현악 '꿈꾸는 나무'

합창! 오페라를 품다

일 시 | 9월 13일 수요일 오후 7:30 **중극장**
입장료 | 무료
문 의 | 센텀합창단 010-6346-6058



지난 2007년 창단 후 꾸준한 활동을 펼쳐온 아마추어 합창단인 센텀합창단의 무대. 2016년 창단 10주년 기념무대로 오페라 '카발레리아 루스티카나'를 무대에 올린 후 그동안 오페라 '라보엠', '사랑의 묘약', '라 트라비아타' 등 꾸준히 오페라 합창음악을 선보여온 센텀합창단은 이번 무대에서 합창, 중창, 독창 등 다양한 구성과 연기를 가미한 오페라 하이라이트 무대를 2부 무대에서 선보인다. 1부 무대에서는 기억, 설렘 그리고 사랑, 위로, 무반주, 어울림이라는 테마로 가곡과 가요, 민요를 합창음악으로 들려준다.

- 지휘/이철성

2023 제14회 부산마루국제음악제 스페셜 콘서트 퀸 엘리자베스 국제콩쿠르 위너스 콘서트 in 부산

일 시 | 9월 14일 목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 R석 5만원, S석 4만원, A석 3만원
문 의 | (사)부산마루국제음악제 조직위원회
516-8293~4, www.bmimf.co.kr



올해 6월, 벨기에 브뤼셀에서 폐막한 2023 퀸 엘리자베스 국제콩쿠르 성악부문에서 1위 입상한 바리톤 김태환을 만날 수 있는 특별한 무대. 2023 제14회 부산마루국제음악제 스페셜 콘서트로 열리는 이번 무대에서는 바리톤 김태환을 비롯해 2위 입상자 소프라노 콘트랄로 재스민 화이트, 3위 입상자 소프라노 율리아 무치첸토가 함께 출연, 지휘자 서희태가 지휘하는 KNN방송교향악단 연주로 부산 관객과 첫 만남을 갖는다. 이번 무대에서는 베르디, 들리브, 로시니, 콘론골드, 푸치니 등 다채로운 오페라의 향연이 펼쳐진다.

작곡그룹 An-ti Stimmung 제23회 작품 발표회 위기에서 평화로

일 시 | 9월 15일 금요일 오후 7:30 **중극장**
 입장료 | 초대
 문 의 | 작곡그룹 An-ti Stimmung
 010-8212-0222, 010-4568-2687



매년 새로운 주제의 창작곡을 통해 현대음악과 청중 사이의 소통을 시도해 온 작곡그룹 안티스티움(An-ti Stimmung)의 23번째 창작곡 발표회.

지난 1999년 12월 창립한 작곡그룹 An-ti Stimmung은 조희주 부

산대 명예교수를 대표로 정수란(부산대 교수), 진영민(경북대 교수), 박기섭(대구교육대 교수), 진소영(동아대 부교수), 장지영(한세대 부교수), 주창근(부산전자음악협회 회장), 황선영(부산시립교향악단 단원), 김유리(대구국제현대음악제 상임교문) 등 현존하는 최고의 작곡가들로 구성된 단체로, 이번 무대에서는 '위기에서 평화로'라는 주제로, 현대무용단 '자유'와 함께 영상, 실내악, 전자음향 등 다양한 구성의 무대를 선사한다.

창단30주년 기념 부산체임버오케스트라 제26회 정기연주회 Da Capo '다시 처음으로'

일 시 | 9월 16일 토요일 오후 5:00 **중극장**
 입장료 | 무료
 문 의 | 예술기획 010-4909-7444



지난 1993년 경성대학교 임병원 교수를 주축으로 창단한 후 그동안 다양한 무대에서 관객과 만나온 부산체임버오케스트라가 창단 30주년을 맞아 마련한 특별한 무대.

이번 무대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새로운 30주년을 시작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친숙한 모차르트, 엘가, 차이콥스키의 세레나데를 들려준다.

프로그램

모차르트/세레나데 제13번 사장조, K.525 '아이네 클라이네 나흐트무지크'
 엘가/현을 위한 세레나데 마단조 작품 20
 차이콥스키/현을 위한 세레나데 다장조 작품 48

윤주연 귀국 첼로 독주회

일 시 | 9월 16일 토요일 오후 5:00 **챔버홀**
 입장료 | 전석 1만원
 문 의 | 윤주연 010-3570-7436



작품에 대한 섬세한 해석과 따뜻한 음색으로 큰 울림을 주는 차세대 첼리스트 윤주연 귀국 독주회.

윤주연은 부산대학교 음악학과를 졸업하고 도독, 뒤셀도르프 로버트 슈만 국립음대 석사 및 최고연

주자과정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귀국 전 독일에서 가진 무대를 통해 다채로운 음색을 가진 깊이 있는 연주자라는 호평을 받았다.

부산대학교 오케스트라 수석, 부산시립청소년 교향악단 단원, 부산시립교향악단 비상임단원, BSO 단원 등 오케스트라 연주자로서도 활발한 활동을 펼치며 윤주연은 독일 Virtus Quartet 일원으로 독일과 한국을 오가며 많은 관객들에게 감동을 전했으며, 현재 앙상블 원인 챔버의 일원으로 다양한 무대에 서오고 있다.

• 피아노/송준섭 • 콘서트가이드/고민지

부산신포니에타제103회 정기연주회 부산신포니에타&호른리스트 김홍박

일 시 | 9월 17일 일요일 오후 6:00 **중극장**
 입장료 | 전석 3만원
 문 의 | 부산신포니에타 010-8519-0448



김영희 음악감독을 중심으로 열정적이고 뛰어난 앙상블을 선보이고 있는 부산의 대표적인 실내악단인 부산신포니에타 정기연주회.

지난 1986년 창단한 부산신포니에타는 현존하는 부산의 실내악단 중

가장 유구한 역사를 지닌 실내악단으로, 매년 새로운 구성의 정기연주회로 관객과 만났다.

이번 103번째 정기연주회에서는 오솔로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중진수석을 역임하고 현재 서울대학교 교수로 재직중인 호른리스트 김홍박이 모차르트 '호른 콘체르토 제3번'을 들려주며, 2부에서는 프랑수아 툴루즈 카피톨 국립오케스트라 제1악장인 김재원이 객원악장으로 참여, 드 보르작의 '로망스'를 협연한다.

제56회 인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따뜻한 사랑..그림에도 불구하고..

일 시 | 9월 19일 화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 R석 2만원, S석 1만5천원
 (청소년, 단체 10인 이상 50%, 온라인 전화예매시 30% 할인)
 문 의 | (사)인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
 626-8081, 010-8918-1535



1996년에 창단된 법인에 속한 문화향악단으로 부산의 대표적인 민간오케스트라로 자리매김한 인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대학교수진과 여러 오케스트라 단원들 중 유능하고 열정있는 단원들로 구성된 인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는 그동안 다수 정기연주회를 비롯해 문화사회지역 찾아가는 음악회, 오페라 연주, 자선음악회, 시민을 위한 순회 야외음악회 등 전문교향악단으로 왕성한 활동을 펼쳐왔다.

• 음악감독, 지휘/윤상운(동아대학교 교수)

이명진 첼로 리사이틀

일 시 | 9월 20일 수요일 오후 7:30 **챔버홀**
 입장료 | 전석 2만원(학생 50% 할인)
 문 의 | 아트뱅크코리아 442-1941



세계적인 첼리스트 나탈리아 구트만이 극찬한 우리나라 최고의 첼리스트 중 한명인 첼리스트 이명진 독주회.

독일 풀크방 콩쿠르에서 16년만에 첼로 부문 대상을 거머쥐는 기록을 남기고, 바르셀로나 카탈스 국

제콩쿠르에서도 수상한 바 있는 이명진은 부산 음악협회에서 수여하는 '부산음악상'을 수상했으며, 현재 동아대학교 교수로 후진양성에도 힘쓰고 있다.

특히 이번 무대에서는 독일 프랑크푸르트 국립대학교 교수로 있으며, 2009년부터 매년 호흡을 맞추는 피아니스트 올리버 케른이 함께 한다.

프로그램

베토벤/소나타 제4번 작품 102
 슈만/아디지오와 알레그로 작품 70
 브람스/소나타 제1번 마단조 작품 38

부산시립합창단 특별연주회 및 유명지휘자 초청연주회 **그리움 그 기억속에서**

일 시 | 9월 21일 목요일 오후 7:30 **중극장**
입장료 | 전석 1만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문의 |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가을을 노래하는 서정적인 합창음악으로 만나는 부산시립합창단 특별연주회. 특히 이번 무대는 부산시립합창단이 국내·외 합창음악계를 이끌고 있는 지휘자를 부산 관객들에게 소개하는 '유명지휘자 초청연주회'로, 성남시립합창단 예술감독 겸 상임지휘자를 역임한 손동현 지휘자가 무대에 선다. 특유의 열정과 창의적인 해석으로 호평받고 있는 지휘자 손동현은 부산대학교를 졸업하고 도미, Youngstown State University 합창지휘 석사, University of Kansas 합창지휘 박사과정을 졸업하고 현재 (사)대한노인회 해인합창단 상임지휘자, 부산장로성가단 상임지휘자, 부산YWCA여성합창단 지휘자로 활동하고 있다.

무지카비바 챔버앙상블 제34회 정기연주회 **Song of Strings with 김호근의 K-Art Pop**

일 시 | 9월 21일 목요일 오후 7:30 **챔버홀**
입장료 | 일반 1만원, 학생 5천원
문의 | 무지카비바 챔버앙상블 010-2529-3970



바이올리니스트 박경희 교수를 중심으로 파우폴하면서도 따뜻하고 호소력 있는 연주를 펼쳐온 무지카비바 챔버앙상블 정기연주회. 이번 무대는 성악가와와의 콜라보 연주를 통해 인생의 철학적 의미들을 함축하여 서정적 가사로 노래하는 아름다운 우리나라 가곡을 알리고자 마련한 무대로, 특히 아트팝(Art-Pop)이라는 작품의 예술성(Art)과 대중성(Pop)을 동시에 추구하는 예술철학으로, 전통 한국가곡의 예술성과 친근한 대중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김호근 작곡가의 곡을 소개한다.

- 음악감독, 리더/박경희
- 해설, 첼로/전명희
- 테너/양승엽 · 소프라노/왕기현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뮤지컬 파리넬리**

일 시 | 9월 23일-24일 토-일요일 오후 2:00, 6:00 **대극장**
입장료 | R석 8만8천원, S석 7만7천원, A석 6만6천원(중학생 이상 관람,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10% 할인)
문의 | (주)월드쇼마켓 1566-5490



7년 만에 돌아온 국내 최초 오페레타 뮤지컬 '파리넬리'. '파리넬리'는 18세기 유럽을 뒤흔들었던 최고의 오페라 가수 '카를로 브로스카'의 예명으로, 가혹한 운명 앞에서 자신의 이름을 버려야 했던 한 남자의 슬프고도 아름다운 이야기를 담은 작품이다. 2015년 제9회 더 뮤지컬 어워즈에서 '올해의 창작뮤지컬상', '신인남우상', '음악감독상' 등 3관왕을 달성하며 작품성을 인정받았으며, 특히 헨델의 아리아를 주옥같은 멜로디로 재편곡한 뮤지컬 넘버와 16인조 오케스트라가 펼쳐는 환상적인 무대는 관객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는다.

부산클라리넷콰르텟과 함께하는 **오페라 갈라쇼**

일 시 | 9월 23일 토요일 오후 6:00 **챔버홀**
입장료 | 전석 1만원
문의 | Kongnamul 010-3146-8434



국내 최고의 클라리넷 사중주 전문연주단체인 부산클라리넷콰르텟의 23번째 정기연주회. 지난 1996년, 관악 실내악의 대중화와 저변확대를 위해 '엘랑 클라리넷 사중주단'으로 창단, 2001년 본격적인 활동을 위해 지금의 이름으로 변경한 부산클라리넷콰르텟은 지난 27년간 22차례 정기연주회와 300회가 넘는 특별연주회, 초청연주회를 통해 관객과 만나왔다. 이번 무대에서는 글린카 '무슬란과 루드밀라', 모차르트 '마술피리', '후궁으로부터의 도주', 비제 '카르멘', 베르디 '라 트라비아타' 등 오페라 곡을 클라리넷4중주로 편곡하여 들려준다.

- 연주/김태훈(리더), 전선경, 박은정, 장일훈
- 클라리넷 솔로/백동훈

창단 30주년 기념 **오충근&부산심포니 오케스트라 제54회 정기연주회**

일 시 | 9월 26일 화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 VIP석 5만원, R석 3만원, S석 2만원, A석 1만원 (학생 전석 50% 할인)
문의 |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 621-4577



21세기 문화환경 요구에 부합하는 교향악단으로, 관객 우선의 참신한 기획과 다양한 연주로 클래식 팬들에게 다가가고 있는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가 창단 30주년을 맞아 마련한 특별한 무대. 명실공히 한국의 대표적 인 민간오케스트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는 2014년 부산민간오케스트라 최초로 서울 예술의전당 신년음악회를 성황리에 마쳤으며, 2003년과 2004년 문화관광부 주최 전국 순회음악회에 지방교향악단으로서는 유일하게 선정되어 지역문화 창달에도 기여한 바 있다.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를 이끄는 오충근 예술감

독은 '온화한 카리스마의 마에스트로'로, 독일 베를린필하모니홀, 오스트리아 빈 무지크페라인 황금홀, 체코 프라하 스메타나홀 등 세계적 연주홀에 있으며, 베를린심포니오케스트라, 도쿄필하모닉오케스트라,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 등 국내외 우수 오케스트라를 지휘한 바 있다. 오충근은 제48회 난파음악상, 제9회 KNN문화대상(문화예술 부문)을 수상했으며, 현재 국립부경대학교 석좌교수로 있다. 이번 무대에서는 라흐마니노프 탄생 150주년을 맞아 라흐마니노프의 피아노 트리오 제1번 '레엘레지'를 하순봉 작곡가가 오케스트라 연주용으로 편곡한 '라흐마니노프 주제에 의한 교향적 엘레지'와 격동치는 강렬함과 낭만의 멜로디로 사랑받는 라흐마니노프 '교향곡 제2번 작품 27'를 들려준다.

프로그램
 하순봉/라흐마니노프 주제에 의한 교향적 엘레지
 라흐마니노프 교향곡 제2번 작품 27
 · 예술감독, 지휘/오충근
 · 작곡/하순봉 · 해설/황지원



부산시민회관

김지연 오르간 독주회

일 시 | 9월 26일 화요일 오후 7:30 **중극장**
 입장료 | 전석 1만원
 문 의 | 김지연 010-2041-2568



끊임없는 연구와 섬세한 연주로 음악의 감동을 선사하고 있는 오르가니스트 김지연의 해설이 있는 오르간 음악회. 이화여대에서 오르간을 전공한 후 독일과 스위스의 여러 음악대학에서 수학한 김지연은 현재 오르간 연주그룹인 아벤트무직 멤버, 동서학원 대학교회 오르가니스트로 활동하고 있으며 오르간스튜디오 디 아지트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무대에서는 외국의 파이프 오르간 음색을 직접 샘플링하여 만든 가상 음원 시스템인 하우프트베르크 시스템을 갖춘 전자 오르간으로 여러 시대, 여러 지역의 곡들에 맞는 오르간 샘플링을 채택하여 들려준다.

· 해설/오성주

부산시민회관 개관 50주년 기념
최민식과 다큐멘터리 사진전

일 시 | 8월 4일(금)-9월 8일(금) 오전 10:00~
 오후 6:00(입장마감 오후 5:00, 매주
 월요일, 8월 15일 휴관) **전시실 1, 2**
 입장료 | 무료
 문 의 |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부산의 반세기를 사진에 담은 1세대 다큐멘터리 사진작가 최민식과 그의 정신을 잇고 있는 사진치유자 임종진의 작품을 소개하는 특별전. 올해는 최민식 작가가 작고한 지 10주기가 되는 해로, 이번 전시에서는 평생 '인간'에 천착하며 '시대의 그늘과 애환'을 담은 그의 작품세계를 소개한다. 특히 작가가 지난 60여 년 동안 자갈치시장, 광안리해변, 영도골목, 부산역 등지에서 촬영한 각계 각층의 어린이들의 모습을 담은 160점의 작품이 제1전시실에서 전시되며, 제2전시실에서는 최민식 작가의 정신을 잇는 이 시대의 시인가, 임종진 작가의 대표작 60여 점을 선보인다.

부산시민회관 개관 50주년 기념
2023 부산 인터내셔널 뮤직 페스타

일 시 | 9월 1일 금요일 오후 7:00, 2일 토요일
 오후 3:00 **대극장**
 입장료 | R석 8만원, S석 5만원, A석 3만원(부산
 문화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문 의 |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가을의 시작을 알리는 여성 재즈의 향연, 2023 부산 인터내셔널 뮤직 페스타. 부산 인터내셔널 뮤직 페스타는 (재)부산문화회관이 지난해 새롭게 선보인 대중음악 축제의장으로, 첫 날인 9월 1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디바 이은미에 이어 2일에는 '스켓의 여왕' 재즈보컬리스트 말로가 무대에 선다.

·1일(금) 출연/이은미 With 민경인 트리오, 위나&조윤성 트리오, 최은아 쿼텟
 ·2일(토) 출연/말로, 시호&시게키, 이효정밴드

이주는 바이올린 리사이틀

일 시 | 9월 26일 화요일 오후 7:30 **챔버홀**
 입장료 | 무료
 문 의 | 아트뱅크코리아 051-442-1941



부산예고 2학년에 재학 중인 바이올리니스트 이주는 독주회. 이주는 2019년 크리아티보 국제콩쿠르 바이올린 대상, T&B 국제콩쿠르 중등부 3위, 영아티스트 아시아콩쿠르 동상, 2020 글로벌 콩쿠르 중등부 2위, 2020 BMIMF 음악시리즈 음악영재 부분 선정, 2021 HKYPAF 국제음악콩쿠르 1위, 2022 부산음악협회 전국학생음악경연대회 고등부 3등, 2023 글로벌 아티스트 고등부 2등 등 다수 콩쿠르에서 입상하며 그 실력을 인정받았으며, 부산콘서트필하모닉오케스트라, UKO 심포니 오케스트라, BSO 오케스트라, KNN교향악단 등 다수의 오케스트라와 협연했다. 이번 무대에서는 베토벤 소나타 제3번을 비롯해 바흐, 비에니아프스키, 포레의 곡을 들려준다.

· 피아노/강형은

부산시립극단 제75회 정기공연
스타프로젝트-극작가 김문홍

일 시 | 9월 7일(목)-23일(토) 목-금요일
 오후 7:30, 토요일 오후 5:00 **소극장**
 입장료 | 전석 2만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30%, 3작품 예매시 50% 할인)
 문 의 |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부산시립극단이 소극장 연극을 지향하여 기획한 스타프로젝트 2023년 무대. 특히 올해는 부산지역의 대표적인 극작가이자 원로 연극인으로 현재도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김문홍 선생의 작품을 무대에 올린다. 1976년 소설가로 등단한 후 1980년부터 희곡을 쓰기 시작하여 지금까지 여섯 권의 희곡집을 발표한 김문홍 선생은 2014년 '김문홍 희곡상'을 제정하여 현재까지 9회 시상해오고 있다. 김문홍 선생이 그동안 출간한 여섯 권의 희곡집에는 총 39편의 희곡이 수록되어 있으며 이 중 4개

작품을 제외한 35편의 작품은 부산의 여러 극단에 의해 이미 공연된 바 있다. 이번 무대에서는 선생의 초창기 작품인 '안개주의보'(9월 7일~9일)를 시작으로, 미공연작 중 하나인 '사자의 편지'(9월 14일~16일), 그리고 배우와 연기에 집중할 수 있는 '목련꽃 그늘 아래서'(9월 21일~23일) 등 김지용 예술감독이 직접 선정한 세 편의 작품을 소개한다. 작품의 연출은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된 강성우(극단 누리예), 윤준기(극단 트렁크 타이거), 권상우(극단 B급 로터리) 연출가가 '안개주의보', '사자의 편지', '목련꽃 그늘 아래서'의 연출을 차례대로 맡아 자신만의 색깔있는 무대를 선사한다.

9월 7일(목)-9일(토) 안개주의보

- 연출/강성우(극단 누리예)
- 출연/이혁우, 오희경, 채민수, 우성주, 서예은, 양희진, 강원재, 이재찬, 우지현, 최영준

9월 14일(목)-16일(토) 사자의 편지

- 연출/윤준기(극단 트렁크 타이거)
- 출연/이현주, 염지산, 김은옥, 서보기, 이태성, 강승환, 이소희, 박규찬, 김경민, 장성현

9월 21일(목)-23일(토) 목련꽃 그늘 아래서

- 연출/권상우(극단 B급 로터리)
- 출연/황창기, 김은희, 박미서

부산시민화관 개관 50주년·화승 70주년 기념 국립발레단 돈키호테

일 시 | 9월 16일 토요일 오후 5:00, 17일 일요일 오후 2:00(※17일 공연 단체관람)
대극장
입장료 | V석 9만원, R석 7만원, S석 4만원
A석 2만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10% 할인)
문의 |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2023년 국립발레단이 야심차게 선보이는 신작 발레 '돈키호테'. 발레 '돈키호테'는 스페인 극작가 세르반테스의 소설을 모티브로, 1869년 안무가 마리우스 피티파의 오리지널 초연 이후 지금까지 시대를 초월하여 전 세계 관객들의 사랑을 받아온 명작 발레이다. 이번 작품은 국립발레단의 떠오르는 신예 안무가 송정빈의 재안무 버전으로, 젊은 남녀 키트리와 바질의 사랑 이야기가 주를 이루는 원작에 비해 기사 돈키호테의 사랑과 모험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펼친다.

도이치방송오케스트라 WITH 손열음

일 시 | 9월 19일 화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 VIP 16만원, R석 14만원, S석 11만원
A석 8만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10% 할인)
문의 | STUDIO DUZON 02-514-0280~1



독일 서남부 지방을 대표하는 도이치방송오케스트라 내한공연. 특히 이번 무대에서는 뛰어난 통찰력과 한계없는 테크닉, 광범위한 레퍼토리를 바탕으로 국제적인 명성을 쌓아가고 있는 바이올리니스트 손열음이 함께 한다. 도이치방송오케스트라는 지난 2007년 자르브뤼겐방송교향악단(RSO)과 SWR방송교향악단이 합병되어 창단된 오케스트라로, 독일 남서부 지역은 물론 프랑스, 이탈리아, 영국, 스위스 등 매년 80회 넘게 세계 무대에 오르며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부산시립교향악단 제603회 정기연주회 부산시향의 차이콥스키

일 시 | 9월 22일 금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 R석 2만원, S석 1만5천원, A석 1만원, B석 5천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의 |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깊어가는 가을, 부산시립교향악단이 러시아 낭만주의 음악을 감상할 수 있는 특별한 무대. 부산시립교향악단 부지휘자이자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수석지휘자로 있는 백승현이 지휘하고 피아니스트 세르게이 타라소프가 협연하는 이번 무대에서는 러시아의 위대한 작곡가 차이콥스키의 작품세계로 음악여행을 떠난다. 협연자 세르게이 타라소프는 세계 유수의 국제콩쿠르를 석권하며 성공적인 행보를 이어가고 있으며 현재 계명대학교 교수로 후학 양성에도 힘쓰고 있다.

프로그램
차이콥스키/피아노 협주곡 제1번
차이콥스키/교향곡 제4번

히사이시 조 OST 콘서트 : 디오케스트라

일 시 | 9월 24일 일요일 오후 2:00 **대극장**
입장료 | VIP석 8만5천원, R석 7만5천원, S석 6만5천원, A석 4만5천원
문의 | 두남재엔터테인먼트 02-6292-9368



현존하는 영화&애니메이션 음악의 거장 히사이시 조의 작품세계를 만날 수 있는 히사이시 조 OST 콘서트. 히사이시 조는 일본 스튜디오 지브리의 설립자 중 한 명이자 애니메이션 감독인 미야자키 하야오의 작품 대부분에 음악감독으로 참여한 지브리 사운드의 창시자다. 이번 무대에서는 바람계곡의 나우시카, 이웃집 토토로, 기쿠지로의 여름,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 등 그의 대표곡들을 풀 편성 오케스트라의 생생한 라이브 연주로 감상할 수 있다.

- 지휘/최영선 • 바이올린/김주원
- 피아노/정다슬 • 색소폰/조세형
- 연주/밀레니엄심포니오케스트라

2023 제18회 부산국제매직페스티벌 한가위 매직 판타지아

일 시 | 9월 29일 금요일 오후 3:00, 30일 토요일 오후 2:00, 5:00 **소극장**
입장료 | 전석 3만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본인에 한해 40% 할인)
문의 | (주)엔투게더(070-4108-9999)



온가족이 함께하는 추석, 신비하고 환상적인 마술의 세계로 떠나는 한가위 매직판타지아. 이번 무대는 2023년 제18회 부산국제매직페스티벌(BIFM)의 마지막 프로그램이자 추석특집 공연 프로그램으로, 온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신비한 마술, 황홀한 순간들로 관객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선사한다. 특히 100% 한국사람인 인도마술사의 배꼽빠지는 악자지컬 코믹 매직쇼와 마술로 만드는 자연산 해산물 매직쇼, 빛으로 환상을 만들다! 한가위맛이 환상의 LED 불빛나래 쇼, 아찔하고 환상적인 슈퍼맨의 저글링쇼 등 다채로운 공연프로그램으로 특별한 한가위를 선물한다.

어린이뮤지컬 티티체리 - 용의 생일파티를 도와라

일 시 | 9월 30일-10월1일 토요일 오전 11:00, 오후 2:00, 4:00 **대극장**
입장료 | VIP석 5만5천원, R석 4만4천원
문의 | (주)엔투게더(070-4108-9999)



우주악당으로부터 지구를 지키는 티티체리 크루의 모험담을 담은 인기 TV애니메이션을 가족뮤지컬로 제작한 무대. 평범한 여중생으로 보이지만 알고 보면 신비한 능력을 가진 체리와 베리, 그리고 친구들은 용의 생일파티를 도와달라는 연락을 받고 퍼즈니멀 세계로 출동한다. 악당 니노스와 아일은 티티체리 크루를 방해하며 용의 생일파티를 엉망으로 만들 계획을 세우고, 친구들은 관객들과 힘을 모아 사건을 해결해 나간다. 이번 무대는 원작을 기반으로 한 탄탄한 스토리와 화려한 특수효과, 입체적인 무대, 실감나는 영상으로 어린이 관객의 오감을 만족시켜준다.

음악

2023 장애예술 활성화 지원사업
동행 with 앙상블We & 무지카비바 앙상블

일 시 | 9월 1일 금요일 오후 7:30
해운대문화회관 해운홀
입장료 | 초대
문의 | 앙상블We 010-4254-5586



부산과 경남지역 출신의 발달장애 연주자들로 구성된 스트링앙상블 앙상블We의 무대. 지난 2019년 4월 결성된 후 무지카비바 앙상블 음악감독 및 리더인 박경희 예술감독의 지도하에 지속적인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앙상블We는 이번 무대에서 무지카비바 앙상블과 함께 우리 귀에 친숙한 클래식 명곡을 들려준다.

- 예술감독, 리더/박경희
- 해설, 첼로/전명희
- 바이올린/정진경 • 비올라/박주연
- 피아노/최민경
- 단원/이희담(바이올린), 오인제(바이올린), 최우진(바이올린), 진시원(첼로)

아라청소년오케스트라 제6회 정기연주회
Danke!(감사)

일 시 | 9월 3일 일요일 오후 5:00
금정문화회관 은빛샘홀
입장료 | 무료
문의 | 아라청소년오케스트라 010-4554-7777



지난 2015년 1월 창단 후 금정구 지역을 중심으로 크고 작은 봉사연주를 통해 이웃사랑을 실천해오고 있는 아라청소년오케스트라의 여섯 번째 정기 연주회. 팬데믹 기간을 거치며 단원들의 열정과 노력으로 더욱더 단단해진 아라청소년오케스트라는 이번 무대에서 음악감독으로 있는 지휘자 김재영의 지휘로, 감동이 있는 무대를 선사한다.

- 프로그램**
교향곡 제9번 '신세계로부터'(드보르작), 영화 '인생은 아름다워' OST, 대중가요 'I AM'(아이브), 아리랑 환상곡 등 수록
• 음악감독 겸 지휘/김재영

게네랄파우제 9월 공연

일 시 | 9월 1일(금), 8일(금), 15일(금), 19일(화)
오후 8:00, 9일(토), 16일(토), 23일(토)
오후 7:00 게네랄파우제
입장료 | 전석 2만원
문의 | 게네랄파우제 070-4177-3927

클래식부터 재즈 및 크로스오버까지 다양한 장르의 무대를 만날 수 있는 게네랄파우제 9월 무대.

1일(금) 강혜인 퀸텟 'JAZZ ABBA'



재즈와 팝을 중심으로 활기차고 청량한 재즈를 선보이는 강혜인 퀸텟가 아바(ABBA)의 명곡을 그들의 고유한 색깔로 들려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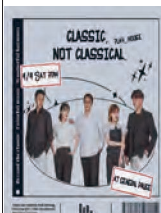
- 프로그램**
Dancing Queen, Super Trouper, Knowing Me, Knowing You, The Name of the Game, Gimmie Gimmie Gimmie, Our Last Summer
• 피아노/강혜인 • 보컬/정세미
• 콘트라베이스/심규환 • 드럼/홍영호

8일(금) 이효정 밴드 'Autumn in jazz'

이효정 밴드만의 색깔로 만나는 대표적인 가을 재즈 명곡을 통해 가을 정취에 취해볼 수 있는 특별한 무대.

- 프로그램**
Autumn leaves, Lover man, Well you needn't, Autumn in new york, Tea for two, Damn your eyes, A night in tunisia
• 보컬/이효정 • 피아노/박지용
• 베이스/박경윤 • 드럼/피오토르 파블락

9일(토) Play_House 'Classic. Not Classical'



집에서 듣는 음악처럼, 즐거움과 편안함으로 가득한 음악적 공간을 관객에게 선물하는 Play_House의 무대. 클래식 장르를 뛰어 넘어 재즈와 스윙, OST 등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들려준다.

- 프로그램**
Fly me to the moon, Can't take my eyes off you, 짐노페디 제1번(에릭 사티, A new satisfaction), Reality
• 바이올린/김수현, 박인성
• 비올라/김지일 • 첼로/김한솔
• 피아노/송준섭

15일(금) 허쉬밴드 'Re:start'

- 심리상담가와 함께 음악, 심리학이론 그리고 관객들의 사연을 함께 모아서 현장에서 완성하는 즉흥무대.
• 피아노/오느린 • 베이스/황대웅

- 드럼/허여정 • 스토리/김선영

16일(토) 최은아 트리오 'autumn is here'



가을의 추억과 함께 떠나는 낭만 있는 재즈 여행.

프로그램
I'll be seeing you, bubbles bangles and beads, only trust your heart, autumn leaves

maybe you'll be there, early autumn

- 보컬/최은아 • 피아노/장세연
- 베이스/신세영

19일(화) Lisa Sung quartet



재즈 편곡으로 감상하는 한국 동요 여행.

Lisa Sung은 미국 John Stites 재즈 어워드 2022를 수상하면서 John Stites 재즈 어워드 후원으로, 한때 식민지였던 인도네시아, 한국, 베트남, 필리핀의 동요를 재즈로 편곡한 특별한 기획공연으로 아시아 투어를 가져오고 있다.

- 피아노/Lisa Sung • 기타/Josh Song
- 베이스/Tom Knific • 드럼/Quincy Davis

22일(금) 홍영호 퀸텟+다히 정규 2집 'I need Caffeine' 앨범발매기념 콘서트



재즈를 기반으로 팝, 라틴 등을 연주하며 사람과 사랑, 일상, 자연을 담아내면서 대중들이 함께 공감하는 음악을 추구해온 홍영호 퀸텟과 보컬리스트 다히의 무대.

우리의 일상이 된 '커피'를 주제로 한 앨범 'I need Caffeine' 발매기념으로 열리는 이번 무대에서는 앨범 수록곡을 통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멜로디와 가사로 대중들의 귀를 즐겁게 한다.

- 보컬/다히 • 피아노/강혜인
- 기타/김경모 • 베이스/황대웅
- 드럼/홍영호

23일(토) 앙상블 참 '가을밤 with Woodwind'



한국에서 거의 연주되지 않는 관악곡을 소개하기 모인 앙상블 참(CHAM)의 무대.

지난 5년간 항상 새로운 곡을 연구해온 앙상블 참은 현재 작곡가 박민음이 합류하면서 앙상블 참을 위해 작곡된 관악곡들도 함께 연주하고 있다.

- 플루트/박은주 • 오보에/문동원
- 클라리넷/조가진 • 바순/이보배
- 작곡 및 해설/박민음

두 번째 JYM Trio 연주회

일 시 | 9월 3일 일요일 오후 3:00
 해운대문화회관 고운홀
 문 의 | JYM Trio 010-7757-4307



클래식기타를 사랑하는 박성용(주주), 윤정이, 황성만(만이)로 구성된 아마추어 클래식기타3중주단 'JYM Trio'의 무대.

지난 2019년 결성된 JYM Trio는 지난해 첫 번째 JYM Trio 연주회를 가진 데 이어 중소기업인 마린

테크인, 우리MEK에서 열린 초청 연주회를 통해 관객과 소통하고 있다.

- 우정출연/클래식기타사랑방4중주
- 특별출연/폴리포니 기타듀오

김성녀의마당놀이 심청이와 춘향이 온다

일 시 | 9월 8일 금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금빛누리홀
 입장료 | R석 3만원, S석 2만원
 문 의 | 금정문화회관 519-5661



해학과 풍자, 인생의 희로애락이 담긴 신명나는 마당놀이 '심청이와 춘향이'가 온다.

마당놀이의 여왕이라 불리는 소리꾼 김성녀가 오랜 시간 대중들의 사랑을 받아온 마당놀이 중에서도 가장 인기가 많았던

'심청전'과 '춘향전'을 재구성한 이번 무대는 관객들이 배우들과 함께 춤추고 노래하는 관객 참여형 공연이다.

특히 무대를 가득 채우는 '천의 얼굴' 김성녀는 '심청전' 중 익살스럽고 욕심많은 뽕덕어멈 역을 맡아 마당놀이 인간문화재라는 그 명성을 유감 없이 발휘하여 관객들에게 신명나는 한마당을 선사할 예정이다.

얼썬 이소정의 소리여행

일 시 | 9월 9일 토요일 오후 5:00
 해운대문화회관 해운홀
 입장료 | R석 5만원, S석 3만원
 문 의 | 부산문화 1600-1803



국가무형문화재 제57회 경기민요 이수자, 제62호 좌수영어방놀이 이수자로 우리 소리 전승에 힘써온 이소정의 소리여행.

이소정은 제48회 전주대사습놀이 전국대회 장원, 제43회 부산동래전국전통예술경연대회 대

상, 2019년 세종대왕전통예술경연대회 최우수상, 2021년 한국문화예술대상을 수상하고 현재 (사)수영고적민속예술보존협회 회원, (사)한국의소리 숨 회원, (사)부산예총 이사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 소리/이나영, 조윤희, 최재미(경기민요 이수자)
- 특별출연/조안나(팝페라 가수), YeART CENTER 청소년무용단, 국악연주단 민들레, 처랏

제50회 짜장콘서트 나, 너 그리고 우리의 노래 III

일 시 | 9월 9일 토요일 오후 4:00
 부산예술회관 공연장
 입장료 | 전석 1만원(사전예약, 청소년 및 10명 이상 단체 50% 할인)
 문 의 | 음악풍경 기획실 987-5005



부산에서 비약적인 활약을 펼치고 있는 성악가들의 무대로, 소프라노 정혜리, 테너 박성백이 한국가곡을 비롯해 가요, 칸초네, 오페라 아리아, 뮤지컬 넘버 등 다채로운 곡을 들려준다.

정혜리는 신라대학교 및 이탈리아 산타체칠리아 국립음악원을 졸업하고 현재 국내외 오페라 무대에서 비약적인 활약을 펼치고 있다. 인제대학교 및 이탈리아 파르마 국립음악원 최고연주자과정, 밀라노 시립음악원, 도니제티 아카데미 보컬코치과정·합창지휘과정 디플로마를 획득한 박성백은 오페라의 주역가수로 눈부신 활약을 보여주고 있다.

- 피아노/김현정 • 진행/이진이

진건혜 귀국 바이올린 독주회

일 시 | 9월 10일 일요일 오후 5:00
 금정문화회관 은빛샘홀
 입장료 | 초대
 문 의 | 금정문화회관 519-5651



풍부한 음색과 탁월한 음악성으로 주목받는 바이올리니스트 진건혜 귀국 독주회.

경북대학교 음악학과를 졸업하고 도독, 로버트슈만 뒤셀도르프 국립음대에서 석사 학위를 취득한 진건혜는 귀국 독주회를

시작으로 앞으로 다양한 무대를 통해 관객과 만날 예정이다.

이번 무대에서는 새로운 만남을 시작하는 따뜻한 봄날같이 부드럽고 서정적인 색채를 가진 모차르트 '바이올린 소나타 제18번'을 시작으로 만남과 이별, 세레나데, 환호, 기쁨 등 연애의 감정을 담은 스트라빈스키의 '풀치넬라 모음곡', 그리고 사랑하는 연인과 환상적인 결혼에 도달하기까지를 그린 프랑크 '바이올린 소나타 가장조'까지 사랑의 여정을 바이올린 연주로 들려준다.

2023 제14회 부산마루국제음악제 프롬나드 콘서트III

일 시 | 9월 12일 화요일 오후 7:30
 영도문화예술회관 봉래홀
 입장료 | 전석 2만원
 문 의 | 영도문화예술회관 419-5571~4



문화도시 부산을 위한 최정상의 클래식 음악축제 '2023 제14회 부산마루 국제음악제' 프롬나드 콘서트 세 번째 무대.

최고의 실내악과 창작음악을 소개하고 클래식 음악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이번 무

대에서는 2004년에 캐나다에서 창단된 앙상블 코담, BMIMF 챔버 앙상블, KNN방송교향악단의 수석단원으로 구성된 Piano Quintet(바이올린 최종완, 비올라 나윤채, 첼로 이예성, 플루트 이효권, 피아노 마르코 스키루)가 연주한다.

프로그램

- 슈만/피아노 사중주 제1번 작품 47
- 피아졸라/아디오스 노니노
- 피아졸라/리베레탕고

벨리씨미 성악연구회 제21회 정기연주회 천상의 음악 음악 속 천국

일 시 | 9월 12일 화요일 오후 7:30
해운대문화회관 해운홀
입장료 | 전석 2만원
문의 | 벨리씨미 성악연구회 010-8277-4746



부산, 경남지역을 중심으로 활발한 연주활동을 펼치고 있는 성악가들로 결성된 벨리씨미 성악연구회 정기연주회.

이번 무대에서는 미사곡, 수난곡, 오라토리오, 칸타타, 코랄, 진혼곡 등 종교음악의 시대별 특징과 음악을 엄선, 독창과 중창, 합창으로 들려준다.

- 소프라노/이은미(총감독), 신진범, 이윤순, 장은녕, 정혜리, 이지영, 김기원, 백성희
- 메조소프라노/이지영, 성미진
- 테너/장원상 • 바리톤/임성욱
- 피아노/최성근(음악감독), 금찬이
- 바이올린/이라희 • 첼로/정서은
- 플루트/유혜성 • 트럼펫/김형진
- 해설/김태형 • 우정출연/유니버설합창단

제1회 부산소극장 오페라축제 오페라 까발레리아 루스티카나

일 시 | 9월 13일-14일 수-목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금빛누리홀
입장료 | VIP석 10만원, R석 7만원
S석 5만원, A석 3만원
문의 | 부산오페라단 070-7954-3087



지난해 1월 출범한 부산 오페라단연합회가 지역 오페라 육성과 저변확대를 위해 마련하는 제1회 부산소극장 오페라축제 세 번째 작품.

부산오페라단이 선보이는 마스카니의 오페라 '까발레리아 루스티카나'는 베리스모 오페라의 효시가 된 작품으로, 시칠리아섬에서 일어난 비극적 사건을 그리고 있다.

- 예술감독/전연숙 • 연출/노이름
- 지휘/이동신
- 출연/양승엽·김지호, 김아름·김유진, 이태영·오승용, 이서연, 전연숙
- 합창/그린나래 오페라 콰이어
- 연주/아르떼 오케스트라

김지우 가야금 독주회 줄의 소리

일 시 | 9월 15일 금요일 오후 7:00
해운대문화회관 해운홀
문의 | 김지우 010-9892-0060



부산대학교 한국음악학과를 졸업하고 꾸준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김지우 가야금 독주회.

김지우는 그동안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청소년 협연의 밤, 국립부산국악원 수요공감 등 다양한 무대에 서왔으며 현재

한국문화예술진흥원 강사로 활동하고 있다.

이번 무대에서는 도날드 워맥이 2013년 우리나라의 무속음악을 기반으로 작곡한 12현 가야금곡 '무'를 비롯해 일본의 전통악기 고토를 위해 작곡된 '소나무'(미키 미누로 곡, 백대웅 편곡), 3개의 악상이 서로 다른 화성과 리듬으로 이어지는 '모자이크'(함현상 곡), 동명의 강원도 민요를 가야금3중주로 편곡한 '한오백년'(김선 곡), 그리고 '호접지몽'(황호준 곡) 등 다양한 창작곡을 들려준다.

- 타악/최정목 • 가야금/김명선, 이하린

La. Duo & Fellows 피아노 앙상블 연주회

일 시 | 9월 16일 토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은빛샘홀
입장료 | 무료
문의 | La. Duo 010-6388-5290



대학 동기로서 처음 만나 호흡을 맞춰온 피아니스트 민중호, 손예진의 피아노 앙상블 듀오 'La. Duo(라 듀오)'의 무대.

'La. Duo(라 듀오)'는 지난해 8월 첫 정기연주회를 가진 후 그동안 1 piano 4 hands, 2 piano 4 hands

등의 다양한 편성과 고전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시대를 구분하지 않는 다채로운 레퍼토리로 관객과 만나왔다.

특히 그들의 대학 선후배인 피아니스트 서민철, 임재훈과 함께하는 이번 무대에서는 브람스, 아렌스키, 라벨 그리고 스메타나를 비롯한 넓은 스펙트럼의 작곡가의 곡을 들려주며 같은 길을 걸어가는 친구이자 동료로 관객들과 함께 호흡하며 따뜻한 응원을 주고받는다.

아희야! 검은고 청(淸)쳐라

일 시 | 9월 16일 토요일 6:00
해운대문화회관 해운홀
입장료 | 무료
문의 | 하인철 010-3550-4189



경상도 지역에서 듣기 어려운 서도소리를 부산시민들에게 알려온 (사)한국서도민요연구보존회의 특별한 무대.

(사)한국서도민요연구보존회는 전국국악경연대회 대통령상을 수상하고 국가무형문화재 경기민

요 이수자, 이북5도 무형문화재 평안남도 향두계놀이 이수자로 있는 하인철 이사장을 중심으로 사라져가고 있는 아름다운 서도소리의 맥을 잇고 있다.

이번 무대에서는 대표적인 서도잡가인 초한가를 비롯해 수심가, 엮음수심가, 긴난봉가, 자진난봉가, 사설난봉가, 반메기비나리, 간장타령, 몽금포, 개성난봉가 등 서도소리와 정선아리랑, 창부타령, 밀양아리랑 등 타 지역의 대표적인 민요를 함께 들려준다.

조용운 타악기 클래스 음악회

일 시 | 9월 17일 일요일 오후 5:00
금정문화회관 은빛샘홀
입장료 | 초대
문의 | 후와유 컴퍼니 010-2431-2170



타악기 주자 조용운의 제자들이 마련하는 클래스 음악회.

이번 무대에서는 V.I.P 타악앙상블, BCO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단원으로 있는 서지형과 YOUNG V.I.P 타악앙상블 단원으로 활동하는 김찬민(부산

예술고등학교 1학년), 이윤성(부산국제외국인학교 10학년), 장윤서(부산예술고등학교 1학년), 유수현(부산예술중학교 3학년), 장서연(동아중학교 3학년), 김민준(브니엘예술중학교 1학년) 등 차세대 타악연주자 6명의 열정적인 무대를 만날 수 있다.

- 지도/조용운

플루티스트 김인호의 열여섯번째 이야기 삼 그리고 노래

일 시 | 9월 17일 일요일 오후 6:00
 롯데백화점 동래점 9층 문화센터
 입장료 | 후원금으로 대체
 (신한은행 김인호 010 4554 7777)
 문 의 | 김인호 010-4554-7777



플루티스트 김인호가 장학 기금마련을 위해 마련하는 무대. 김인호는 고신대학교 기악학과를 졸업하고 그동안 뉴욕 카네기홀 듀오콘서트, 유니세프 유스오케스트라 협연(시드니 오페라하우스), 중국 베이징 천안문 열린음악회 등 다수 무대에 서왔으며, 현재 프레멘토 서포터즈 장학회 대표이사로 음악 사랑을 펼쳐오고 있다. 특히 프레멘토 서포터즈가 지원하고 있는 장학회 학생 두 명의 수술비 마련을 위한 무대로, 이날 공연의 입장료 혹은 계좌를 통해 보내준 후원금 전액은 수술비용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 피아노/진승민 • 첼로/김유진

2023 을숙도 예술공감

일 시 | 9월 19일-21일 화-목요일 오후 7:30
 을숙도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 전석 1만원(예매시 20% 할인)
 문 의 | 을숙도문화회관 220-5811~4



다양한 프로그램과 수준 높은 공연으로 지역 주민들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2023 을숙도 예술공감.

일정
 19일(제32회) 피아니스트 금찬이의 뮤직스토리 콘서트_Frank Lynes의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20일(제33회) 장애 음악가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장애, 비장애 협업 프로젝트 콘서트 'The Tosti'
 21일(제34회) 아인클랑 피아노양상을 제3회 정기연주회 '불후의 명곡'

2023 부산오페라시즌 콘서트오페라 람메르무어의 루치아

일 시 | 9월 22일 금요일 오후 7:30, 23일 토요일 오후 5:00
 금정문화회관 금빛누리홀
 입장료 | R석 5만원, S석 4만0,000원 A석 20,000원
 문 의 | 금정문화회관 519-5661



2023 부산오페라시즌의 대미를 장식할 콘서트오페라 '람메르무어의 루치아'. 이탈리아 벨칸토 오페라의 전형을 보여주는 대표작으로, 이번 무대에서는 현존 최고의 소프라노 캐슬린김과 부산을 대표하는 소프라노 구민영의 초절정 기교를 감상할 수 있으며, 이 외에도 전세계 오페라 무대의 주역 가수로 활동하고 있는 테너 최원휘와 바리톤 양준모, 베이스 김대영, 더불어 부산을 대표하는 성악가 김준연, 이광근, 사비나김 등이 출연하여 극의 완성도를 높인다.

- 지휘/권민석 • 연출/이희수
- 연주/2023 부산오페라시즌 오케스트라·합창단

을숙도문화회관 재개관 기념 공연

일 시 | 9월 22일 금요일 오후 7:30
 을숙도문화회관 대공연장
 입장료 | 1층 3만원, 2층 2만원(예매시 20% 할인)
 문 의 | 을숙도문화회관 220-5811~4



수개월에 걸쳐 진행된 리모델링 공사를 마치고 9월 중순 재개관하는 을숙도문화회관이 새로운 모습으로 시민들과 만나는 재개관 기념 공연. 서부산권 문화의전당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을숙도문화회관은 개관 20년만에 개보수 공사에 들어가 노후된 로비와 분장실, 화장실 등을 리모델링하고 이번엔 새롭게 단장한 모습으로 시민과 첫 만남을 갖는다. 이번 무대에서는 TV프로그램 '불후의 명곡'에서 최다 우승을 차지한 가수 정동하와 샌드아트리스트 정영경, 피아니스트 최성근, 발레리노 이주호 등 지역의 예술인과 함께 재개관을 축하한다.

제16회 굿모닝 콘서트 김희정&고충진 듀오리사이틀

일 시 | 9월 22일 금요일 오전 11:00
 을숙도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 전석 1만5천원(블랙업커피 포함, 예매시 20% 할인)
 문 의 | 을숙도문화회관 220-5811~4



공연의 여운과 커피의 향기로 두배의 기쁨을 누리는 을숙도 음악산책 굿모닝콘서트. 이번 무대는 풍부한 감성과 대범한 연주를 선보이는 바이올리니스트 김희정과 섬세한 기타의 현을 다양한 테크닉으로 연주하는 기타리스트 고충진의 듀오무대로, 드보르 작 '유모레스크', 얼굴, 첫사랑 등 가을의 서정과 잘 어울리는 감성적인 현의 듀오로 관객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한다.

김지연의 가야금독주회 | 비로소 始

일 시 | 9월 22일 금요일 오후 7:30
 해운대문화회관 고운홀
 문 의 | 김지연 010-9649-0092



부산대학교 한국음악학과 졸업 및 동대학원 석사과정을 수료하고 현재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강사, 부산가야금연주단, 금원풍류 단원, 노래하는 야금야금 동인으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가야금주자 김지연의 무대. 김지연은 제16회 창원 야철 전국국악대전 일반부 현악 금상을 수상했으며, 2020년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과 협연무대를 가진 바 있다. 이번 무대에서는 남녀가객이 동시에 같은 가사를 병창하는 국악에서 보기 드문 매우 특이한 곡인 '태평가'를 노래 없이 가야금, 단소, 장구 연주로 들려주며, 독특한 음악적 특징을 지닌 김병호류 가야금산조, 판소리 '흥보가' 중 '유색황금눈', '제비노정기'를 가야금 병창으로 들려준다.

퓨전국악밴드 경지 보물섬을 찾아 떠나보세!

일 시 | 9월 22일 금요일 오후 7:30
영도문화예술회관 봉래홀
입장료 | 전석 1만원
문 의 | 영도문화예술회관 419-5571~4



한국인의 정서인 한을 담은 판소리와 밴드음악을 접목한 개성 있는 사운드로 주목받는 차세대 청년 그룹 퓨전국악밴드 경지의 무대.

2015 대학국악제, 2016 한강음악제, 2016 KBAS 대학가요제에서 대상을 받으며 결성된 팀으로, 리더 오현을 주축으로 건반과 기타, 드럼, 베이스의 앙악기와 한국의 독보적인 음색을 전하는 피리, 보컬 등 각 분야에서 뛰어난 기량을 자랑하는 6명의 아티스트가 뭉쳐 다양한 음악을 선보이고 있다.

- 출연/보컬 오현, 피리 이재득, 베이스 양준혁, 기타 신도현, 드럼 최영진, 건반 강희경

라흐마니노프 탄생 150주년 기념 라흐마니노프의 고백

일 시 | 9월 23일 토요일 오후 3:00
금정문화회관 은빛샘홀
입장료 | 초대
문 의 | 부산피아노음악연구회 010-2922-3857



부산피아노음악연구회 특별기획으로 마련되는 릴레이 콘서트 시리즈 8 번째 무대. 라흐마니노프 탄생 150 주년을 기념해 열리는 이번 무대에서는 작곡가로, 지휘자로 그리고 최고 명성의 피아니스트로 이름을 빛냈던 20세기 마지막 낭만주의자 라흐마니노프 자신이 말하는 그의 삶을 목소리 낭독과 영상, 피아니스트 13명의 연주로 들려준다.

- 각본, 연출/박유미
- 라흐마니노프 목소리/양종근
- 피아노 연주/김진희, 정문정, 윤예지, 김주리, 이현옥, 김해리, 박소진, 강한솔, 나예지, 박필은, 한정민, 정서미, 이윤지

을숙도 청년예술공감

일 시 | 9월 25일-26일 월-화요일 오후 7:30
을숙도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 전석 1만원(예매시 20% 할인)
문 의 | 을숙도문화회관 220-58 11~4



을숙도문화회관이 마련한 '을숙도 청년예술공감' 9월 무대.

'청년 예술공감'은 지역 청년들이 부산을 떠나지 않고, 계속 음악활동을 하며 지역민들에게 응원과 위로를 전하는 음악을 선사할 수 있도록 을숙도

문화회관이 올해 첫선을 보인 사업으로, 지난 4월 심사를 통해 선정된 10개팀이 6월부터 다채로운 공연을 선보이고 있다.

25일(월) 칸딘스키 작품과 함께 녹아드는 선율의 밤

26일(화) 가곡과 아리아가 흐르는 소프라노 3인 리사이틀

굿데이 남성중창단 Awesome Concert

일 시 | 9월 26일 화요일 오후 7:30
영도문화예술회관 봉래홀
입장료 | 무료(사전예매 필수)
문 의 | 영도문화예술회관 419-5571~4



부산, 경남지역을 중심으로 성악, 뮤지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문 성악인들로 구성된 굿데이 남성중창단의 무대.

굿데이 남성중창단은 지난 2013년 4월 창단된 후 매년 정기연주회와 초청 연주회, 찾아가는 음악회 등 다양한 무대를 통해 클래식에서 뮤지컬, 가요, 팝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그들의 색깔로 선보이며 관객들의 호평을 받아왔다.

- 테너/한 강호근, 강원석, 안예찬, 전용진
- 바리톤/류동호 • 피아노/이혜인
- 게스트/신새봄(뮤지컬배우), 최형석(베이스), 황호진(드럼)

2023 영화의전당 11시 음악회 8월 사랑을 그린 영화음악

일 시 | 9월 27일 수요일 오전 11:00
영화의전당 하늘연극장
입장료 | 전석 2만원
문 의 | (재)영화의전당 780-6060



부산영화음악협회 대표이자 부산 출신의 영화음악감독인 손한묵의 추천으로 구성된 스페셜 영화음악 콘서트.

11시음악회 호스트이도한 손한묵이 지극히 주관적으로 선정한 한국인이 좋아하는 1990년대 영화음악과 21세기 영화음악을 소개하는 이번 무대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인생작으로 손꼽는 영화 '아바웃타임', 유명 여배우와 보통의 남자가 사랑에 빠지는 순간을 그린 '노팅힐', 가족의 복수를 꿈꾸는 소녀와 킬러의 동행을 그린 '레옹'에서부터 지브리 애니메이션 '하울의 움직이는 성', 한국의 멜로영화 '뷰티 인사이드'까지 다양한 사랑의 형태를 그린 영화 OST를 들려준다.

- 음악감독/손한묵
- 연주/두레라움 하우스 밴드

연극

연극 아마시브 연극 아이 좀비

일 시 | 6월 15일(목)-9월 24일(일) 화·목요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2:00, 5:30, 일요일 오후 3:00(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오후 8:00) **어댑터 플레이스**
입장료 | 전석 3만 5천원(만 12세 이상 관람)
문 의 | (주)예술은 공유다 010-3850-1447



한국과 영국의 예술가들이 공동제작하는, 관객 참여형 연극(Immersive) '아이 좀비'.

집 안에 갇힌 앙숙 형제가 좀비세상에서 서로를 지켜내며 관계를 회복해 가는 '아이 좀비'는 특히 국내에서는 보기 드문 좀비 장르와 코미디가 어우러진 작품으로, 생생한 입체음향과 특수분장으로 울려 퍼 공연장을 찾은 관객들에게 오싹한 공포를 선사한다.

- 작/세바스찬 가드너, 다니엘 케틀
- 연출/심문섭
- 협력연출/세바스찬 가드너, 나니엘 케틀, 주형준

어린이 뮤지컬 초록별 튼튼 모험대

일 시 | 9월 1일(금) 오후 7:30, 2일(토)
오후 4:00 **동래문화회관 대극장**
9월 8일(금) 오후 7:30, 9일(토)
오후 4:00 **영도문화예술회관 봉래홀**
입장료 | 전석 2만원(5세 이상 관람)
문 의 | 영아츠컴퍼니(1544-4641)



2023년 어린이 최고의 기대작으로 꼽히는 창작 뮤지컬 '초록별 튼튼 모험대'. 이번 무대는 지역의 문화 토양을 구축하고 함께 생활할 수 있는 방향에 대해 고민해오던 해운대, 동래, 영도의 3개 구 문화회관이 의기투합하여 제작한 협력 프로그램으로, 부산에서 새롭게 주목받는 음악단체인 영아츠컴퍼니(대표 김태영)와 젊고 재기발랄한 뮤지컬 단체 아트레블루선의 대표 박정우와 함께 손을 잡고 제작한 어린이뮤지컬이다. 특히 미래의 희망인 어린이들에게 번이바이러스, 자연환경 파괴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와 극복을 담은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뮤지컬 달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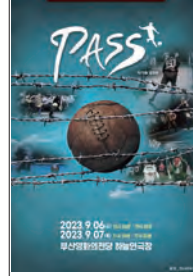
일 시 | 9월 1일(금)-24일(일) 평일 오후 8:00,
주말 오후 3:00 무대공감 **소극장**
입장료 | 일반 3만원, 청소년 2만5천원
(12세 이상 관람)
문 의 | ㈜반올림 070-8612-5244



은둔형 외톨이 '히키코모리' 채현과 취업준비생 달래를 통해 오늘날 청년세대의 고민을 따뜻하고 유쾌하게 그려낸 창작뮤지컬 '달래'. 불의의 사고로 가족을 잃은 슬픔과 상실감으로 히키코모리가 된 채현, 그러던 중 생활비 부족으로 셰어하우스 임대인을 모집하게 되고 취업준비생 달래가 임대인으로 들어온다. 꿈 많은 디자이너 지망생인 달래의 취업을 얼떨결에 도와주게 된 채현은 서서히 보통의 청년으로 들어오게 되고... 이번 작품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2022년 청년예술가생애첫지원 공연예술분야'에 선정된 박치열이 극작과 연출을 맡아 지난해 초연무대를 가진 바 있다.

축구연극 패스

일 시 | 9월 6일 수요일 오후 3:00, 7:30,
7일 목요일 오전 11:00, 5:30
영화의전당 하늘연극장
입장료 | 전석 3만원
문 의 | 극단 산 02-6414-7926



일제 강점기 경성과 평양을 오가며 열렸던 친선 축구경기 '경평대항축구전'을 모티브로, 남과 북의 청춘들이 펼치는 뜨거운 열정과 치열한 사랑 '패스'. 1945년, 그토록 원하던 해방의 기쁨도 잠시, 보이지도 않는 38선에 의해 남과 북이 나뉘어 대립하는 상황이 계속되는 가운데 이듬해 3월, 남과 북의 청춘들은 목숨을 걸고 38선을 넘어 '경평대항축구전'을 11년만에 다시 개최하는데... 특히 이번 무대는 무대와 객석의 경계를 허물어 관객은 축구장의 관객이, 응원단이 되기도 하며, 조금은 다른 남과 북의 춤과 노래, 민요를 현대적으로 재창작하여 청춘들의 사랑과 아픔, 그리고 희망을 담아낸다.

뮤지컬 수박수영장

일 시 | 9월 9일 토요일 오전 11:00, 오후 2:00,
4:30, 10일 일요일 오전 11:00,
오후 2:00 **KBS부산홀**
입장료 | 전석 7만7천원(24개월 이상 관람,
예매시 할인)
문 의 | ㈜더화랑이엔티 1800-6567



작품성과 대중성을 갖춘 동시대 가장 주목받는 그림책 작가인 안녕달의 동명의 그림책을 뮤지컬로 탄생시킨 '수박수영장'. '수박수영장'은 바쁜 부모님을 도우려다 의도치 않게 사고뭉치가 되어 버려 속상한 주인공 진희가 여름방학을 맞아 고향에 가서 가족과 마을 사람들의 사랑을 느끼며 스스로를 빛나는 존재로 여기게 되는 이야기를 담고 있다. 특히 가족 간의 진정한 사랑을 다루면서 세대를 아우르는 감동과 재미를 선사하고 아이들에게는 상상력을, 어른들에게는 어린 시절의 추억을 떠올리게 한다.

제3회 세계여성공연예술축제 폐막작 마이 디어, 헬렌

일 시 | 9월 10일 일요일 오후 6:00
영화의전당 하늘연극장
입장료 | R석 3만원, S석 2만원, A석 1만원
문 의 | (재)영화의전당 780-6060



동시대성을 관통하는 다양한 목소리를 들려주고 있는 제3회 세계여성공연예술축제 폐막무대. 지난 2012년 비언어극으로 초연된 '마이 디어, 헬렌'은 헬렌 켈러의 이야기를 서사적인 스토리텔링 방식이 아닌 제한된 감각에 의존했던 그녀만의 소통방법을 통해 접근하여, 언어를 배제한 최소의 무대에서 배우들의 에너지만으로 헬렌에게 맞닥뜨린 삶의 중요한 순간들을 무대 위에 펼친다. 특히 이번 무대는 극단 배관공(한국)과 원 댄스 프로젝트 그룹(한국), 클리브랜드 퍼블릭 씨어터(미국), 극단 14+(일본)가 협업, 어디에서도 만날 수 없는 특별한 무대를 선사한다.

연극 난중일기에는 없다

일 시 | 9월 13일(수)-2024년 1월 1일(월)
평일 오후 7:30, 주말·공휴일
오후 3:00, 6:00(월요일 공연없음)
BNK부산은행조은극장 1관
입장료 | 전석 4만원
문 의 | BNK부산은행조은극장 1588-2757



영웅 이순신의 파격적인 이미지 변신과 독특한 발상으로 실존 인물을 픽션으로 재구성한 연극 '난중일기에는 없다'. 이 작품에서 역사 속 영웅 이순신은 온데간데없다. 살기위해 버둥거리는 일본 무사 사스케에게 납치되고 고구마 하나에 치졸하게 목숨을 구걸하기까지 한다. 걸쭉한 전라도 사투리로 육두문자를 남발하고, 후줄근한 옆집 아저씨 같이 삶의 넋두리도 내뱉는다. 이번 작품은 난중일기에는 없는 3일간 이순신의 행적을 통해 영웅이러기보다는 한 인간으로서 이순신 장군을 그려내며 관객들에게 공감과 감동을 전한다.

효로인디아트홀 개관기획공연 한국문학탐구 시리즈 1: 이태준편 성북동 248번지

일 시 | 9월 14일(목)-11월 5일(일) 목-금요일
 오후 7:30, 주말 오후 3:00
효로인디아트홀 소극장
 입장료 | 전석 3만원(15세 이상 관람, 예약 필수)
 문 의 | 극단 새벽 245-5919



올해 4월 개관한 효로인디아트홀 개관기획공연이자 한국문학탐구시리즈 첫 번째 무대 '성북동 248번지'.

이번 무대는 질곡의 시대를 살아낸 월북작가 이태준의 고뇌에 다가가는 이정표이자, 한국 분단의 역사를 조망할 수 있는 좌표로, 그의 단편소설 '고향', '농군', '토끼이야기'를 통해 1920~30년대의 무기력한 지식인, 만주 개간지로 이주한 조선농민의 삶, 일본제국주의 아래 조선 민중의 삶이 어떻게 휘말려 들었는지 들여다본다.

- 연출/이성민
- 극구성/이성민, 변현주, 정선욱, 김기백
- 출연/변현주, 이현식, 전상미, 김다애, 김기백

영화

어린이를 위한 키즈 오페라 클래식 체험공연 마술피리·카르멘

일 시 | 9월 2일 토요일 오후 1:00, 3:30
 키자니아 부산 극장
 문 의 | ㈜샤콘느 746-2018



키자니아 부산극장에서 즐기는 특별한 키즈 오페라.

문화로 도시를 재생하는 부산 문화 로컬크리에이터 도시 재생 전문기업 (주)샤콘느가 어린이들을 위해 기획한 행사로, 모차르트가 음악으로 그려낸 환상적인 이야기 '마술피리'(오후 1:00)와 집시 카르멘과 군인 돈 호세의 비극적 사랑을 그린 오페라 '카르멘'(오후 3:30)을 애니메이션 영화로 만날 수 있다.

특히 부산시 소통 캐릭터인 부기가 영상 속 주인공 공으로 등장하여 어린이들을 오페라 세계로 안내한다

행사

영도에서 떠나는 유럽예술여행 IV 제3기 꿈

일 시 | 매주 토요일 오후 2:00
영도문화예술회관 동백홀
 입장료 | 무료
 문 의 | 영도문화예술회관 419-5574



영도문화예술회관이 지난 2020년부터 열어온 '영도에서 떠나는 유럽예술여행' 네 번째 시리즈.

올해는 유럽도시를 배경으로 하는 문학 작품과 이야기를 통해 '시작', '여성', '꿈', '사람' 등 4가지 주제로 나누어 오페라의

역사, 미술, 문화, 인물에 대해 알아본다. 특히 유럽에서 10년간 전문해설가로 활동했던 김성민 강사가 생생한 현지의 감성으로 전하는 해설을 통해 인문학과 예술이 접목된 색다른 강의를 만날 수 있다.

이번 제3기 강좌 '꿈'에서는 독일 예술 도시(2일)를 시작으로, 오페라 '투란도트'(9일), 오페라 '호프만의 이야기'(19일), 하이든 VS 모차르트(23일), 레처콘서트(10월 7일)로 진행된다.

영도!! 예술 감상 어드벤처

일 시 | 6월 3일(토)-11월 18일(토) 매주 토요일
 오전 9:00
영도문화예술회관 4층 강의실
 입장료 | 무료(초등 고학년~중학생 선착순 30명 이내)
 문 의 | 영도문화예술회관 419-5574
 클래식라디오 010-3881-3753



영도문화예술회관이 놀이와 체험을 통해 클래식 음악의 벽을 낮추기 위해 마련하는 2023년 문화 예술교육프로그램 '영도!! 예술 감상 어드벤처'.

이번 프로그램은 모두 다섯 기수로 나누어 진행되며, 기수별 네차례 프로그램을 통해 창의력과 감성을 기르고 음악의 구조와 요소를 알아가는 시간을 갖는다.

프로그램

- 1회차 스윙 빅밴드&비밥&하드밥&쿨재즈
- 2회차 다양한 종류와 재즈 미술로도 표현해보아요
- 3회차 신사는 재즈악기 체험
- 4회차 이것이 재즈대! '재즈 콘서트'

해설과 함께하는 클래식 음악 감상회

일 시 | 매주 수요일 오전 10:30, 오후 2:00
무지크바움 음악홀
 입장료 | 월 4회 5만원
 문 의 | 무지크바움 070-7692-0747



음악전문감상 오디오 시스템을 갖추고, 음반 및 영상물 4,000장 이상을 소장하고 있는 전문 음악감상 홀이자 다양한 예

술 인문학 강좌도 열리는 복합문화공간인 무지크바움이 진행하는 클래식 음악 감상회.

매주 수요일 두 차례, 르네상스 및 바로크, 고전주의, 낭만주의 작품들을 중심으로 클래식 음악의 명반을 소개하고, 다양한 콘서트 실황 및 음악 페스티벌, 오페라, 재즈 및 월드뮤직, 예술영화 등을 영상으로 감상한다.

예필의 인문예술 레처콘서트(종합편) 음악·미술·영화가 있는 세계예술여행

일 시 | 9월 16일 토요일 오후 4:30
오페라바움
 입장료 | 입장료 2만원
 문 의 | 오페라바움 010-4205-1039



음악, 미술, 영화 등 3분야 예술인으로 등재된 예필 작가와 함께 떠나는 세계예술기행, 음악과 미술, 영화, 시, 역사가 유기적으로 어우러지는 예술의 새 패러다임이 펼쳐진다.

프로그램

예술영화/프리다(Frida, 2002, 줄리 테이머 감독, 프리다 칼로 일대기)
 월드뮤직/그리스음악, 쿠바음악, 플라멩코, 아리랑 서양미술사의 거짓/다시점 구도, 원근법 세계의 시/신들에게 바라는 유일한 한 가지, 페르난도 페소아(포르투갈 시인)

9월 시네바움 아카데미

일 시 | 매주 월요일 오후 7:00, 15일 목요일 오전 11:00 **시네바움**

문의 | 시네바움 010-2774-3455

...

4일(월) 영화로 만나는 부산: 기억과 매혹의 공간들

• 강사/허정식(영화학자)

11일(월) 북토크_해운대에서 만나요 '소설, 호텔 해운대'

• 강사/오선영(소설가)

15일(목) 낭독과 낭송 그리고 시조창(時調唱)과 詩수다.커피 마시기·롤프 디터 브링크만 詩集(파란꽃 2019)

18일(월) 북토크_이야기로 만나는 부산 '소설, 잃어버린 사람'

• 강사/김숨(소설가)

25일(월) 영화 속 부산 '근대 노스텔지어와 필름 느와르'

• 강사/조재휘(영화평론가)



김옥균의 클래식뮤직감상 아카데미 클래식음악 영상해설감상회

일 시 | 매주 금요일 오전 10:30

영광도서 문화홀 1관

입장료 | 2개월 10만원

문의 | 김옥균 010-6367-0149

...



MBC 부산문화방송 'FM 가정음악실', '별이 빛나는 밤에' 등 음악프로그램을 연출한 前 MBC PD이자 현재 클래식 해설가, 시인, 음악 치료사로 활동하고 있는 김옥균의 해설로 진행되는 '클래식 뮤직아카데미'.

알기 쉬운 '서양음악사 특강'과 함께 유명 작곡가의 탄생지 기행, 국내외 최신 클래식 음악의 해외연주회 실황을 영상으로 감상할 수 있다.

프로그램

알기 쉬운 서양음악사특강(4)·국민음악파의 이해&스메타나 '몰다다우 강', 무소르그스키 모음곡 '전람회의 그림'

모차르트 피아노협주곡 제23번, 베토벤 교향곡 제7번

클래식음악영화_말러(영국 영화)
영국음악기행_헨델 수상음악, 엘가 첼로협주곡
크로스오버 클래식의 매력_안드레아 보첼리의
뉴욕 콘서트

특집 '한국 가곡의 소역사_홍난파 가곡, 이수인, 윤용하 가곡 감상회'

제187회 알바트로스 시낭송 콘서트 가을, 여황주제 시낭송회

일 시 | 9월 16일 토요일 오후 3:00

영광도서 문화홀

입장료 | 무료

문의 | 알바트로스 시낭송문학협회
010-63670-0149

...

- 출연/정서연 시인 외 회원, 초대시인
- 초청 음악가/가연(가수, 황창근(팬플루트 연주자))

전시

9월 오페라바움 해설이 있는 클래식 & 오페라 감상회

일 시 | 매주 화요일·금요일·토요일
오후 2:00, 7:00 **오페라바움**

입장료 | 전석 1만 5천원

문의 | 오페라바움 실장 010-4205-1039

...



매주 화요일에는 고전주의 특징을, 금요일에는 모차르트 오페라를, 매주 토요일에는 직장인을 위한 특별 편성으로, 오페라바움 대표 심성섭의 해설로 감상할 수 있다.

프로그램

오페라(모차르트 특집)/

루치오 실라(1일~2일), 가짜 여정원사(8일~9일), 크레타왕 이도메네오(15일~16일), 돈 조반니(※영화판, 22일~23일), 티토황제의 자비(29일~30일)

콘서트(고전주의 특집)/모차르트 피아노협주곡 제20번, 21번, 22번, 24번(5일, 9일), 베토벤 3중협주곡, 합창환상곡, 현악4중주 제15번(12일, 16일), 모차르트 '레퀴엠'(19일, 23일), 모차르트 교향곡 제39번, 40번, 41번(26일, 30일)

Sacred Land

일 시 | 4월 13일(목)-10월 15일(일)

랄프 김슨 사진미술관

문의 | 랄프 김슨 사진미술관 747-1939

...

초현실주의 사진의 거장, 사진가 랄프 김슨의 역사적 발자취를 품고 있는 랄프 김슨 사진미술관이 마련하는 기획전.

- 운영시간/오전 10:00~오후 7:00(매주 월요일 휴관)

올리히 뷔스트 전 도시산책자:올리히 뷔스트의 사진

일 시 | 7월 22일(토)-11월 5일(일)

고은사진미술관

문의 | 고은사진미술관 746-0055

...

사진의 기록적 가치에 충실하며 절제된 관찰적 시각으로 독일 다큐멘터리 사진의 새로운 역사를 제시하고 있는 독일을 대표하는 사진가 올리히 뷔스트 사진전.

The Birth(The Birth of a Space Cat) 엔조 Enjo 후원개인전

일 시 | 9월 2일(토)-9월 24일(일)

문의 | 갤러리 한스 784-0233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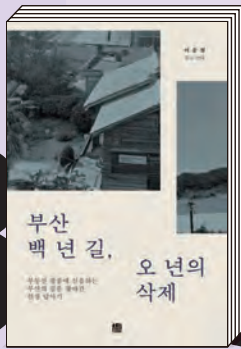


한국 미술계가 주목하는 작가 엔조(ENJO) 개인전.

엔조 작가는 예술에 기하학적 이론을 반영하여 표현의 역발상을 시도함으로써 작가만의 독특한 창조세계를 펼쳐내고 있다.

이번 'Space cat'은 작가의 설정을 바탕으로 탄생한 가상의 캐릭터로, 무기체를 유기체로 의인화하고, 설정을 바탕으로 Story를 만들어 애니메이션을 보는 듯한 이미지를 표현했으며, 이 story 내용을 바탕으로 형태가 구성이 되며, 공간속 차원을 기반으로 한 이미지를 디자인 하여 작가의 상상력을 작업에 투영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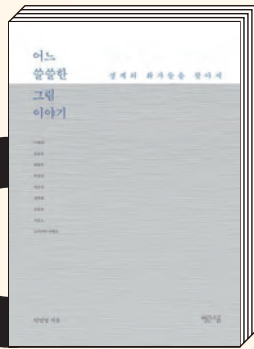
※opening 9월 2일(토) 오후 3:00



부산 백년길, 오년의 삭제

이준영 지음 / 호밀밭 / 1만6,800원

부산은 바다가 둘러싸고 있다. 바다가 보여주는 경관은 모든 사람의 것이다. 하지만 언젠가부터 오션뷰를 내세우는 고층 아파트들이 차지해버렸다. 이 책은 도시 재개발이라는 미명 아래 마구잡이로 굴을 뚫고, 다리를 놓고, 건물을 올리며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돌아보게 한다. 이준영 저자는 부산일보사에서 일선 기자와 논설위원 역할을 주로 맡았다. 지금은 일선 선임기자로 활동하는 저자가 부동산 개발에 스러져 가는 부산의 길을 걸었다. 2018년에 한 번, 2023년에 또 한 번 부산의 곳곳을 걸으며 오년이란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부산의 길이 지워졌는지, 무엇이 사라졌고 무엇이 우리에게 아직 남아 있는지 훑어보았다. 이 책은 총 3부로 구성되었다. 1부 <눈을 의심케 하는 도심 속 황토 벌판>은 재개발과 아파트 공사로 황폐화된 7곳에 대해서, 2부 <망각을 바라는 흔적 유실의 현장>에서는 우후죽순 들어서는 건물에 밀려나고 지워진 옛길에 담긴 추억과 사연을, 3부 <파도가 덮치는 몽돌이 쓸리는 해조음>에서는 과거와 현대, 변화와 정체 사이에 놓인 다양한 도시의 흔적을 다루었다. 개발과 매립으로 사라진, 부산의 21곳을 기리는 길 위의 사회학이다.



어느 쓸쓸한 그림 이야기

안민영 지음 / 빨간소금 / 1만7,000원

해방과 한국전쟁을 거친 후 많은 사람들이 무사히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거나, 뜻하지 않은 역사의 후폭풍을 겪었다. 이 책에 소개된 화가들도 그런 사람들이다. 북으로 갔거나, 한반도에 살지 않았으나 우리 역사의 한편에 있었던 화가들인데 조금은 낯설다. 고등학교에서 역사를 가르치는 미술사학자 안민영은 이들을 '경계의 화가'라 부른다. 이쾌대 임군홍 김용준은 월북화가, 변월룡 신순남은 고려인 화가, 전화황은 재일조선인 화가, 박경란 이응노는 남한에서 태어나 각각 북한과 유럽에서 활동한 화가, 도미야마 다에코는 일본인으로서 한국 문화에 관심을 기울인 화가이다. 이들은 고향에 따라, 활동 지역에 따라, 성별에 따라 다른 경계선을 마주하며 살았다. 삶은 순탄치 않았던 삶은 작품에도 투영됐다. 저자는 작품에서 화가의 마음을 읽고, 생애를 읽고, 그가 살아간 역사를 읽어냈다. 화가가 남긴 흔적을 찾기 위해 국내외 아카이브를 뒤지고 경매 사이트를 살펴, 화가의 남겨진 가족을 만나기도 했다. 그렇게 읽어낸 그림을 차분하게 들려준다. 경계에 선 자만이 느끼는 불안함과 두려움, 아득한 감정은 공통으로 전해진다. 그림을 통해 우리 역사를 읽어낼 수도 있다.



한류를 이해하는 33가지 코드

박숙희 지음 / 지성사 / 4만5,000원

K-팝, K-영화, K-드라마, K-골프, K-클래식, K-발레, K-푸드, K-게임, K-뷰티, K-패션, K-사우나, K-방역... 'K'로 수식되는 분야가 점점 많아지고 있다. 자랑스러운 한편으로는 왜 한류가 세계를 뒤흔들고 있는지 궁금하다. 어느 날 갑자기 시작된 것이 아닐 게다. 이 책은 한류 열풍의 뿌리에 대해 이야기한다. 저자 박숙희 씨는 지난 27년간 뉴욕에서 살았다. 1996년부터 뉴욕중앙일보 문화 담당 기자로 일했고, 뉴욕의 문화정보 웹사이트 뉴욕컬처비트(www.NYCultureBeat.com)를 운영하고 있다. 저자는 뉴욕에서 취재하며 한류의 현장을 목격해온 결과물로 이 책 <한류를 이해하는 33가지 코드: 방탄소년단(BTS), '기생충' 그리고 '오징어 게임'을 넘어서>를 펴냈다. BTS, '기생충', '오징어 게임' 외에도 한류에 공헌해온 수많은 한인에 주목하며 한국인의 정체성과 한국 문화의 역동성을 독해하는 키워드를 33가지로 정리했다. 우리 민족 고유인 한(恨)과 음주가무를 비롯해 빨리빨리, 눈치, 풍자와 해학, 저항 정신, 한글, 백의민족, 전통놀이, 김치와 고추장, 비빔밥, 쇠젓가락, 보자기, 보따리, 보쌈, 강인한 여성 등 세계를 뒤흔들고 있는 한류의 뿌리를 탐색한다.

(재)부산문화회관×부산문화재단 특별강연 <공감, 4인 4색> 개최

부산문화재단의 문화예술교육 가치확산 공공기관 협업프로젝트이자 부산시민회관 개관 50주년을 맞은 (재)부산문화회관이 특별강연 <공감, 4인 4색>을 개최한다.

‘공감, 4인 4색’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강연에서는 인간 본성과 기술의 진화를 탐구해온 과학철학자이자 진화학자인 장대익과 드라마 ‘막돼먹은 영애씨’로 우리에게 친숙한 배우 김현숙, ‘도슨트계의 아이돌’이라 불리는 도슨트 정우철, 그리고 전 롯데지언트 야구선수 이대호가 시민들과 만난다.

장대익은 기계공학도로 출발했으나 진화생물학에 매료되어 서울대학교 과학학과 대학원에서 진화학과 생물철학을 공부했으며, 서울대학교 자유전공학부 교수를 역임하고 현재는 서울대학교 초학제 교육 SI 연구센터 센터장으로 있다. 다양한 지적 전통을 거치며 이질적인 학문을 아우르려 했던 경험이 자연스럽게 인간 정신의 독특성인 공감에 대한 통섭 연구로 이어지면서 이번 강의에서는 혐오와 분열의 시대, ‘진정한 공감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관객과 이야기 나눈다.

드라마 ‘막돼먹은 영애씨’에서 예쁘지 않고 뚱뚱하지만 세상의 편견에 시원하게 맞서는 주인공 이영애 역을 맡아 2007년부터 2019년까지 12년간 시즌 17까지 출연했던 배우 김현숙은 현재는 이혼 후 아들을 양육하는 싱글맘으로, 이번 강연에서는 세상의 편견에 시원하게 맞서는 당당하고 멋진 육아맘의 삶에 대해 이야기한다.

최근 TV예능프로그램 ‘유퀴즈’에 출연하여 화제를 모은 정우철은 그를 보러 미술관에 찾아가갈 정도로 관객들을 사로잡고 있는 전시해설사로, 특히 EBS 클래스 e의 ‘도슨트 정우철의 미술극

장’은 최고의 조회수를 기록하기도 했다. 작품 분석이 주를 이루던 기존의 미술 해설에서 벗어나 화가의 삶을 들려주는 방식으로 관객들을 매료시켰던 정우철은 이번 강연에서 한 폭의 그림 같은 화가들의 인생과 그림 이야기를 들려준다.

롯데지언트 4번 타자로 활약하다가 2022년 시즌을 끝으로 은퇴한 후 지금은 그라운드 밖에서 방송으로 대중에게 한발 더 가까이 다가가고 있는 이대호는 2006년 타격 3관왕, 2010년 KBO 최초 타격 7관왕이라는 역대 최고 타이틀을 지닌 대한민국 대표 타자로, 2008년 베이징올림픽 우승, 2009년 WBC 준우승, 2015년 프리미어12 우승 등 국제 대회에 출전할 때마다 굵직한 성적을 거두며, 거인의 자존심을 넘어 ‘조선의 4번 타자’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다. 이번 강연에서는 평생 야구밖에 몰랐던 ‘야구 선수 이대호’가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면서 ‘인간 이대호’로 새롭게 서기 위한 새로운 도전에 대해 이야기한다.



- 10월 18일(수) 오전 11:00 장대익 교수
- 10월 19일(목) 오전 11:00 김현숙 배우
- 10월 20일(금) 오전 11:00 정우철 도슨트
- 10월 21일(토) 오후 2:00 이대호 야구선수

- 강연장소: 부산시민회관 소극장
- 입장료: 전석 2만 원
(초등학생 이상,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 문의: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2023년 부산시립예술단 숏폼 콘텐츠 공모전

2023. 7. 24.월
~ 9. 24.일



**부산 문화예술의 중심, 부산을 대표하는 문화예술단체인
부산시립예술단의 매력을 1분 안에 담아내주세요!**

● 공모주제

- 부산시립예술단의 매력을 1분 안에 담은 영상
- 부산시립예술단을 홍보하는 1분 영상
- 부산시립예술단에 대한 애정을 담은 1분 영상

● 참가자격

부산시립예술단에 관심 있는 누구나 참여 가능(개인 또는 팀)

● 참가방법

- 1분 내외의 짧은 세로형 영상을 본인 영상 플랫폼에 게시 (필수 해시태그 포함)
※ 필수 해시태그 : #부산시립예술단 #부산시립예술단숏폼공모전
- 해당 게시물 URL을 구글 폼으로 제출
- 1인(또는 1팀)당 최대 3개 작품 출품 가능(중복 수상 불가)

● 제출형식

- 영상장르 : 장르불문(브이로그, 패러디, 애니메이션, 스케치코미디 등)
- 영상장비 : 제한 없음
- 영상길이 : 작품 길이 60초 내외, 최대 90초 미만
- 파일형식 : mov, mp4 등 동영상 파일 형식
- 해상도 : 1080p(1920*1080픽셀) 이상의 세로형 영상
※ 출품 규격에 맞지 않는 출품작은 탈락 또는 감점 처리

● 시상내역

구분	상금(상품)	수상 인원	비고
최우수상	1,000,000원	1명(팀)	
우수상	500,000원	3명(팀)	
장려상	300,000원	5명(팀)	
참가상	모바일 쿠폰(2만원 상당)	30명(팀)	랜덤 추첨
합계	총 4,100,000원	39명(팀)	

※ 심사기준 미달 시 시상 규모 변동될 수 있음

※ 제세공과금 발생 시 본인부담

● 수상작 발표 및 시상식 : 10월 초(예정)

● 문의

부산시립예술단 공연사업팀
051) 607-3112 또는 beautifully44@bscc.or.kr

부산시 학생 문화공연 관람 지원사업

어릴적藝 공연작품 모집

모집일정

공고기간 : 2023. 8. 7.(월) ~ 2023. 9. 10.(일)

접수기간 : 2023. 8. 28.(월) ~ 2023. 9. 10.(일)

지원자격

- 학생들이 관람하기에 적합한 연극, 뮤지컬, 음악, 무용, 전통예술, 다원예술 등 작품을 자체기획·제작 또는 보유하고 있는 부산 지역 예술단체·기관(공공기관 포함)
※ 단, 지역 예술단체가 신청한 외부지역 작품일 경우, 선정은 10% 이내로 제한
- 2024년 부산시 내 공연장에서 자체기획공연, 지원사업 연계공연 예정이거나 확보된 공연계획은 없으나, 대관공연장 확보 시 부산시 내 공연장에서 공연이 가능한 단체
- 최근 2년간 관련분야 활동실적이 있는 문화예술단체

공연조건

- 초·중·고 학생 맞춤 공연으로 학생들의 감수성과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작품
- 1회 60분 이내로 오전 수업시간 연계 가능한 공연

신청방법

온라인 이메일 접수(arts_edu2024@bscc.or.kr)

공연일정

2024년 3월~12월 학기 중

공연대상

부산 시내 초·중·고 학생 대상

공연장소

부산 시내 공연장

문의

- 전화 : 부산시립예술단 공연사업팀 (051)607-3110, 3112
- 이메일 : arts_edu2024@bscc.or.kr
- ※ 자세한 내용은 (재)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www.bscc.or.kr) 에서 확인하세요.



BSCC

P R O G R A M

(재)부산문화회관·부산시립예술단 2023 시즌 프로그램

예매 방법

온라인 예매 | (재)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www.bscc.or.kr)에서 24시간 예매 가능합니다.

※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로 인터넷 및 모바일 예매 시, 1,000원 추가 할인

전화예매 | 고객센터(Tel.051-607-6000)로 전화하시면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예매 가능합니다.

한국어 문의 | ARS 1번 외국어 문의 | ARS 2번

티켓수령 | 관람 당일 공연장 로비 매표소에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예매 취소 및 변경

취소·변경 안내 (재)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www.bscc.or.kr) 또는 전화(051-607-6000)로 예매 취소나 변경이 가능합니다.

예매는 공연 전날 14시에 종료되며, 취소는 공연 전날 17시까지 가능합니다. 이후, 취소 및 변경은 불가합니다.

취소내역은 홈페이지의 '마이 페이지'에서 반드시 본인이 확인하셔야 합니다.

수수료 티켓환불규정에 따라 수수료가 일부 발생할 수 있으며, 공연 당일에는 취소, 변경,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구분	취소수수료	비고
공연 7일 전~2일 전까지	티켓 가격의 10% 공제 후 환불	• 예매 당일 취소 시, 수수료 없이 전액 환불(단, 공연 당일 불가) • 예매 마감은 공연 1일 전 14:00 • 취소 마감은 공연 1일 전 17:00
공연 1일 전 취소마감 17시까지	티켓 가격의 20% 공제 후 환불	
취소마감 17시 이후 부터 공연당일	취소 및 환불 불가	

※ 프로그램 일정 및 내용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재)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www.bscc.or.kr)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매·문의 : 051) 607-6000(ARS 1번)

2023. 7-12월

July - December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 **문화** 부산문화회관 / **시민** 부산시민회관

부산문화회관

소프라노와 12명의 첼리스트가 빚어내는 천상의 하모니
조수미 & 베를린 필 12 첼리스트

문화 | 대극장 2023. 7. 4.(화) 7:30pm
VIP 160,000원 R 120,000원 S 80,000원

※만 7세 이상 관람

• 출연 | 소프라노 조수미, 베를린 필 12첼리스트



미술관 옆 오페라하우스 II
운명을 불사른 정열의 붉은꽃
오페라 <카르멘>

문화 | 중극장 2023. 7. 13.(목) 7:30pm
R 50,000원 S 30,000원

※만 7세 이상 관람

• 미술관장역 | 이주현

• 오페라 해설가역 | 손지현



제주시아트센터·제주4·3평화재단 공동기획 및 제작
4·3창작오페라 <순이삼촌>

문화 | 대극장 2023. 8. 19.(토) 3:00pm

무료 ※티켓오픈 추후공지, 초등학생 이상 관람

• 총감독, 연출 | 강혜명

• 원작 | 현기영

• 대본 | 김수열

• 작곡 | 최정훈

• 출연 | 부산시립합창단,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극단가람, 밀물현대무용단, 순이삼촌오페라합창단



호기심을 자극하는 그림자극과
클래식 음악이 함께하는 공연

음악동화 그림자극 <피터와 늑대>

문화 | 사랑채 2023. 8. 18.(금)-9. 24.(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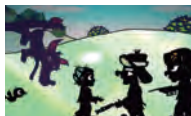
평일 11:00am 주말 11:00am, 2:00pm

※월-화요일 공연없음

전석 20,000원 ※36개월 이상 관람

• 제작 | 극단 영

• 출연 | 최진희, 원우연, 이승, 이한강, 이명진 외



2023년 문예회관과 함께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 사업
KBS 성우 정구염마 송연희가 들려주는 동화발레

잠자는 숲속의 미녀

문화 | 중극장 2023. 8. 20.(일) 11:00am, 3:00pm
R 40,000원 S 20,000원 ※만 5세 이상 관람



2023 부산 오페라 시즌
오페라 <토스카>

문화 | 대극장 2023. 8. 26.(토)-27.(일) 3:00pm
VIP 100,000원 R 80,000원 S 60,000원 A 40,000원
※8세 이상 관람

• 작곡 | G.푸치니 • 연출 | 정선영

• 지휘 | 김현수

• 합창·연주 | 2023부산오페라하우스 합창단·오케스트라



미술관 옆 오페라하우스 II
기다림과 불멸의 또 다른 이름, 사랑
오페라 <나비부인&투란도트>

문화 | 중극장 2023. 8. 31.(목) 7:30pm
R 50,000원 S 30,000원

• 미술관장역 | 이주현

• 오페라 해설가역 | 손지현



선물처럼 찾아온 특별한 하루!
뮤지컬 <이상한 엄마>

문화 | 중극장 2023. 9. 9.(토)-10.(일)
11:00am, 2:00pm, 4:00pm
R 60,000원 S 40,000원

※12개월 이상 관람

※티켓오픈 추후공지

• 원작 | 백지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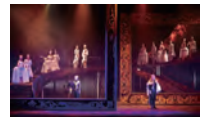
© 할리퀸크리에이션즈(주)

세기의 오페라 대결이 시작된다!
뮤지컬 <파리넬리>

문화 | 대극장 2023. 9. 23.(토)-24.(일)
2:00pm, 6:00pm

R 88,000원 S 77,000원 A 66,000원

※중학생 이상 관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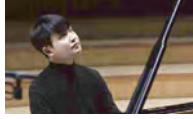
2023 월드 피아니스트 시리즈
안드라스 쉬프

문화 | 대극장 2023. 10. 4.(수) 7:30pm



월드 콩쿠르 우승자 시리즈 IV
선우예권 피아노 리사이틀

문화 | 대극장 2023. 10. 6.(금) 7:30pm
R 60,000원 S 40,000원 A 20,000원



예측할 수 없고 알려지지 않은 무언가에 온 맘이 들끓어
뮤지컬 <마리 퀴리>

문화 | 대극장 22023. 10. 14.(토)-15.(일)
VIP 99,000원 R 88,000원 S 66,000원

※중학생 이상 관람
※공연회차, 출연진 및 티켓오픈 추후공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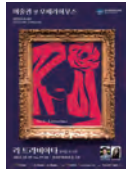
- 프로듀서 | 강병원
- 극작 | 천세은
- 작곡 | 최종윤
- 연출 | 김태형
- 안무 | 신선호
- 음악감독 | 신은경
- 제작 | 라이브(주)



미술관 옆 오페라하우스 III
동백꽃 질 무렵
오페라 <라 트라비아타>

문화 | 중극장 2023. 10. 19.(목) 7:30pm
R 50,000원 S 30,000원 ※만 7세 이상 관람

- 미술관장역 | 이주현
- 오페라 해설가역 | 손지현



2023년 문예회관과 함께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 사업
익숙하고 편안한 음악을 통한 추억 여행
<모던 애프터눈>

문화 | 챔버홀 2023. 10. 21.(토) 5:00pm
전석 20,000원 ※초등학생 이상 관람

- 출연 | 김소영, 박강현, 이호찬, 오신영



부산 지역 예술단체의 저력을 볼 수 있는 공연예술축제
2023 부산공연콘텐츠페스타

문화 | 중극장 2023. 11. 2.(목), 5.(일), 9.(목)



NHK 다큐멘터리 '대황하'의 주인공
오카리나의 장인 <소지로 내한공연>

문화 | 대극장 2023. 11. 9.(목) 7:30pm
R 40,000원 S 20,000원 ※초등학생 이상 관람



2023 대학 교향악 축제

문화 | 대극장 2023. 11. 18.(토)-26.(일)

평일 7:30pm, 주말 3:00pm
전석 10,000원 ※티켓오픈 추후공지

- 11. 18.(토) 3:00pm | 경상대학교
- 11. 19.(일) 3:00pm | 동의대학교
- 11. 24.(금) 7:30pm | 인제대학교
- 11. 25.(토) 3:00pm | 동아대학교
- 11. 26.(일) 3:00pm | 부산대학교



2023 월드 피아니스트 시리즈
유자 양

문화 | 대극장 2023. 11. 28.(화) 7:30pm



공개 오디션을 통한 청년 희망 날개 프로젝트
부산, 노래로 하나되다

문화 | 대극장 2023. 12. 2.(토) 5:00pm
전석 30,000원

- ※초등학생 이상 관람, 티켓오픈 추후공지
- 출연 | 청년 성악가(공모) 및 부산성악가협회원



평범한 오늘 시작된 특별한 시간여행
뮤지컬 <렛미플라이>

문화 | 중극장 2023. 12. 15.(금)-16.(토)
평일 7:30pm, 주말 3:00pm

R 60,000원 S 50,000원 ※8세 이상 관람

- 작 | 조민형
- 작곡 | 민찬홍

- 연출 | 이대웅



러시아 극작가 안톤 체홉의 대표작!
시나위의 감성으로 풀어낸 명작의 연극미학
<벚꽃동산>

문화 | 중극장 2023. 12. 22.(금)-23.(토)
평일 7:30pm, 주말 3:00pm

R 30,000원 S 20,000원 ※14세 이상 관람

- 작 | 안톤 체홉
- 연출 | 이기호
- 기획 | 극연구집단 시나위
- 출연 | 박상규, 우명희, 박창화 외 11명



2023 월드 피아니스트 시리즈
크리스티안 짐머만

문화 | 대극장 2023. 12. 27.(수) 7:30pm



예술의전당 우수 예술콘텐츠 상영프로젝트
배시시 명품극장

시민 | 소극장 2023. 6. 28.(수), 8. 30.(수),
10. 25.(수), 11. 29.(수) 매주 수요일 7:00pm
무료



2030세계박람회 부산유치기원 페스티벌!
부산버스킹페스타

시민 | 소극장 2023. 7. 1.(토) 3:00pm
전석 20,000원

- 출연 | 2023년 버스킹 예선 통과팀(10개팀)
- 예술감독 | 김종근
- 협력 | 부산정보산업진흥원, 2030부산월드엑스포범시민유치위원회
- 게스트 | 디핑크



한때 우리는 모두 '야구왕'이었다!
뮤지컬 <야구왕 마린스>

시민 | 대극장 2023. 7. 5.(수)-16.(일)
수·목요일 10:30am, 금요일 7:30pm,
토요일 11:00am, 2:00pm, 일요일 11:00am
VIP 70,000원 R 50,000원 S 30,000원
※5월 10:20am, 12월 2:00pm(월·화 공연없음)
※48개월 이상 관람
• 작 | 김정민 • 음악감독 | 성찬경
• 연출 | 이대웅



관객과 평단을 동시에 사로잡은 수작!
연극 <12인의 성난 사람들>

시민 | 소극장 2023. 7. 7.(금) ~ 8.(토)
평일 7:30pm, 주말 3:00pm 부산시민회관 소극장
전석 20,000원 ※중학생 이상 관람
• 작가 | 레지날드 로즈(Reginald Rose) • 연출 | 류주연
• 번역 | 김용준
• 출연 | 이현경, 오재균, 민병욱, 최명경, 이재인, 방기범, 김애진, 반인환, 홍성호,
김용식, 김서아, 황비호, 허준호
• 후원 | 예술경영지원센터



어른들을 위한 그때 그 시절 이야기!
연극 <검정 고무신>

시민 | 소극장 2023. 7. 22.(토) 3:00pm
전석 20,000원 ※8세 이상 관람
• 제작 | 극단 예저또
• 작 | 김지연 • 연출 | 최재민



부산시민들의 유쾌한 문화놀이터
2023 시민뜨락축제

장소 미정 2023. 8. 19.(토)-9. 2.(토)
매주 토요일 12:20pm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무료



디즈니의 마법, 그 이상을 경험하다!
**2023 디즈니 인 콘서트:
Beyond The Magic**

시민 | 대극장 2023. 8. 26.(토) 3:00pm
VIP 100,000원 R 80,000원 S 60,000원 A 40,000원
※48개월 이상 관람
• 출연 | 디토 오케스트라, 디즈니 싱어즈(신재범, 김환희, 이종석, 홍경아 외)



2023 부산 인터내셔널 뮤직페스타(BIMF)
디바(Diva) in 재즈

시민 | 대극장 2023. 9. 1.(금)-2.(토)
평일 7:00pm, 주말 3:00pm

R 80,000원 S 50,000원 A 30,000원 ※8세 이상 관람
• 출연 | 이은미&민경인트리오, 말로, 시호&시게키, 최은아, 위나&조운성트리오,
이효정



2023년 국립발레단이 야심차게 선보이는 신작,
부산에서 만나자!
발레 <돈키호테>

시민 | 대극장 2023. 9. 16.(토)-17.(일)
토요일 5:00pm, 일요일 2:00pm
VIP 90,000원 R 70,000원 S 40,000원 A 20,000원
• 음악 | 루트비히 밍쿠스 • 원안무 | 마리우스 프티파
• 재안무 | 송정빈 • 각색 | 정다영
• 작, 편곡 | 김인규
• 주최 | (재)부산문화회관, (주)화승



©손자일

도이치방송오케스트라 (with 손열음)

시민 | 대극장 2023. 9. 19.(화) 7:30pm
R 140,000원 S 110,000원 A 80,000원
• 지휘 | 피에타리 잉키넨 • 피아노 | 손열음



부산시민회관 개관 50주년 기념
위대한 유산

시민 | 대극장 2023. 10.10(화) 19:30



관객이 뽑은 '국립극단에서 보고 싶은 연극 1위'
연극 <조씨고아, 복수의 씨앗>

시민 | 대극장 2023. 11. 3.(금)-4.(토)
평일 7:30pm, 주말 3:00pm
R 50,000원 S 30,000원 ※14세 이상 관람
• 원작 | 기군상 • 각색, 연출 | 고선웅



동화구연을 활용한 우화와 무용의 만남!
무용 <여우와 돌고래>

시민 | 소극장 2023. 11. 18.(토) 3:00pm
전석 20,000원 ※36개월 이상 관람
• 안무 | 임진호, 이경구 • 드라마트루그 | 지경민
• 제작 | 고블린파티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특별공연

※ **문화** 부산문화회관 / **시민** 부산시민회관

부산시립교향악단

기획음악회

부산시향의 심포니야(夜) I

문화 | 대극장 2023. 1. 18.(수) 7:30pm
전석 10,000원

• 지휘 최수열 | 해설 이준형



제596회 정기연주회

신년음악회

문화 | 대극장 2023. 1. 19.(목) 7:30pm
R 20,000원 S 15,000원 A 10,000원 B 5,000원

• 지휘 최수열 | 첼로 심준호



기획음악회

부산시향의 실내악 공장 I

문화 | 챔버홀 2023. 2. 3.(금) 7:30pm
전석 10,000원



제597회 정기연주회

사랑의 죽음

문화 | 대극장 2023. 2. 21.(화) 7:30pm
R 20,000원 S 15,000원 A 10,000원 B 5,000원

• 지휘 홍석원



기획음악회

부산시향의 줄인 I

문화 | 챔버홀 2023. 3. 3.(금) 7:30pm
전석 10,000원



기획음악회

부산시향의 심포니야(夜) II

문화 | 대극장 2023. 3. 21.(화) 7:30pm
전석 10,000원

• 지휘 최수열 | 해설 이준형



기획음악회

미완성음악회 I *오픈리허설

문화 | 대극장 2023. 3. 22.(수) 7:30pm
전석 5,000원

• 지휘 최수열 | 피아노 손민수(2023 올해의 예술가)



제598회 정기연주회

브람스의 마지막 교향곡

문화 | 대극장 2023. 3. 23.(목) 7:30pm
R 30,000원 S 20,000원 A 10,000원

• 지휘 최수열 | 피아노 손민수(2023 올해의 예술가)



제599회 정기연주회

멘델스존과 버르토크

문화 | 대극장 2023. 4. 21.(금) 7:30pm
R 20,000원 S 15,000원 A 10,000원 B 5,000원

• 지휘 금노상
• 바이올린 나승준(2023 정기연주회 오디션 합격자)



기획음악회

부산시향의 실내악 공장 II

문화 | 챔버홀 2023. 5. 4.(목) 7:30pm
전석 10,000원



기획음악회

우리아이음악회

문화 | 대극장 2023. 5. 19.(금) 11:00am, 7:30pm
전석 10,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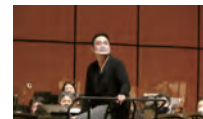


기획음악회

미완성음악회 II *오픈리허설

문화 | 대극장 2023. 6. 14.(수) 7:30pm
전석 5,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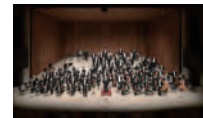
• 지휘 최수열



기획음악회

BPO Odyssey

문화 | 대극장 2023. 6. 15.(목) 7:30pm
전석 10,000원



제600회 정기연주회

말리의 마지막 교향곡

문화 | 대극장 2023. 6. 16.(금) 7:30pm
R 30,000원 S 20,000원 A 10,000원

• 지휘 최수열



제601회 정기연주회

쇼스타코비치와 프로코피예프

문화 | 대극장 2023. 7. 21.(금) 7:30pm
R 20,000원 S 15,000원 A 10,000원 B 5,000원

• 지휘 서진 | 바이올린 김재원



기획음악회

부산시향의 심야음악회 I

문화 | 대극장 2023. 8. 18.(금) 9:00pm
전석 10,000원

• 지휘 백승현 | 첼로 정우찬



제602회 정기연주회(2023 부산마루국제음악제 메인콘서트)

네 개의 프랑스 관현악

문화 | 대극장 2023. 9. 7.(목) 7:30pm
R 20,000원 S 15,000원 A 10,000원 B 5,000원

• 지휘 최수열 | 바이올린 올리비에 샤를리에



제603회 정기연주회

부산시향의 차이콥스키

시민 | 대극장 2023. 9. 22.(금) 7:30pm
R 20,000원 S 15,000원 A 10,000원 B 5,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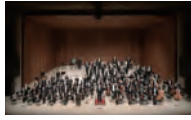
• 지휘 백승현 | 피아노 세르게이 타라스프



기획음악회

제79회 청소년 협주곡의 밤

문화 | 중극장 2023. 10. 6.(금) 7:30pm
전석 5,000원



기획음악회

부산시향의 심포니아(夜)III

문화 | 중극장 2023. 10. 25.(수) 7:30pm
전석 10,000원

• 지휘 최수열 | 해설 이준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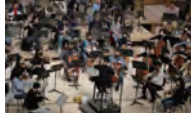


기획음악회

미완성음악회III *오픈리허설

문화 | 중극장 2023. 10. 26.(목) 7:30pm
전석 5,000원

• 지휘 최수열



제604회 정기연주회

손민수의 브람스 협주곡

문화 | 중극장 2023. 10. 27.(금) 7:30pm
R 20,000원 S 15,000원 A 10,000원 B 5,000원
• 지휘 최수열 | 피아노 손민수(2023 올해의 예술가)



기획음악회

부산시향의 줌인I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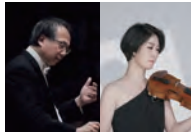
문화 | 챔버홀 2023. 11. 3.(금) 7:30pm
전석 10,000원



제605회 정기연주회

프로코피예프와 라흐마니노프

문화 | 대극장 2023. 11. 17.(금) 7:30pm
R 20,000원 S 15,000원 A 10,000원 B 5,000원
• 지휘 샤오치아 휘 | 바이올린 백주영



기획음악회

부산시향의 심야음악회II *오픈리허설

문화 | 중극장 2023. 12. 1.(금) 9:00pm
전석 10,000원

• 피아노 손민수(2023 올해의 예술가)



기획음악회

미완성음악회IV *오픈리허설

문화 | 대극장 2023. 12. 13.(수) 7:30pm
전석 5,000원

• 지휘 최수열



제606회 정기연주회

영웅의 생애

문화 | 대극장 2023. 12. 14.(목) 7:30pm
R 20,000원 S 15,000원 A 10,000원 B 5,000원
• 지휘 최수열



부산시립합창단

특별연주회

유명지휘자 초청연주회 I '사랑의 노래'

문화 | 중극장 2023. 3. 23.(목) 7:30pm
전석 10,000원

• 지휘 임창은 | 클라리넷 이효주
• 바이올린 이소정 | 타악 성형원



특별연주회

어린이 뮤지컬 '옛날 옛적에'

문화 | 대극장 2023. 5. 4.(목) 7:30pm, 5.(금) 11:00am
R 20,000원 S 10,000원
• 지휘 이기선



제190회 정기

모차르트 레퀴엠

문화 | 대극장 2023. 6. 22.(목) 7:30pm
R 30,000원 S 20,000원 A 10,000원
• 지휘 이기선



특별연주회

2023 Summer Fantasy

문화 | 대극장 2023. 7. 20.(목) 7:30pm
전석 10,000원
• 지휘 임희준



특별연주회

유명지휘자 초청연주회 II

문화 | 중극장 2023. 9. 21.(목) 7:30pm
전석 10,000원
• 지휘 손동헌



특별연주회

제34회 부산합창제

문화 | 대극장 2023. 10. 17.(화)-19.(목) 7:00pm
무료



특별 및 교류연주회

현대합창의 밤

문화 | 대극장 2023. 10. 20.(금) 7:30pm
전석 10,000원



제191회 정기

멘델스존 엘리야

문화 | 대극장 2023. 11. 23.(목) 7:30pm
R 30,000원 S 20,000원 A 10,000원
• 지휘 이기선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특별연주회

2023 신년음악회

문화 | 챔버홀 2023. 2. 2.(목) 7:30pm
 전석 10,000원
 • 사회 백규진



특별연주회

감각, 생명

문화 | 대극장 2023. 3. 31.(금) 7:30pm
 R 20,000원 S 10,000원



특별연주회

Muy bien, 열씨구 좋다!

문화 | 중극장 2023. 4. 28.(금) 7:30pm
 R 20,000원 S 10,000원



제219회 정기연주회

Insight Music: 통찰의 시간

문화 | 대극장 2023. 5. 18.(목) 7:30pm
 R 20,000원 S 10,000원



특별연주회

퇴근길 음악회, 국악 힐링 타임

문화 | 챔버홀 2023. 6. 22.(목) 7:30pm
 전석 10,000원



제220회 정기연주회

예술감독 이동훈 취임연주회

문화 | 대극장 2023. 7. 27.(목) 7:30pm
 R 20,000원 S 10,000원



제221회

정기연주회

문화 | 대극장 2023. 9. 13.(수) 7:30pm
 R 20,000원 S 10,000원



특별연주회

제48회 청소년 협연의 밤

시민 | 대극장 2023. 10. 26.(목) 7:30pm
 전석 5,000원



제222회

정기연주회

문화 | 대극장 2023. 11. 16.(목) 7:30pm
 R 20,000원 S 10,000원



제223회

정기연주회

문화 | 대극장 2023. 12. 12.(화) 7:30pm
 R 20,000원 S 10,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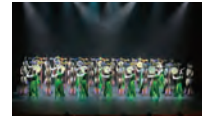


부산시립무용단

창단 50주년 기념 특별공연

The 50_Time to Dance

시민 | 대극장 2023. 2. 25.(토) 3:00pm
 전석 20,000원



제87회 정기공연

1002 Nights_천 두번 째의 밤

시민 | 대극장 2023. 5. 12.(금)-13.(토)
 금요일 7:30pm, 토요일 4:00pm
 R 30,000원 S 20,000원

- 안무 이정운(부산시립무용단 예술감독)
- 지휘 최수열(부산시립교향악단 예술감독)
- 협연 부산시립교향악단



특별공연회

이정운의 댄스살롱_The50/그 동안

문화 | 중극장 2023. 7. 22.(토) 5:00pm



제88회 정기공연

The Legacy

문화 | 대극장 2023. 10. 27.(금)-28.(토)
 금요일 8:00pm, 토요일 4:00pm
 R 30,000원 S 20,000원
 • 안무 이정운(예술감독)



특별공연

안무가 육성 프로젝트 '디딤&Step'

문화 | 중극장 2023. 12. 8.(금)-9.(토)
 금요일 8:00pm, 토요일 4:00pm



부산시립극단

특별공연

어린이 뮤지컬 아카데미 '피터팬'

문화 | 중극장 2023. 2. 25.(토) 4:00pm, 7:00pm
 2. 26.(일) 1:00pm, 4:00pm
 전석 10,000원
 • 원작 J.M.배리 | 각색 강보람
 • 작곡 전현미 | 연출 김지용



제74회 정기공연

집집·하우스 소나타

문화 | 중극장 2023. 3. 30.(목)-4. 1.(토)
 평일 7:30pm, 주말 5:00pm
 전석 20,000원
 • 작 한현주 | 연출 주혜자



특별공연

뮤지컬 '미운오리새끼'

문화 | 사랑채 2023. 5. 3.(수)-28.(일)
• 원작 H.C.안데르센 | 각색 신서영
• 작곡 진소영 | 연출 김지영



특별공연

소년B가 사는 집

시민 | 소극장 2023. 6. 14.(수)-17.(토)
수·목요일 10:30am, 2:00pm(단체관람),
금요일 10:00am, 2:00pm(단체관람), 7:30pm, 토요일 5:00pm
전석 20,000원
• 극작 이보람 | 연출 최용혁



제75회 정기공연

스타프로젝트 <극작가-김문홍전>

안개주의보-강성우/사자의 편지-윤준기
목련꽃 그늘 아래서-권상우

시민 | 소극장 2023. 9. 7.(목)-9(토), 14.(목)-16.(토),
21.(목)-23.(토) 평일 7:30pm, 토요일 5:00pm



제76회 정기공연

크리스마스 캐롤

문화 | 대극장 2023. 12. 7.(목)-10.(일)
평일 7:30pm, 주말 5:00pm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제70회

정기공연

문화 | 대극장 2023. 3. 28.(화) 7:30pm
전석 2,000원



특별연주회

2023 솔로리스트들의 축제

문화 | 대극장 2023. 5. 23.(화) 7:30pm
전석 5,000원



특별연주회

유망주 음악회

문화 | 챔버홀 2023. 6. 17.(토) 5:00pm
무료



특별연주회

유망주 음악회

문화 | 챔버홀 2023. 7. 22.(토) 5:00pm
무료



특별연주회

문화 | 대극장 2023. 10. 31.(화) 7:30pm
전석 2,000원



특별연주회

유망주 음악회

문화 | 챔버홀 2023. 11. 11.(토) 7:30pm
전석 2,000원



제72회

정기연주회

문화 | 대극장 2023. 12. 26.(화) 7:30pm
전석 2,000원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특별연주회

우리들의 작은 음악회 '희망을 노래하다'

문화 | 챔버홀 2023. 2. 21.(화) 7:30pm
초대



특별연주회

가정의 달에 부르는 우리들의 노래

문화 | 챔버홀 2023. 5. 27.(토) 5:00pm
무료



제161회 정기연주회

수석지휘자 천경필 취임연주 함께 또 같이

문화 | 대극장 2023. 9. 9.(토) 5:00pm
R 3,000원 S 2,000원



특별연주회

제34회 부산청소년합창제

문화 | 대극장 2023. 11. 3.(금) 7:30pm,
11. 4.(토) 5:00pm
무료



제164회

정기연주회

문화 | 대극장 2023. 12. 16.(토) 5:00pm
전석 2,000원



(재)부산문화회관 **VIP회원**에게만 드리는

특별한 혜택



우크라이나 이바노프랭키 필하모니 챔버 오케스트라 초청 음악회 **종료**

6월 28일(수)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R석 40매)

2023 부산버스킹페스타 **종료**

7월 1일(토) 오후 3:00
부산시민회관 소극장(초대권 40매)

조수미 & 베를린 필 12 첼리스트 **종료**

7월 4일(화)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R석 10매)

뮤지컬 <야구왕, 마린스> **종료**

7월 5일(수)-16일(일) 수·목요일 오전 10:30, 금요일 오후 7:30,
토요일 오전 11:00, 오후 2:00, 일요일 오전 11:00
※ 5일 오전 10:20, 12일 오후 2:00(월-화 공연없음)
부산시민회관 대극장(금·일요일 공연에 한해 회차별 R석 20매)

연극 <12인의 성난 사람들> **종료**

7월 7일(금)-8일(토) 평일 오후 7:30, 주말 오후 3:00
부산시민회관 소극장(회차별 초대권 20매)

다양한 할인혜택으로 문화생활의 필수품으로 자리 잡은 (재)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제도는 높은 할인율과 초대권 증정 등 다양한 혜택으로 보다 많은 관람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재)부산문화회관 VIP회원에 가입하시면 지정 기획공연 중 관람권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관람권 사용이 가능한 공연은 월간 예술정보지 <예술의초대>나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www.bscc.or.kr)를 통해 공지되며,

공지된 공연 중 원하는 공연을 선택하셔서 전화로 사전 예약하시면 됩니다.

아래 공연은 2023년 예약이 가능한 기획공연으로 공연예매 시작과 함께 전화로 예약 가능하며 선착순 마감입니다.



미술관 옆 오페라하우스 I

<운명을 불사른 정열의 붉은꽃 - 오페라 카르멘> **종료**

7월 13일(목)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S석 30매)

연극 <검정 고무신> **종료**

7월 22일(토) 오후 3:00
부산시민회관 소극장(초대권 20매)

동화발레 <잠자는 숲속의 미녀> **종료**

8월 20일(일) 오전 11:00, 오후 3:0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회차별 R석 20매)

2023 부산 오페라 시즌 오페라 <토스카> **종료**

8월 26일(토)-27일(일) 오후 3:0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회차별 R석 40매)

2023 디즈니 인 콘서트: Beyond The Magic **종료**

8월 26일(토) 오후 3:00
부산시민회관 대극장(회차별 R석 20매)

미술관 옆 오페라하우스 II <기다림과 불멸의 또 다른 이름, 사랑 - 오페라 나비부인&투란도트> **종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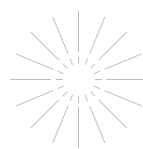
8월 31일(목)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S석 30매)

2023 부산 인터내셔널 뮤직페스타(BIMF) <디바(Diva) in 재즈>

9월 1일(금)-2일(토) 평일 오후 7:00, 주말 오후 3:00
부산시민회관 대극장(회차별 R석 40매)

국립발레단 <돈키호테> **종료**

9월 16일(토)-17일(일) 오후 2:00
부산시민회관 대극장(16일자 공연 5석 20매)



미술관 옆 오페라하우스 III

<동백꽃 질 무렵 - 오페라 라 트라비아타>

10월 19일(목)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S석 30매)

음악을 통한 추억여행 <모던 에프터눈>

10월 21일(토) 오후 5:00
부산문화회관 챔버홀(초대권 20매)

연극 <조씨고아, 복수의 씨앗>

11월 3일(금)-4일(토) 평일 오후 7:30, 주말 오후 3:00
부산시민회관 대극장(회차별 R석 40매)

오페리나의 장인 <소지로 내한공연>

11월 9일(목)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R석 40매)

가족을 위한 무용 동화 <여우와 돌고래>

11월 18일(토) 오후 3:00
부산시민회관 소극장(초대권 20매)

뮤지컬 <렛미플라이>

12월 15일(금)-16일(토) 평일 오후 7:30, 주말 오후 3:0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회차별 S석 20매)

연극 <벚꽃동산>

12월 22일(금)-23일(토) 평일 오후 7:30, 주말 오후 5:0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R석 30매)

* 1인 1매에 한해 예약 가능하며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공연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양해바랍니다.

문의 | 문화예술팀(051-607-6000)



일상에 문화를 더하다, 문화생활의 필수품 (재)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회원가입

가입신청 (재)부산문화회관 051) 607-6200 *평일 09:00~18:00(토·일·공휴일 제외)
 단체가입 할인 20명 이상(10%), 30명 이상(20%), 50명 이상(30%)

공통혜택

- 가입 기간(1년)
- 정기회원 카드발급 우송(10일 이내)
- 월간예술정보지 "예술의 초대" 우송
- 선예매 서비스 제공(일부 공연 제외)
- 공연정보(SMS) 제공(대관공연 제외)
- 문화예술아카데미 수강료 10% 할인
- 부산문화회관 주차요금 50% 할인(입차 시 회원카드 제시)
- 정기회원 전용 라운지 이용(대극장 3층/회원카드 제시 시/음료 등 제공)
- 부산시내 외부 공연 및 대관공연 입장료 할인(주최 측 협의에 한함)



VIP

연 회 비 : 10만원
 초 대 권 : 8매(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기획공연 4매,
 부산시립예술단 5개 단체 공연 4매)
 할인매수 : 6매(공연당)

특별혜택

- 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지정된 기획공연 초대권 4매
- 부산시립예술단공연(5개 단체) 초대권 4매 제공
- 지정된 기획공연, 지정된 객석 수, 지정된 좌석에 따라 선착순 마감
- 부산시립예술단공연은 지정된 객석 수, 선착순 마감
 ※ 초대권은 가입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사용(전화 사전 예약, 선착순 마감)
- 부산문화회관 무료주차권 10매 증정
- 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기획(전시)공연 및 부산시립예술단 공연 입장료 할인(10~50%)
 ※ 지정된 기획공연 안내: 홈페이지 및 월간예술정보지 '예술의 초대' 게재
 ※ 부산시립예술단 5개 단체: 교향악단, 국악관현악단, 합창단, 무용단, 극단



SPECIAL

연 회 비 : 5만원
 초 대 권 : 4매(부산시립예술단 5개 단체 공연 4매)
 할인매수 : 4매(공연당)

특별혜택

- 부산시립예술단공연(5개 단체) 초대권 4매 제공
- 부산시립예술단공연은 지정된 객석 수, 선착순 마감
 ※ 초대권은 가입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사용(전화 사전 예약, 선착순 마감)
- 부산문화회관 무료주차권 6매 증정
- 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기획(전시)공연 및 부산시립예술단 공연 입장료 할인(10~30%)



MEMBER

공연장 관람객
 할인권은
 공연장
 관람객
 전용

연 회 비 : 3만원
 초 대 권 : 2매(부산시립예술단 가입단체 공연 2매)
 할인매수 : 2매(공연당)

특별혜택

- 부산시립예술단공연(5개 단체) 중 가입 단체 초대권 2매 제공
- 부산시립예술단 5개 단체(교향악단, 국악관현악단, 합창단, 무용단, 극단) 중 가입 단체 지정된 객석 수, 선착순 마감
 ※ 초대권은 가입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사용(전화 사전예약, 선착순 마감)
- 부산문화회관 무료주차권 4매 증정
- 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기획(전시)공연 및 부산시립예술단 공연 입장료 할인(10~30%)

(재)부산문화회관 유료회원을 위한 선예매 서비스 제공

(재)부산문화회관에서는 정기(유료)회원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선예매 제도를 도입합니다. 선예매는 일반 예매에 앞서 유료회원에게 사전 예매기간을 제공함으로써 회원들이 보다 좋은 좌석을 미리 예매할 수 있습니다. 대상공연은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및 부산시립예술단 공연(일부 공연 제외)입니다. 부산문화회관은 앞으로도 유료회원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입 문의 : (재)부산문화회관 051)607-6200 *평일 09:00~18:00(토·일·공휴일 제외) ※ 회원가입 취소 시(가입한 날로부터 5일 이내)입장권 구입 시 불가능

비즈니스 성공을 위해 함께 합니다

(재)부산문화회관 법인회원 멤버십

법인회원을 위한 비즈니스 멤버십은 문화 혜택과 더불어 회관의 홍보 채널을 제공합니다.

한 장의 카드로 혜택을 모으고, 문화를 즐기고, 기쁨을 나눕니다.

기업의 품격을 높여줄 재단법인 부산문화회관 비즈니스 멤버십에 가입하세요.

비즈니스 멤버십 주요 혜택

부담은 줄이고 문화는 풍성하게

공연과 전시(20~50%), 아카데미 수강(10%), 회관 주차장(50%) 등을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최고의 혜택과 홍보를 한 번에

회관의 온·오프라인 홍보 채널을 이용해 기업을 홍보할 수 있습니다. 월간 <예술의초대>, 회관 내 DID, 회관 홈페이지 및 SNS를 통해 기업을 홍보하세요.

비즈니스 멤버십 등급별 혜택

등급 (가입기간 1년)	루비 레드 (Ruby Red)	에메랄드 그린 (Emerald Green)	사파이어 블루 (Sapphire Blue)
연회비	500만원	300만원	100만원

공통혜택

공연 초대권 제공(등급별 상이) | 공연 및 전시 할인(20~50%) | 아카데미 수강료 할인 | 월간지 <예술의초대> 매월 발송 | 회원라운지 무료 이용(음료 및 다과 제공) | 주차요금 할인(50%, 회원카드 제시) | 제휴업체 할인(사정상 변경, 조정될 수 있음) | 회원대상 초청 이벤트 실시(별도계획에 의함) | 법인회원 네임 플레이트 제작 및 비치(대극장 로비 벽면) | 법인회원 현판 제공(법인회원 기업 설치) | 초대권 제공(협의 공연) | 문화회관 주차장 정기이용 등록

등급별 추가 혜택

	루비 레드	에메랄드 그린	사파이어 블루
회관 홈페이지 배너 광고	3개월	2개월	1개월
월간 예술정보지 <예술의초대> 광고	1회	-	-
회관 내 DID 법인 홍보	2개월	1개월	-
회관 공식 SNS 홍보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카카오톡스토리, 블로그)	3개월	2개월	1개월

문의 : (재)부산문화회관 홍보마케팅팀(051-607-6041, www.bscc.or.kr)

(재)부산문화회관 후원회

MEMBER OF THE ASSOCIATION FOR THE BUSAN CULTURAL CENTER



회장 **도용복**
(주)사라토가 회장



명예회장 **최수기**
(주)휴넷 회장



명예회장 **변원탄**
의료법인 양산병원 이사장

* 부 회장

권정미 고신의료원 임상교수
권흥사 (주)반도건설
김창환 국제아트센터협동조합 이사장
김정기 (주)경동건설 대표이사
김충석 국제로타리3661 부산지구 총재
박재복 지원건설(주) 회장
박정삼 백송건설 회장
박정오 (주)삼정기업 회장
이근철 (주)삼정 회장
이용흠 (주)일신설계 회장
이원우 한성테크(주) 회장
임말섭 (주)미성하이텍
임미정 (주)창창아이씨티 대표
임현경 신주레약국
임현숙 (사)아름다운 사람들 이사장
장문호 (주)천영스틸 대표이사
조흥수 후소산기(주) 대표이사

* 이사회원

강대일 웰딩시스템 대표
강서룡 효승테크 대표이사
곽국민 (주)파크랜드 대표이사
권한상 부경대학교 교수
김기호 (주)이디에스 보안물류 대표이사
김성우 (재)해뜨락 요양병원 이사장
김암우 세무법인 중추 대표이사
김흥재 (전)연제구의장
김흥재 (주)식스데이 대표이사
류용주 삼신교통(주) 회장
서현석 한국고무산업 대표이사
손명찬 지원건설산업(주) 대표이사
윤철원 (주)정우 대표이사
이수영 (주)유환 대표이사
이진영 돌고래마취통증의학과의원 원장
임정덕 예술과부산 대표이사
장세비 우리은행 부산금융센터 및 부산영업 그룹장
정문흠 (주)태영버스 대표이사

* 일반회원

정연택 디씨엠(주) 대표
정용환 서번산업엔지니어링(주) 대표이사
조기종 조기종치과의원 원장
황성환 부산제2항운병원 원장
강득용 (주)프리미엄 에셋 대표이사
김 철 온종합병원 산부인과
김말순 인창요양병원 대표이사
김영수 세종월드건설 대표이사
김종부 다올테크 대표이사
김진홍 동우개발(주) 회장
김희규 효성의약품(주) 대표이사
도재철 (주)좋은세상 대표이사
문민우 명인제약
박성복 대동병원 이사장
박성환 세종기획 이사
박혜민 구포성심병원 이사장
박홍근 삼강종합건설(주)
성원기 하나유치원 원장
안금주 경성대학교 교수
안진우 세무법인 인성
양은진 세무법인 프로텍 세무사
이경철 통통샤인 정신건강의학과
이상수 엘가 대표
이성임 굿엔프랜드주식회사
이수민 르네상스피부과 원장
이에리카정애 이현숙 정신건강의학과 원장
이현숙
임은자 (사)서부산경제발전연구원
정명선 정민섭 산부인과 원장
정민섭 (전)국회의장
정의화 숙편한내과 원장
조성락 라이프온(주) 대표이사
조중래 주식회사 일신케미칼 사장
하정태 법률사무소 담헌 변호사
한원우

※ 2023년 7월 기준 가입자 명단(이후 추가 가입회원 다음 호 게재)



보람 있는 후원, 명예로운 모임

(재)부산문화회관 후원회 가입안내

GUIDE A MEMBER OF THE ASSOCIATION FOR THE BUSAN CULTURAL CENTER

■ 기본 예우



후원회 전용 룸 이용



대극장 좌석 네이밍



예술의초대
소식지 발송



연(분기 또는 반기)
후원회원 대상 음악회 개최



후원 회원명단 게재
(후원회 홈페이지, 월간지 등)



부산시립예술단 공연 무료 관람 제공
(동반 1인 포함 / 사전 신청자에 한함)



후원회 멤버십 카드 발급



회원패 증정



무료 주차 혜택 제공
(본인 차량에 한함)

■ 회원별 예우

단위 : 만원

구분	가입비	연회비 (익년도부터)	법인/ 개인	기획공연 및 전시 무료 초대		아카데미	좌석 네이밍 (대극장)
				기획공연(연간)	전시		
부회장	500 이상	200	법인/ 개인	- 기획공연 8매 - 기획공연 및 예술단공연 입장료 할인(30~50%)	본인·배우자 무료	본인·배우자 무료	2개 좌석
이사 회원	300	100		- 기획공연 6매 - 기획공연 및 예술단공연 입장료 할인(30~50%)	본인 무료, 동반 1인 50% 할인	본인 50% 할인	
일반 회원	100	50	개인	- 기획공연 4매 - 기획공연 및 예술단공연 입장료 할인(30%)	본인 무료, 동반 1인 50% 할인	본인 10% 할인	1개 좌석

- ※ 법인회원은 300만원부터 가능하고, 후원회원 예우는 개인 및 법인의 대표와 배우자에 한함.
- ※ 공연(기획공연, 예술단공연) 무료초대는 반드시 사전 예약을 하여야 하며, 조기매진 시 초대권 제공 불가함.
- ※ 일부 공연의 경우 공동주최 등의 사유로 예우사항(할인율 등)이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 전시, 아카데미(1강좌에 한함)의 경우 반드시 사전 신청자에 한하며 내부 사정에 따라 예우사항 등은 조정될 수 있음.

가입문의 : (재)부산문화회관 문화예술팀(607-6052)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가 을 랩 소 티

아침저녁으로 부는 신선한 바람은
유난히 뜨거웠던 지난여름의 열기와
팬데믹의 잔혹함을 위로하고
봄계 익어가는 가을 속에
우리 음악의 서정적인 정취를 느끼며
다시 한번 가족의 소중함과 안온함의 감사를 나누는
가을밤 국악의 향연 "가을 랩소디"

Program

국악관현악 만추(Late Autumn)

해금 협주곡 가을을 위한 도드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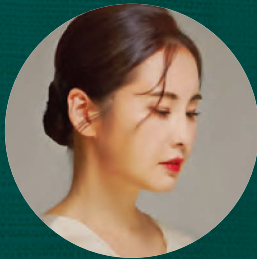
상송과 국악관현악 사랑의 기쁨 - 사랑의 찬가 - 빠담빠담

25현 가야금 협주곡 밤하늘에 기대어

국악관현악 꿈꾸는 나무



지휘 이동훈



해금 윤혜승



상송 가수 조엘



가야금 김해시립가야금연주단

2023. 9. 13 수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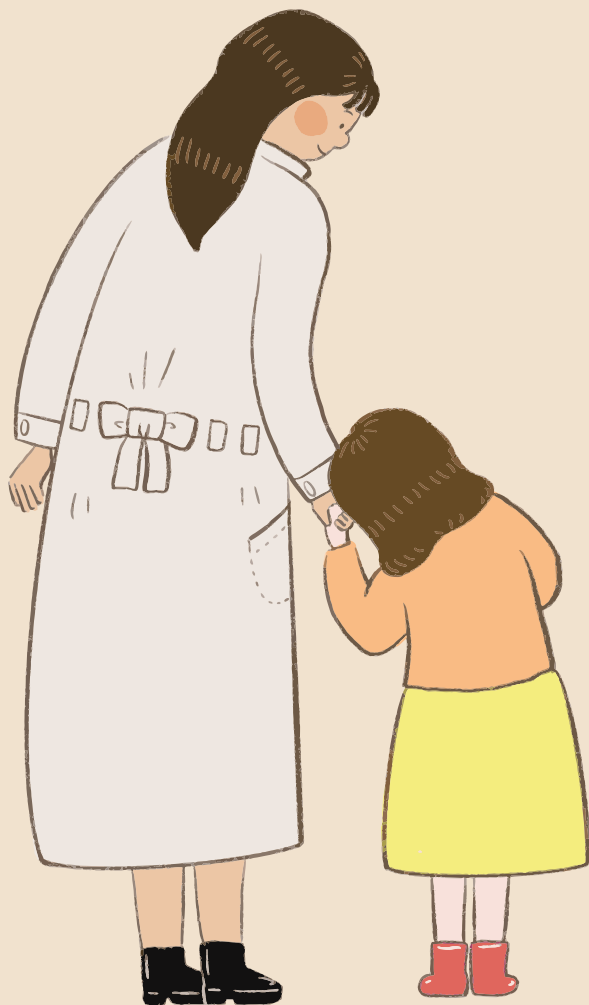
주최 부산문화회관 티켓 R석(1층) 20,000원 · S석(2층) 10,000원 예매 www.bscc.or.kr 문의 051) 607-6000 (ARS 1번)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BMTMO SEASON 2023

부산시립합창단 유명지휘자 초청연주회



그 리 움
그 기 억 속 에 서



가슴속 그리움을 나누는
한가을의 합창 연주회

프로그램

애가	Nyon Nyon
조혜영	Jake Runestad
Cloudburst	그리움
Eric Whitacre	정남규 외 다수



객원지휘 손동현



2023.9.21(목) 19:3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I N V I T A T I O N T O T H E A R T S

2023 9 SEPTEMBER



COUPON



30% Discount

갤러리안경(전 지점)

이 쿠폰과 문화회관 정기회원카드를 제시하시면 할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

COUPON



20% Discount

노벨안경콘택트

이 쿠폰과 문화회관 정기회원카드를 제시하시면 할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

COUPON



20% Discount

해리스커피

이 쿠폰과 문화회관 정기회원카드를 제시하시면 할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술의 초대
The Monthly Magazine of the Busan Cultural Center



(재)부산문화회관 공식 SNS 채널을 팔로우 하세요!



@bsculturalcenter_official



facebook.com/busanculturalcenter



@배시시TV



(재)부산문화회관

COUPON

COUPON

COUPON



(부산송도) 베스트웨스턴 플러스호텔

예약방법 : 호텔 홈페이지 예약하기 → 프로모션 코드입력 "CORMEM"
(<https://bwplusbusan.com/>)

부산광역시 서구 송도해변로 97
051)977-8888



신세계면세점 부산점

증정 기간 : 2023. 9. 30까지
증정 장소 : B1 고객 서비스 데스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4로 15
1661-8778



BNK부산은행 조은극장

입장권 20% 할인

부산광역시 중구 구덕로34번길 4
1588-2757



EXPO 2030
BUSAN



BUSAN CULTURAL CENTER
부산문화회관

음악동화



그림자극

PETER

AND THE

WOLF

S. PROKOFIEV, PETER AND THE WOLF OP.67

<피터와 늑대>

2023. 8. 18(금) - 9. 24(일)

평일 11시 / 주말 11시, 14시 (월, 화 휴관)

부산문화회관 사랑채극장



제작 극단 영 입장료 전석 2만원 입장연령 36개월 이상 문의 및 예매 051-607-6000(ARS 1번) www.bscc.or.kr

COUPON



해리스커피

음료 20% 할인(정기회원 카드 제시 시)

부산문화회관 내
1577-2307

COUPON



노벨안경콘택트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전 상품
20% 할인(일부품목 제외)

부산광역시 남구 유엔평화로 152-2
051)626-8263

COUPON



갤러리안경(전 지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대상
30% 할인(일부품목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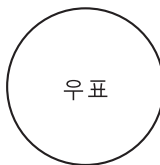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산대학교 50
051)513-4500

우 편 엽 서

보내는 사람

이름

주소



받는 사람

이름

주소



The Monthly Magazine of the Busan Cultural Center

독자의견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세요.

The Monthly Magazine
of the Busan Cultural Center

1. 이번 호에서 유익했던 기사는?

.....
.....

2. 앞으로 다루었으면 하는 내용은?

.....
.....

3. 개선해야 할 점은?

.....
.....



모바일 엽서로도
참여 가능합니다.



2023 9 SEPTEMBER

I N V I T A T I O N T O T H E A R T S



603

An All-Tchaikovsky Program

BUSAN
PHILHARMONIC
ORCHESTRA
1962

Soo-Yeoul Choi
Artistic Director &
Chief Conductor



부산시향의 차이콥스키

지휘 백승현
피아노 세르게이 타라소프

차이콥스키 / 피아노 협주곡 제1번
차이콥스키 / 교향곡 제4번

2023년 9월 22일 금요일 19:30 부산시민회관 대극장

티켓 R 20,000원 S 15,000원 A 10,000원 B 5,000원
문의 051-607-6000(ARS 1번)



부산시립교향악단

www.bscc.or.kr

가혹한 운명 진실한 사랑을 통한 구원

MUSICAL
F A R I N E L L I
파리넬리

9.23(토)~24(일)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제작 에이치제이컬처 HICULTURE 주최·주관 WSM 부산문화회관 BUSAN CULTURAL CENTER 부산문화회관 시간 토/일 오후 2시, 6시 예매 인터파크, 네이버예약, 11번가티켓 문의 1566-5490

◆◆ (재)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10%할인 1인 4매 / 1566-5490 전화예매시 ◆◆

월드콩쿠르 우승자 시리즈

World Competition Winner Series

W
C
W
S

제15회 반 클라이번 콩쿠르 한국인 최초 우승자

선우예권 피아노 리사이틀

2023.10.06.(금), 19: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R석 6만원, S석 4만원, A석 2만원



주최



부산일보사



World EXPO 2030
BUSAN, KOREA



BUSAN CITIZEN'S HALL
부산시민회관



© Andreas Zihler

지휘 피에타리 잉키넨
Pietari Inkinen

피아노 손열음
Yeol Eum Son

DEUTSCHE
RADIO
PHILHARMONIE

도이치방송오케스트라
with 손열음

R. WAGNER Tannhäuser Overture
S. RACHMANINOFF Piano Concerto No. 3
L. v. BEETHOVEN Symphony No. 7



© Jean M. Laffrau

2023. 9. 19 TUE 7:30 PM
부산시민회관 대극장

주최 | 부산문화회관 더존테크윌 주관 | STUDIO DUZON

입장권 | VIP석 16만원 R석 14만원 S석 11만원 A석 8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10% 할인) 예매처 | interpark 티켓 문의 | STUDIO DUZON 02-514-0280~1



안드라스 쉬프
ANDRÁS SCHIFF
10월 4일(수)



유자 왕
YUJA WANG
11월 28일(화)



크리스티안 짐머만
KRYSTIAN ZIMERMAN
12월 27일(수)

2023 *World Pianist*

월드 피아니스트 시리즈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주최  부산문화회관 주관  mast media

티켓  부산문화회관 051-607-6000(ARS 1번)  interpark 티켓 1544-1555 문의  부산문화회관 051-607-6000(ARS 1번)